

坡州 六溪土城



京畿道博物館
坡州


京畿道博物館 遺蹟調查報告 第24冊

坡州 六溪土城

試掘調查報告書

白種伍
申泳文
吳康錫

2006

 京 畿 道 博 物 館
坡 州 市

임진강변에 자리 잡은 제2의 풍납토성

임진강이 굽이쳐 흐르는 파주시 적성면 일대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적성현이라는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존재했습니다. 이곳은 임진강을 오르내리는 내륙수운과 임진강 주변으로 발달한 하천교통로를 중심으로 수많은 교통로가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적성지역은 오래전부터 남-북을 잇는 교통의 요지일 뿐 아니라, 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가로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대화와 함께 시작된 철도의 개통은 남북교통의 중심지역할을 박탈해 갔고, 뒤이은 분단으로 인한 남-북 교통의 중단 역시 이 지역 쇠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지금의 적성은 파주시의 작은 면소재지에 불과하지만 적성지역의 역사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일찍부터 이러한 적성지역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임진강변에 자리 잡은 육계토성은 한국고대사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로 항상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1996년 임진강 유역의 수해로 육계토성이 큰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복구와 유적의 수습조사에 앞장섰으며, 뒤이은 발굴조사를 통해 육계토성의 성격이 차차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조사초기에 한성기 백제의 유적으로 주목받던 육계토성은 이후 많은 고구려 유물이 출토되어 고구려에 의해 사용된 유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신석기시대부터 초기철기시대에 이르는 각종 유물이 출토되어 육계토성은 통시대적인 복합유적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박물관에서는 육계토성 발굴조사가 개관 이래 최초의 유적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으며, 이번 육계토성 4차조사를 통해 육계토성이 새롭게 조명되는 것 또한 개관 10주년을 맞은 우리 박물관에서는 또 한번의 뜻깊은 유적조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육계토성이라는 이름보다 파주 주월리 유적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육계토성의 성격을 정확히 부각시키기 위해, 항공촬영조사와 유적 전체의 측량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정밀 지표조사를 통해 성내·외 시설물의 현황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육계토성은 임진강변의 작은 성곽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백제 도성인 풍납토성에 버금가는 규모와 시설을 가진 거대한 토성임이 확인되었고, 출토되는 유물의 시기도 그리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로써 한성백제 시기 임진강 유역의 고대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장이 열렸고, 이는 개관 이래 육계토성을 주목해온 우리 박물관이 거둔 뜻 깊은 성과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기간 동안 현장을 찾아 많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지도위원들께 감사드리며, 폭염 속에서 현장조사에 만전을 기한 책임조사원 이하 조사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2006년 4월

경기도박물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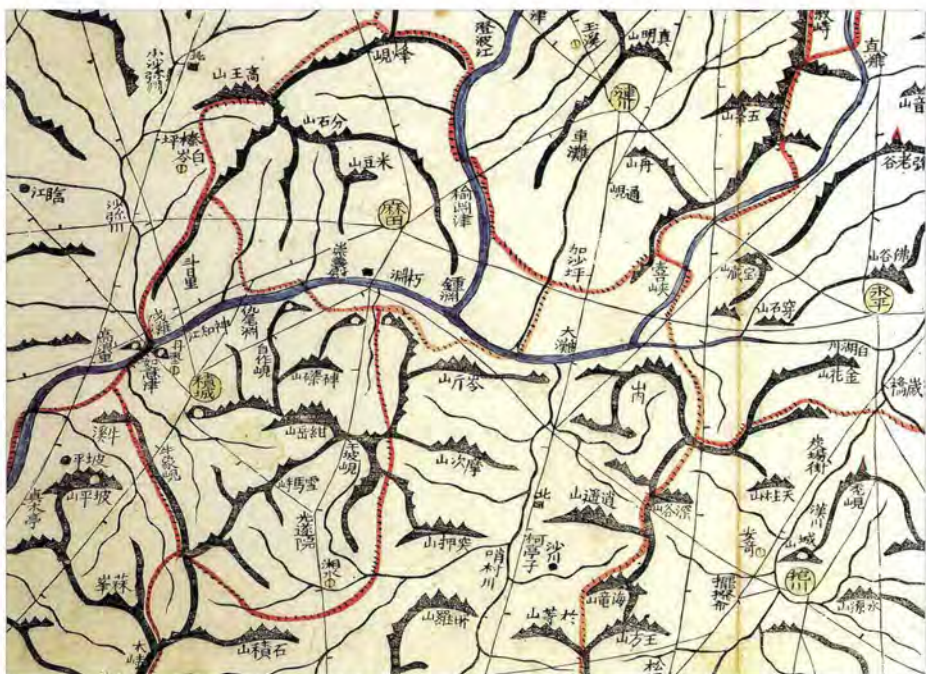
이 동 선



원색사진 1) 육계토성 전경1(항공사진)



원색사진 2) 육계토성 전경2(항공사진)



원색사진 3) 대동여지도



원색사진 4) 남벽 1구간 전경



원색사진 5) 내성벽 전경



원색사진 6) 성내부 전경("가" 지점)



원색사진 7) 성내부 전경("나"지점)



원색사진 8) N1E1 트렌치 유구 윤곽선 노출 상태



원색사진 9) N3W1 트렌치 수혈유구



원색사진 10) 성내부 출토 고구려토기('97)

目 次

發刊辭

原色寫真

I. 머리말	19
II. 遺蹟環境 및 周邊遺蹟	25
1. 遺蹟環境	25
2. 周邊遺蹟	29
III. 遺蹟의 歷史地理的 背景	37
IV. 既存 調查成果	45
1. 1次 調查	45
2. 2次 調查	45
3. 3次 調查	48
4. 出土遺物	50
V. 調查方法 및 經過	55
VI. 調查內容	59
1. 試掘調查	59
2. 地表調查	139
VII. 綜合考察	149
1. 遺構에 대한 檢討	149
2. 遺物에 대한 檢討	153
VIII. 調查成果와 意義	159
IX. 整備·復元을 위한 調查團 提言	163
寫真	165
參考文獻	203
發刊圖書	209

원 색 사 진 목 차

- 원색사진 1) 육계토성 전경1(항공사진)
- 원색사진 2) 육계토성 전경2(항공사진)
- 원색사진 3) 대동여지도 육계토성 부근
- 원색사진 4) 남벽 1구간 전경
- 원색사진 5) 내성벽 전경
- 원색사진 6) 성내부 전경("가"지점)
- 원색사진 7) 성내부 전경("나"지점)
- 원색사진 8) N1E1 트렌치 유구 윤곽선 노출 상태
- 원색사진 9) N3W1 트렌치 수혈유구
- 원색사진 10) 성내부 출토 고구려토기('97)

도 면 목 차

- 도면 1) 육계토성 현황도
- 도면 2) 조사지역 및 주변유적 현황도(1/50,000)
- 도면 3) 대동여지도
- 도면 4) 구한말 지도
- 도면 5) 육계토성 그리드구획도
- 도면 6) 시굴조사 유구배치도
- 도면 7) 조사지역내 유구배치도 및 토층도
- 도면 8) N0W1 트렌치 평면도 및 토층도
- 도면 9) N1W1 트렌치 평면도 및 토층도
- 도면 10) N2W1 트렌치 평면도 및 토층도
- 도면 11) N3W1 트렌치 평·단면도 및 토층도
- 도면 12) N4W1 트렌치 평·단면도 및 토층도
- 도면 13) N5W1 트렌치 평면도 및 토층도
- 도면 14) N1E1 트렌치 평면도 및 토층도
- 도면 15) N2E1 트렌치 평면도

- 도면 16) N3E1 트렌치 평면도 및 토층도
- 도면 17) N4E1 트렌치 평면도 및 토층도
- 도면 18) N5E1 트렌치 평면도 및 토층도
- 도면 19) N0W1 트렌치 출토 토기류 1
- 도면 20) N0W1 트렌치 출토 토기류 2
- 도면 21) N0W1 트렌치 출토 토기류 3
- 도면 22) N1W1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 도면 23) N2W1 트렌치 흑회색 사질층 출토 토기류
- 도면 24) N2W1 트렌치 암갈색 사질층 출토 토기류
- 도면 25) N3W1 트렌치 출토 토기류 (장방형유구①~⑥, 교란층⑦, 원형유구⑧)
- 도면 26) N4W1 트렌치 원형수혈유구 출토 토기류
- 도면 27) N1E1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1
- 도면 28) N1E1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2
- 도면 29) N1E1 트렌치 유구내부퇴적층 출토 토기류 1
- 도면 30) N1E1 트렌치 유구내부퇴적층 출토 토기류 2
- 도면 31) N2E1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 도면 32) N2E1 트렌치 유구내부퇴적층 출토 토기류 1
- 도면 33) N2E1 트렌치 유구내부퇴적층 출토 토기류 2
- 도면 34) N3E1 트렌치 유구내부퇴적층 출토 토기류
- 도면 35) N4E1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 도면 36) N5E1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 도면 37) 지표수습 토기류 1
- 도면 38) 지표수습 토기류 2
- 도면 39) 지표수습 토기류 3
- 도면 40) 경질무문토기류
- 도면 41) 즐문토기류 1
- 도면 42) 즐문토기류 2
- 도면 43) 기존조사출토 고구려 토기류 1
- 도면 44) 기존조사출토 고구려 토기류 2
- 도면 45) 기존조사출토 고구려 토기류 3
- 도면 46) 기존조사출토 고구려 토기류 4

삽 도 목 차

- 삽도 1) 96-7호 주거지 전경
- 삽도 2) 96-7호 주거지 내 부뚜막 전경
- 삽도 3) 한양대 1호 주거지 전경
- 삽도 4) 한양대 2호 주거지 전경
- 삽도 5) 97-4호 주거지 전경
- 삽도 6) 97-4호 주거지 내 부뚜막 전경
- 삽도 7) 96-7호 주거지 출토 대웅
- 삽도 8) 한양대 2호 주거지 출토 광구장경사이호
- 삽도 9) 97-14호 주거지 출토 호
- 삽도 10) 한양대 2호 주거지 출토 호류
- 삽도 11) 토층상태

사 진 목 차

- 사진 1) 육계토성 전경(항공사진)
- 사진 2) N0W1 트렌치 유구 노출 상태
- 사진 3) N1W1 트렌치 전경
- 사진 4) N2W1 트렌치 전경
- 사진 5) N3W1 트렌치 유구 윤곽선 노출 상태
- 사진 6) N3W1 트렌치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
- 사진 7) N4W1 트렌치 유구 윤곽선 노출 상태
- 사진 8) N4W1 트렌치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
- 사진 9) N5W1 트렌치 전경
- 사진 10) N1E1 트렌치 유구 윤곽선 노출 상태
- 사진 11) N2E1 트렌치 유구 윤곽선 노출 상태
- 사진 12) N3E1 트렌치 유구 윤곽선 노출 상태
- 사진 13) N4E1 트렌치 유구 윤곽선 노출 상태
- 사진 14) 조사지역 수해 모습

- 사진 15) 북벽 전경
사진 16) 동벽 I 구간 전경
사진 17) 동벽 II 구간 전경
사진 18) 동벽 III 구간 전경
사진 19) 남벽 I 구간 외벽 전경
사진 20) 남벽 II 구간 전경
사진 21) 남벽 III 구간 전경
사진 22) 서벽 전경
사진 23) 내성벽 전경
사진 24) 성내부 “가” 지점 전경
사진 25) 성내부 “나” 지점 전경
사진 26) 성내부 “다” 지점 전경
사진 27) 성내부 “라” 지점 전경
사진 28) 성내부 “마” 지점 전경
사진 29) 추정 동문지 전경(항공사진)
사진 30) 추정 남문지 전경(항공사진)
사진 31) 북동 고대지 전경
사진 32) 동남 고대지 전경
사진 33) 추정 수구지 전경(항공사진)
사진 34) 추정 외웅성 전경
사진 35) 현장설명회 광경 1
사진 36) 현장설명회 광경 2
사진 37) N0W1 트렌치 출토 토기류 1
사진 38) N0W1 트렌치 출토 토기류 2
사진 39) N0W1 트렌치 출토 토기류 3
사진 40) N1W1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사진 41) N2W1 트렌치 흑회색 사질층 출토 토기류
사진 42) N2W1 트렌치 암갈색 사질층 출토 토기류
사진 43) N3W1 트렌치 교란층 원형유구 출토 토기류(교란층①, 원형유구②)
사진 44) N3W1 트렌치 장방형유구 출토 토기류
사진 45) N4W1 트렌치 원형수혈유구 출토 토기류 1
사진 46) N4W1 트렌치 원형수혈유구 출토 토기류 2
사진 47) N1E1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1

- 사진 48) N1E1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2
- 사진 49) N1E1 트렌치 유구내부퇴적층 출토 토기류 1
- 사진 50) N1E1 트렌치 유구내부퇴적층 출토 토기류 2
- 사진 51) N2E1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 사진 52) N2E1 트렌치 유구내부퇴적층 출토 토기류 1
- 사진 53) N2E1 트렌치 유구내부퇴적층 출토 토기류 2
- 사진 54) N3E1 트렌치 유구내부퇴적층 출토 토기류
- 사진 55) N4E1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 사진 56) N5E1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 사진 57) N5E1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구연부 세부
- 사진 58) 지표수습 토기류 1
- 사진 59) 지표수습 토기류 2
- 사진 60) 지표수습 토기류 3
- 사진 61) 경질무문토기류
- 사진 62) 즐문토기류 1
- 사진 63) 즐문토기류 2
- 사진 64) 즐문토기류 3
- 사진 65) 기존조사출토 고구려 토기류 1
- 사진 66) 기존조사출토 고구려 토기류 2
- 사진 67) 기존조사출토 고구려 토기류 3
- 사진 68) 기존조사출토 고구려 토기류 4
- 사진 69) 기존조사출토 고구려 토기류 5
- 사진 70) 기존조사출토 고구려 토기류 6

표 목 차

- 표 1) 육계토성 조사 현황
- 표 2) 파주지역 선사시대 유적현황
- 표 3) 육계토성 주변지역 관방유적 현황
- 표 4) 육계토성 유구 현황(1996년)

- 표 5) 육계토성 유구 현황(1997년)
- 표 6) 육계토성 출토유물 주요기종 현황
- 표 7) 육계토성 현황
- 표 8) 육계토성 시굴조사 유구 현황
- 표 9) 육계토성 성벽 현황
- 표 10) 육계토성 시설물 현황
- 표 11) 육계토성 시굴조사 유물 구성
- 표 12) 토기출토현황
- 표 13) 타날문종류와 비율

여 백

I. 머리말



여 백

I. 머리말

육계토성은 백제 한성기 평지토성으로 서울 풍납토성과 함께 초기 백제사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런데 1996년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임진강이 범람하여 서벽과 북벽일부 및 내성벽이 완전히 유실되었고 성내부도 상당히 훼손되었다. 이에 경기도박물관은 1996년 10월 17일부터 10일간 긴급수습조사를 진행하여 유적의 현상과 함께 그 중요성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후 현지 주민들의 신속한 수해복구 요청에 따라 동년 11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한양대학교 박물관과 공동으로 토성 내부의 북서쪽 2개 지점에 대한 긴급발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또한 이듬해인 1997년에 경기도박물관은 유구의 분포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유적의 남서쪽에 위치한 군부대 인접지역을 추가로 발굴 조사하였다. 이러한 두 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주거지 16기, 부뚜막유구 2기, 수혈유구 14기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고, 구석기~삼국시대에 이르는 유물들이 출토됨으로써 이 지역에 선사시대 이래로 대규모 취락이 존재하였음을 밝힐 수 있었다¹⁾.

하지만 그간에 이루어진 조사는 성내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을 뿐 토성에 대한 현황과 구조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상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파주시는 2003년 군부대 주둔지였던 주월리 381, 382, 382-3번지 일대에 병영어촌체험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관련하여 사업부지내 매장문화재부존여부에 대한 현지실사를 우리 박물관에 요청하였다. 그 결과 사업지역은 기존에 진행된 발굴조사지역과 인접하고 백제 유물이 산포된 것으로 보아 이곳에 병영어촌체험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결과를 파주시에 통보하였다.

이에 파주시는 육계토성의 정확한 현황과 구조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 박물관

1) 지금까지 육계토성 내 유구는 파주 주월리 유적으로 알려져 왔다(경기도박물관, 1999, 『坡州 舟月里 遺蹟』). 그러나 이 명칭은 인접한 구석기 유적인 주월리 유적(사적 제389호)과 혼동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조사와 연구는 성곽과 주거유적을 유기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거유적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토성과의 관련성을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였다. 이에 본 조사부터는 성곽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토성 내 주거지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성내 주거유적을 육계토성 내 시설물로 이해하고자 한다.

에 유적 정비를 위한 시굴조사(문화재청 허가 제 2004-835호)를 의뢰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는 육계토성에 대한 정밀지표조사와 군부대 이전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병행하여 토성의 범위와 구조파악 그리고 지하유구의 분포확인에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과 정비안을 수립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시굴 및 지표조사를 위한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단 장 : 이종선(경기도박물관장)

□ 지 도 위 원 :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조유전(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장)

이형구(선문대학교 교수)

최몽룡(서울대학교 교수)

이 재(육군사관학교 교수)

심정보(한밭대학교 교수)

차용길(충북대학교 교수)

배기동(한양대학교 교수)

박순발(충남대학교 교수)

박경식(단국대학교 교수)

□ 조 사 위 원 : 윤용구(인천시립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김성태(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

심광주(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학예실장)

최근성(경기도박물관 교육·홍보팀장)

송만영(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

□ 책임조사원 : 백종오(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 조 사 원 : 한준영(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권순진(경기도박물관 연구원)
 신영문(경기도박물관 연구원)
 오강석(현 강원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오호석(경기도박물관 연구원)
 김정기(현 부여군청 학예사)

□ 조사보조원 : 소민정(경기도박물관 연구원)
 오대양(경기도박물관 연구원)
 강진주(경기도박물관 연구원)
 김현숙(경기도박물관 연구원)

이밖에 이은주(아주대학교 사학전공)·정경훈·곽은미·전현수·김지인(이상 단국대학교 역사학전공)·박햇님(경기대학교 사학전공) 등은 현장조사와 보고서 발간에 이르는 전과정에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고인성·유창림·박세인·이정우·이광열·고은숙·권복순·김간난·최창식(한림전기) 등은 한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발굴조사의 전반적인 진행은 이종선 조사단장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 현장조사는 백종오 책임연구원의 주도하에 권순진·오대양·신영문·오강석·김정기·강진주 등이 진행하였다. 유구의 실측과 유물 정리는 권순진·신영문·오강석·김정기·강진주·오대양·김현숙·곽은미·김지인이, 사진촬영은 소민정·강진주가 담당하였다.

보고서의 집필은 백종오가 담당하였으며, 유구 설명과 고찰은 백종오·신영문·오강석·권순진·오대양이, 유물 설명과 고찰은 신영문·김정기·강진주가 각각 분담하여 작성하였다.

끝으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유화선 파주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파주시 문화관광과 박중근 과장님, 박찬규 계장님, 백희순님 등 파주시청 관계자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지원은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조사단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밖에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크고 작은 일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진한다.

여 백

Ⅱ. 遺蹟環境 및 周邊遺蹟



여 백

II. 遺蹟環境 및 周邊遺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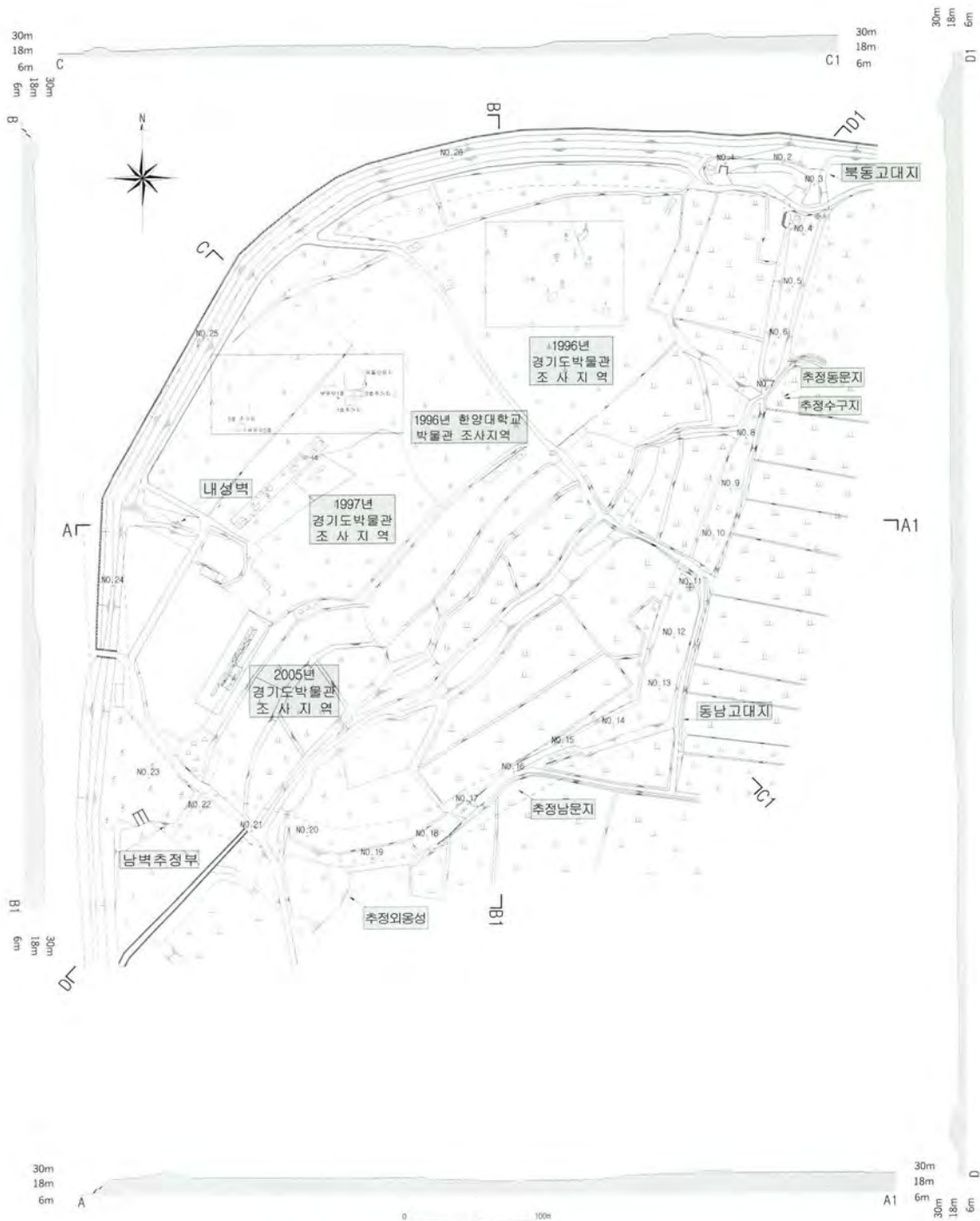
1. 遺蹟環境

육계토성은 행정구역상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육계동 일대로,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6° 53' 50", 북위 37° 58' 50"이다. 이곳은 적성면 소재지에서 연천 방면의 349번 국도에 인접한 가월리 마을입구로부터 서북쪽으로 2km 떨어진 지점에 있다.

유적은 임진강이 사행곡류하여 북쪽으로 돌출해 있는 만곡부의 안쪽에 자리잡고 있는데, 서쪽의 호로탄과 동쪽의 가여울 사이에 위치하며 북에서 남으로 흘러드는 사미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남쪽에 해당되기도 한다. 그리고 유적의 남동쪽에는 파주의 鎭山인 紺岳山(해발 675m)이 있는데 이 산에서 북서쪽으로 뻗어내린 지맥에 重城山이 솟아있다. 중성산(해발 147m)은 적성의 案山으로 적성면·가월리·구읍리·마지리의 경계에 입지하고 있다. 유적이 위치한 파주시는 지리적으로 경기도의 서북단에 해당되며 서울에서 약 40km 가량 떨어져 있다. 동쪽으로는 양주시, 북쪽으로는 연천군과 개풍군, 남쪽으로는 고양시, 서남쪽으로는 한강을 경계로 김포시와 인접해 있다. 또한, 서쪽으로는 임진강과 사천을 경계로 북한의 개풍군과 마주하고 있다.

이 지역의 지형은 동쪽의 광주산맥이 남-북으로 진행하면서 동쪽이 높고 서북쪽이 낮은 분지상 지형으로 서울과 원산을 잇는 추가령구조곡의 서쪽에 해당된다. 경기북부지역의 주 하천인 임진강은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동에서 서로 곡류하며 파주시의 서북부를 관통하고 있다. 이 하천은 강원도에서 발원하여 한강 하류로 유입되며 지류천으로는 어유지천, 객현천, 눌노천, 두포천, 문산천, 탄포천, 설마천 등이 있다. 지류천 부근에는 경기평야, 교하평야, 월릉평야, 파주평야 등이 있으며 밀물시에 퇴적된 드넓은 개펄이 간척을 통해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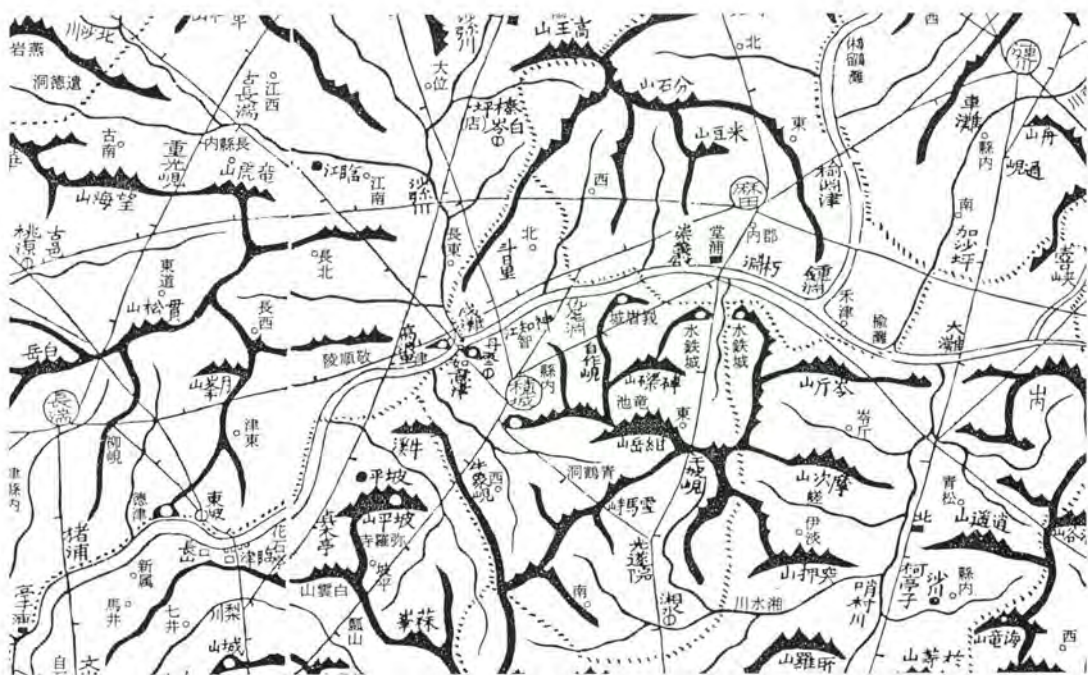
이와 같은 자연지리적 배경은 파주를 경기지방과 황해도를 연결하는 요충지로 오래전부터 주목받게 하였다. 이에 고대에는 여러 세력들의 각축장이 되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현재에도 많은 군부대가 위치해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관 방 유 적				법 레				선 사 유 적				고 분 유 적	
번호	유적명	번호	유적명	번호	유적명	번호	유적명	번호	유적명	번호	유적명	번호	유적명
1	광동리보루	9	침중성	17	삼화리 유물산포지 I	25	현당리 유물산포지 I	33	관방유적				
2	당포성	10	마평산보루	18	삼화리 유물산포지 II	26	현당리 유물산포지 II	34	선사유적				
3	아미리보루	11	무견리보루	19	구이리 유물산포지	27	현당리 유물산포지 III	35	고분유적				
4	호로고루	12	갑악산보루	20	학곡리 고인돌	28	현당리 유물산포지 IV	36	관방유적				
5	두루봉보루	13	눌옥리보루	21	학곡리 유물산포지	29	현당리 유물산포지 V	37	선사유적				
6	덕진산성	14	월봉산성	22	기행리 유적	30	석화리 유물산포지	38	고분유적				
7	아전미성(정자리보루)	15	봉서산성	23	주월리 유적	31	석화리 유물산포지	39	관방유적				
8	금파리성	16	노고산보루	24	구석기	32	금파리 유적						
				25	구석기		향교리 고인돌						
				26	구석기		동파리 유물산포지 I						
				27	구석기		동파리 유물산포지 II						
				28	구석기		장산리 유물산포지 I						
				29	구석기		장산리 유물산포지 II						
				30	구석기		장자리 유물산포지						
				31	구석기		초리 고인돌군						
				32	구석기								
				33	구석기								
				34	구석기								
				35	구석기								
				36	구석기								
				37	구석기								
				38	구석기								
				39	구석기								

도면 2) 조사지역 및 주변 유적 현황도(1/50,000)



도면 3) 대동여지도



도면 4) 구한말 지도

기후는 북부의 대륙성기후와 남부의 난온대기후의 중간적인 특색을 띤다. 연평균 기온은 11.5℃로서 온화한 편이나 연교차는 약 30℃, 연평균 강수량은 1,299mm로 다우지에 속하며 벼농사에 적합하다. 그러나 연수량의 70%가 6~9월에 내리기 때문에 수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며 식물군은 냉온대의 낙엽활엽수지역에 속한다²⁾.

2. 周邊遺蹟

파주지역은 임진강과 이를 중심으로 한 대소 지류하천으로 형성된 자연적인 교통로로 인하여 고대부터 경기지방과 해서지방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이점을 점할 수 있었다. 이같은 자연적인 조건은 선사시대 이래로 많은 문화유적이 분포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먼저 이 지역의 선사유적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구석기유적으로 적성면 울포리³⁾, 주월리·가월리⁴⁾, 파평면 금파리유적⁵⁾ 등이 있다. 특히 주월리·가월리, 금파리 구석기유적은 인접한 연천 전곡리 구석기유적과 그 성격이 동일한 계통의 유적으로 파악되고 있다⁶⁾.

신석기시대유적으로는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1996년과 1997년 육계토성 내부조사에서 100여점의 즐문토기편이 수습되어 이 지역에 신석기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또한 북서쪽으로 파주와 인접한 연천군의 삼화리에서는 신석기 유물산포지⁷⁾가 자리하고 있으며, 삼거리에서는 신석기시대 주거지 6기와 소형유구 1기를 비롯한 다수의 즐문토기들이 출토되었다⁸⁾. 또한 이번 조사에서도 유구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점의 즐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2) 坡州郡誌編纂委員會, 1995, 『坡州郡誌』, 坡州郡.

파주문화원, 1995, 『파주의 역사와 문화』.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02, 『임진강의 적벽과 문화』.

3) 이선복, 1988, 「신발견 구석기 유적」, 『孫寶基博士停年紀念 考古人類學論叢』.

4)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1993, 『파주 주월리·가월리 구석기 유적』.

5) 심영섭, 1992, 「파주 금파리선사유적 구석기 발굴조사 보고」, 『학술연구발표논총』5, 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금파리 구석기유적』.

6)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1993, 앞의 책.

7) 경기도박물관, 2001, 『임진강』 Vol 2.

8) 京畿道博物館, 2002, 『漣川 三巨里遺蹟』.

청동기시대유적으로는 정식 발굴조사는 아니지만 조사지역의 서남쪽 임진강변의 구릉성 산지에 위치한 식현리유적⁹⁾에서 반수혈 주거지 1기와 함께 공열토기편, 마제석부, 마제석촉, 방추차편 등이 채집되었다. 이외에 정자리, 구미리, 학곡리, 삼화리, 원당리 유물산포지를 비롯하여 학곡리와 하포리에서는 고인들이 조사되었다¹⁰⁾. 이상의 조사지역 주변 선사유적을 정리하면 【표 2】과 같다.

【표 2】 파주지역 선사시대 유적 현황

시 대	유 적 명	위 치	비 고
구석기시대	장산리 유물산포지	파주시 문산읍 장산 1리	지표조사
	동파리 유물산포지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지표조사
	금파리유적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발굴조사
	가월리 구석기유적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발굴조사
	원당리유적	연천군 장남면 원당 2리	발굴조사
	삼화리 유물산포지	연천군 미산면 삼화리	지표조사
	삼거리유적	연천군 군남면삼거리	발굴조사
	하포리 고인돌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지표조사
신석기시대	식현리유적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긴급수습조사
	주월리 유물산포지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지표조사
	원당리 유물산포지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지표조사
	학곡리 고인돌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지표조사
초기 철기 시대	주월리 유물산포지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지표조사
	원당리 유물산포지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지표조사
	학곡리 유물산포지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지표조사
	구미리 유물산포지	연천군 백학면 구미리	지표조사
	동이리 유물산포지	연천군 왕징면 동이리	지표조사

9) 추연식, 1986, 「식현리유적 조사보고」, 『慶南史學』3.

10) 경기도박물관, 2001, 앞의 책.

11) 경기도박물관, 2001, 앞의 책.

12)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1, 『파주 칠층성 지표조사보고서』.

13) 백종오, 1999, 「경기북부지역 고구려성곽의 분포와 성격」, 『年報』3, 경기도박물관.

_____, 2002, 「임진강유역의 고구려 관방체계」, 『임진강유역의 고대사회』, 인하대학교박물관.

역사시대 유적은 임진강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관방유적이 체계적으로 조사되었다¹⁴⁾. 먼저 육계토성의 남동쪽 3km 지점에는 칠중성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지표조사에 의하면 칠중성은 시기를 달리하며 수 차례 수·개축되어 사용되었음이 체성벽과 보축성벽을 통해 확인되었다¹⁵⁾. 또한 칠중성 남쪽으로 나 있는 설마천의 주변으로는 감악산보루와 무건리보루가 직선거리로 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 보루들은 설마천을 사이에 두고 북쪽의 칠중성과 서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진다¹⁶⁾. 동쪽으로 6km 지점에는 아미성이 있으며 북서쪽 임진강 남안에는 이잔미성(장좌리보루)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잔미성 맞은편 임진강의 북안으로는 고구려성곽인 호로고루, 덕진산성¹⁷⁾이 지표 및 발굴조사되었으며¹⁸⁾, 북서쪽 임진강 상류지역에서는 당포성¹⁹⁾과 은대리성²⁰⁾이 각각 발굴조사되었다. 조사결과 다수의 백제·고구려·신라토기와 기와편이 출토되어 시대를 달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육계토성을 중심으로 반경 10km 내외에는 입지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다수의 성곽과 보루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이 삼국간 영유권을 두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였던 현장임을 입증하는 산물이다. 이상 육계토성 주변지역의 관방유적 현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육계토성 주변지역 관방유적 현황

(단위 : m)

유적명	위치	해발고도	둘레	축조재료	형식	평면형태	사용시기
칠중성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149	704	석축	테뫼식	장방형	삼국
아미성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397	302	석축	테뫼식	세장타원형	삼국
두루봉보루	파주시 진동면 용산리	69.8	50	석축	테뫼식	장타원형	삼국
덕진산성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85	600	석축	테뫼식	타원형	삼국~조선
조랑진보루	파주시 장단면 노하리	89	50	석축	테뫼식	타원형	삼국
이잔미성	파주시 적성면 장좌리	40	·	·	평지성	타원형	삼국

14)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국방유적연구실, 2004, 「파주 덕진산성 현장설명회자료」.

15)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漣川 瓠蘆古壘(정밀지표조사보고서)』.

16)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국방유적연구실, 2001, 「연천 호로고루 현장설명회자료」.

17)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국방유적연구실, 2003, 「연천 당포성 지표 및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자료집」.

18)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4, 「연천 은대리성 지표 및 시·발굴조사보고서」.

금파리성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	.	평지성	.	삼국~조선
파평산보루	파주시 파평면 눌노리	495.9
감악산보루	파주시 적성면 철마리	675	116	석축	테외식	타원형	삼국
월룡산성	파주시 월릉면 덕은리	229	1,008	석축	테외식	장타원형	삼국
몽서산성	파주시 파주읍 몽서리	215.5	.	석축	테외식	장타원형	삼국~조선
노고산보루	파주시 범원읍 갈곡리	441	25	석축	테외식	타원형	삼국
오두산성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105	1,200	석축	테외식	장타원형	삼국
무견리보루	파주시 적성면 무견리	400	.	.	테외식	타원형	삼국
수철성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397	250	석축	테외식	타원형	삼국
눌목리보루	연천군 전곡읍 눌목1리	410	25	석축	테외식	방형	삼국
광동리보루	연천군 미산면 광동리	179	90	석축	테외식	타원형	삼국
당포성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13	450	토·석축	평지성	삼각형	삼국
은대리성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61.8	1,005	토축	평지성	삼각형	삼국
호로고루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20	401	토·석축	평지성	삼각형	삼국

- 18) 학곡리 적석총은 장방형과 “ㄷ” 자형의 총 4개의 묘곽이 조사되었으며, 유물은 묘곽과 적석부, 급석부에서 호형토기를 비롯한 토기편, 그리고 장신구로서 구슬 136점, 청동방울, 청동환 등의 청동제품과 용도를 알 수 없는 골제품 1점이 출토되었다. 유물 중에서 구슬, 청동제 유물은 고구려 무기단식적석총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고구려적 문화요소가 수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토기에서는 고구려적인 요소는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태토, 기형, 제작기법 등에서 낙랑토성 출토 토기와도 통하는 낙랑계토기가 확인되는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토기는 초기철기시대 토기양식에 해당되어 백제토기의 속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 이렇듯 유물의 계통에서 고구려계, 낙랑계, 백제계가 모두 확인된다는 점은 학곡리 적석총 축조집단의 문화교류가 다각적이었음을 보여준다(기전문화재연구원, 2005, 『연천 학곡리 적석총』).
- 19) 삼꽃리 적석총은 평면 방형으로 동서 2개의 묘곽이 연결하여 있으며, 묘곽의 북편에서 제의 공간으로 보이는 부석시설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타날문 단경호를 비롯하여 철촉, 청동환, 구슬 등이 출토되었다. 이 적석총은 고구려계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들어 백제초기에 해당하는 2~3세기로 편년되고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1994, 『연천 삼꽃리 백제 적석총 발굴조사 보고서』).
- 20)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0,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고분²¹⁾ 등이 있는데, 신답리고분은 고구려식 횡혈식 석실분으로 2기가 조사되었다. 대전리고분과 원당리고분은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신답리고분과 같은 고구려식 석실분으로 추정되고 있다.

21) 연천문화원, 1995, 『郷土史料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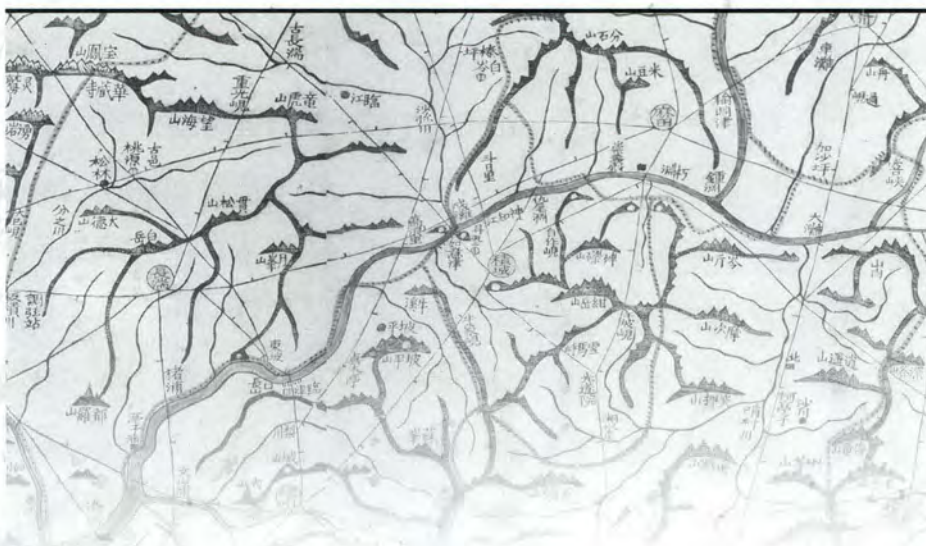
22) 1호분은 지상식으로 평면 방형의 현실과 현문부, 연도, 묘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정은 삼각고임식으로 축조되었다. 2호분 역시 1호분과 같은 지상식으로 평면 방형의 현실을 갖추었다. 이 고분은 현실 천정 가구를 삼각고임식으로 한점, 석실 축조시 화를 사용한 점 등의 고구려 석실분에서 나타난 특징이 확인되며 고구려계 명형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3, 『연천 신답리고분 발굴조사보고서』).

23)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0, 앞의 책.

24)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0, 위의 책.

여 백

Ⅲ. 遺蹟의 歷史地理的 背景



여 백

Ⅲ. 遺蹟의 歷史地理的 背景

파주가 위치한 경기북부지역은 임진강유역에서 한강유역까지를 공간적 범위로 하고 있어 하천 유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고대문화가 발달한 곳이다. 특히 삼국시대에는 각국이 이 지역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정치·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파주지역을 처음으로 점유한 국가는 한강유역에서 발원한 백제였다. 백제는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가운데 한강 이북지역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파주지역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백제의 영역에 속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三國史記』에 따르면 “말갈군대가 엄습해오자 온조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철중하에서 力戰하여 말갈주장 素牟를 생포해 마한의 맹주에게 보내고 그 나머지는 구덩이에 묻어 죽였다”²⁵⁾라고 한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볼 때 온조왕을 전후로 한 시기부터 파주지역은 백제의 영향력 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백제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있었는지 혹은 백제와 연합한 인접 소국의 영토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유적이 자리 잡은 적성에는 神智(혹은 神知)라는 지명이 전하고 있으며 육계토성 앞을 흐르는 임진강을 이 지역에서는 신지강이라 불렀는데²⁶⁾ 이같은 지명은 삼한시대 부족장인 신지의 명칭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이 일대를 마한 소국가운데 하나인 臣漬沽國이 있던 곳으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우선 臣漬沽國은 『삼국사기』에서 交河로 비정되는 고구려의 泉井口縣의 ‘泉井口’와 그 발음이 매우 유사할 뿐 아니라 臣漬沽國은 마한 54개국의 명칭 가운데 바로 백제국의 앞에 있고, 현재 서울의 송파지역과 교하지역이 한강의 중류와 하류에 해당되는 점에서도 두 지역이 지리적으로도 연관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大石索國에 대한 비정인데, 여기서 ‘大’는 接司로 石索國을 꾸미고 있다. 그런데 石

25) 『三國史記』, 卷 23, 溫祚王 18年條.

“十八年 冬十月 靺鞨鎧鎧至王帥兵逆戰於七重城河虜獲酋長素牟送馬韓 其餘賊盡坑之”

26) 『大東地志』, 卷 3, 京畿道 13邑 積城條.

“神智江…三國時以此稱七重河”

索國의 '石索'의 의미는 돌이 동아줄처럼 꼬아져 있다는 뜻이거나 돌이 동아줄처럼 구불구불 늘어서 있다는 뜻으로 풀이 할 수 있고, 이는 임진강, 한탄강유역의 현무암지대의 斷崖를 연상케 한다. 이런 추측에 따를 때, 소석색국은 철원유역으로 비정할 수 있고 대석색국은 임진강유역으로 비정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大石索國의 거점을 파주 육계토성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육계토성 내에서는 백제초기 주거유적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으며 백제적석총의 초기형식인 연천 학곡리적석총이 인접하여 자리한다. 이같은 유적의 배치는 육계토성일대가 오래전부터 임진강유역의 핵심거점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이는 한강 중류에 있던 백제국에 버금가는 정치세력이 존재하였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육계토성 일대를 大石索國으로 비정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²⁷⁾.

육계토성을 거점으로 하던 대석색국이 어느 시점에 백제의 영토에 편입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백제 온조왕대에 이르면 백제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편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에서 언급한 기사에 말갈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파견된 백제의 군사들은 말갈의 위협을 받고 있던 대석색국을 구원하기 위해 출동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조왕대 이지역의 정세를 반영하는 사료가 『三國史記』에 전하고 있는데 '온조왕 37년 4월부터 6월 사이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 한수 이북의 1천여 호가 고구려로 유망하였는데 패수와 대수사이에 사람들이 살지 않게 되었다'²⁸⁾라고 한다. 여기서 패수와 대수는 패강이라고 불렸던 청천강과 육계토성 앞을 흐르는 임진강을 가리키는 것인데 온조왕 당시 이 지역의 민호들은 백제의 속민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기사를 통해 이 일대의 백제 민호가 일천 여 호 정도로 파악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신분고국과 대석색국이 소위 "沮帶之間" 1천여 호에 해당한다면 각 국의 인구는 약 500여 호 2,000여 명 내외로 추산할 수 있겠다.

온조왕대 이래로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한 백제는 고대국가로 성장한 이후 이 지역을 지방 통치체제에 편입시켰다. 현 파주지역을 가리켰던 당시 지명으로는 遼爾忽(파주), 泉井口(교하), 難隱別(적성), 夜牙(장단) 등이었다. 이는 파주시 월릉면에 위치한 월릉산성²⁹⁾

27) 金性泰, 2005, 「백제초기의 인천」, 『고고학을 통해 본 백제 초기의 인천』, 문학산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회복을 위한 학술 심포지움.

28) 『三國史記』, 卷 23, 溫祚王 37年條.

"夏四月, 旱, 至六月乃雨. 漢水東北部落饑荒, 亡入高句麗者一千餘戶, 沮帶之間, 空無居人"

29) 京畿道博物館, 2003, 『月籠山城』.

과 육계토성³⁰⁾ 내에서 다수의 백제유물이 출토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지역이 백제의 중요한 거점지역으로 활용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후 아신왕 1년(392)에 고구려 광개토왕이 관미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으며, 고구려와 백제는 이 지역을 두고 각축을 벌이다가 475년 위례성 함락 후 현재의 파주지역 전체가 고구려의 영토로 귀속되었다. 이후 고구려 장수왕은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이 지역에 현을 설치하는데 현재 금촌·교하·탄현면일대에는 泉井口縣, 파주시내와 문산일대는 述爾忽懸, 파평면에는 坡害平史縣, 육계토성이 위치한 적성면 일대에는 七重縣을 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육계토성내에서 출토된 광구장경사이호와 장동호 같은 고구려계통의 토기나 鐵鎌과 札甲은 주목되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는 임진강유역을 점령한 이후 각 하천교통로가 시작되는 지점에 군사적 거점을 설치하고 이를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는 발판으로 삼았다. 육계토성이 위치한 적성일대에서는 사미천로를 통해 양주분지로 진출할 수 있는데 감악산의 서쪽에 해당하는 이곳은 양주분지로 진출할 수 있는 지름길로 고구려와 백제·신라 모두에게 중요하게 인식되던 곳이었다. 고구려는 신라의 북진에 의해 한강유역을 상실하였으나 고구려 부흥운동기에 이 일대는 일시적으로 고구려부흥군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三國史記』에는 고구려부흥군과 唐軍이 瓠瀟河에서 전투를 벌인 기록이 있는데³¹⁾ 임진강을 가리키는 호로하는 당시 고구려부흥군의 마지막 보루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삼국 가운데 가장 늦게 이 지역에 진출한 신라는 진흥왕대에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세력을 한강유역에서 몰아낸 후 다시 백제 세력까지 축출하고 한강유역을 차지하였다. 이때부터 파주는 신라의 영역에 속하였다. 그 후 삼국통일의 과정에서 적성지역은 고구려와 신라의 각축장이 되었다. 특히 임진강변에 자리한 六溪土城과 七重城은 적성현의 관할로서 삼국통일의 과정에서 주요무대로 부각되었는데 『三國史記』에 의하면 칠중성은 7세기 신라와 고구려의 접경지로 상호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던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³²⁾. 한편 칠중성과 육계토성, 임진강 일대는 나당전쟁의 주무대가 되기도 하였는데 신라의 최북단 방어선이었던 임진강을 도하하기 위해 당군은 수차례 신라를 공격하게 된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전투가 문무왕 13년 있던 임진강 일대의 전투였다. 이 일대의 전투에서 신라군은 당-거란-말갈의

30) 京畿道博物館, 1999, 앞의 책.

31) 『三國史記』, 卷 22, 寶藏王 27年條.

“四年癸酉歲, 夏閏五月, 燕山道總管大將軍李謹行, 破我人於瓠瀟河, 俘獲數千人, 餘衆皆奔新羅”

연합군을 맞아 아홉 번의 전투를 벌였는데 이 전투 결과 2,000여 명을 죽이고 ‘호로(瓠瀟)’와 ‘왕봉(王逢)’의 두 강에(임진강과 한강하구)에 빠져죽은 시신의 수는 이루 다 셀 수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³⁴⁾. 이와 반대로 동왕 15년에는 당의 장군 유인제가 칠중성에서 신라군을 패퇴시키는 등 육계토성 일대는 삼국통일전쟁으로부터 나당전쟁에 이르기까지 약 10여 년간 전략적 요충지이자 전쟁의 승부처가 되었다. 육계토성과 쌍을 이루고 있는 칠중성에서는 신라의 진출이후 사실을 반영하듯 신라계통의 유물들이 집중적으로 채집되었으며³⁵⁾, 임진강 하류의 오두산성³⁶⁾, 파주읍의 봉서산성³⁶⁾과 임진강북안의 호로고루, 당포성, 덕진산성에서도 다수의 신라유물들이 조사되었다. 관방유적과 함께 고분은 오두산성 인근의 탄현면 성동리에서 석실분 5기와 석곽묘 5기가 조사되었다³⁷⁾. 이후 삼국을 완전히 통일한 신라는 경덕왕 16년(757)에 전국을 9주로 개편하였다. 그 과정에서 파주지역의 5개현은 646년에 설치된 한산주에 소속되었다.

고려는 936년 후삼국을 통일하고 940년 지방제도를 개편하면서 그 이름들을 고쳤다. 이때 파주지역은 廣州에 속하였는데 그 관할의 중성현은 적성현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995

32) 삼국사기에 칠중성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삼국의 전투기록은 다음과 같다.

연도	내 용
溫祚王 18 (BC.1)	말갈군대가 엄습해오자 온조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칠중하에서 力戰하여 말갈추장 素牟를 생포하여 마한의 맹주에게 보내고 그 나머지는 구덩이에 묻어 죽였다.
善德王 7 (638)	저울 10월에 고구려가 북쪽 변경 칠중성을 침범하니 백성이 놀라 혼란해져 산골로 들어갔다.
善德王 7 (638)	11월에 알천이 고구려 군사와 칠중성 밖에서 싸워서 이겼다. 죽이고 사로잡은 자가 매우 많았다.
營留王 30 (638)	10월에 신라북변의 칠중성을 치니 신라장군 알천이 막았다. 성 밖에서 싸웠는데 아군이 패퇴하였다.
武烈王 7 (660)	11월 1일에 고구려가 칠중성을 쳐서 군주 필부가 전사했다.

33) 『三國史記』, 卷 7, 文武王 13年條.

“唐兵與靺鞨契丹兵來侵北邊, 凡九戰, 我兵克之, 斬首二千餘級, 唐兵溺瓠瀟・王逢二河, 死者不可勝計”

34)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1, 앞의 책.

35) 경희대학교 고고미술사연구소, 1991, 『오두산성』 I.

36) 경기도박물관, 2001, 앞의 책.

37) 경희대학교 고고미술사연구소, 1992, 『통일동산 및 자유로 개발지구 발굴조사 보고서』.

년에는 장단·적성·파평 등이畿縣에 속해 개성부의 관할 하에 들어갔다. 현종 초기에는 10道가 5道로 바뀌면서 파주지역은 楊廣道에 속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에는 수도인 개경의 인근지역으로서 지방통치에 있어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했던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현종 2년(1011) 거란군대가 장단에 이르자 눈바람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감악 神祠에 깃발과 軍馬가 있는 것처럼 보여 거란의 군대가 두려워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³⁸⁾’는 기록과 ‘고종 5년(1258)에 몽골의 군대가 개성에 진을 치고 교하와 봉성 일대에 난입하여 주민들을 약탈하고 양과 말을 놓아 먹였다³⁹⁾’는 기록에서 개경에 가까운 近畿지역으로 兵禍를 입었다는 것만 단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뿐이다.

임진강은 한양이 수도로 정해진 조선시대에 들어 북방과 수도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길목으로 다시 등장 했다. 태조는 북방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와 군사작전에 관심을 보여 정도전에 게 임진 수미포에서 五軍陣圖를 연습하게 하고는 친히 관람하기까지 했다⁴⁰⁾. 또한 임진강은 명나라 사신이 왕래하는 외교로이자 조선군의 북정시에는 군사로서 중요한 비중을 동시에 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임진현의 德津과 장단나루는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대상이 되었다. 태종 15년(1415)에는 전국의 津渡別監을 종 9품의 渡丞으로 승격시킨 예에 따라 이곳에 임진도승을 임명하여 선박을 비롯한 제반시설을 관장케 하기도 하였다.

한편 선조 25년(1592)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는 충주의 패전을 접하고 밤에 임진을 건너 몽진하면서 경기·황해의 군사로 하여금 임진강을 방어선으로 삼게 하였다. 그러나 결국 임진강 방어선이 무너지고 왜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하였다.

조선후기 광해군 때에 이르면 지세가 노쇠해진 한양을 버리고 파주의 교하로 수도를 옮기자는 교하천도론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광해군 4년(1612)에 術官 李懿信이 도성의 왕기가 쇠하였으니 교하로 천도하자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⁴¹⁾.

38) 『高麗史節要』, 卷 3, 顯宗 2年條.

“監察御使安鴻漸 上言, 丹兵, 至長湍, 風雪暴作, 紺岳神祠, 若有旌旗士馬, 丹兵, 懼不敢前”

39) 『高麗史節要』, 卷 17, 高宗 45年條.

“八月 車羅大, 以兵來屯舊京, 游騎散入昇天府, 交河峯城守安童城, 人牧羊馬”

40) 『太祖實錄』, 33 3月 庚戌條.

“庚戌, 幸臨津壽美浦, 命判三司事鄭道傳講五軍陣圖且曰明日吾將親覽焉”

41) 『光海君日記』, 4年 5月 乙巳條.

“術官李懿信上疏言都城旺氣已衰宜建都”

이와 같이 파주지역은 古來로부터 정치·군사·경제·문화적으로 중요한 무대였으며, 조선시대에는 한때 제2의 수도 후보지로 각광받을 만큼 비중있는 지역으로서 그 위치를 꾸준히 지켜 왔다.

IV. 既存 調査成果



여 백

IV. 既存 調査成果

1. 1次 調査

긴급수습조사는 1996년 수해로 인해 유실된 경작지에 대한 복토작업이 진행되면서 유적의 파괴가 진행되어 동년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실시되었다. 조사는 향후 정식 발굴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유물의 수습 및 유적의 성격, 층위관계, 유적의 분포범위를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긴급조사를 실시할 당시에는 이미 약 4만여 평에 이르는 유적의 절반가량이 증장비로 평탄작업이 진행된 상태였다. 따라서 조사는 평탄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의 노출된 유구와 유물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유구의 흔적이 계속 드러나 조사의 연장이 불가피하였다.

2. 2次 調査

긴급 수습조사 이후 조사연장에 따라 2차 발굴조사는 1996년 11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삽도 1) 96-7호 주거지 전경



삽도 2) 96-7호 주거지 내 부뚜막 전경



삼도 3) 한양대 1호 주거지 전경



삼도 4) 한양대 2호 주거지 전경

34일간 실시되었다. 조사범위가 넓기 때문에 유적의 북서쪽 413번지일대는 경기도박물관이, 남서쪽 407번지일대는 한양대학교박물관이 담당하여 공동조사를 진행 하였다. 먼저 경기도 박물관의 조사결과 주거지 6기, 수혈유구 4기 등이 확인되었다. 조사된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凸' 자형과 타원형이며 수혈유구는 대부분 원형이다. 주거지 가운데 96-7호는 부뚜막과 출입구 시설이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었다. 또한 주거지 바닥처리는 점토다짐한 것과 불먹인 점토다짐으로 크게 나눌 수 있었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대형옹, 심발형토기, 단경호, 고배, 시루 등이 출토되었다.

한편 한양대학교박물관 조사지역에서는 '凸' 자형, 방형의 주거지와 함께 평면형태를 알 수 없는 주거지 내부에서 부뚜막시설 2기가 조사되었다. 특히 1호 주거지에서는 벽체시설이 일부 확인되며, 유물은 고구려토기를 비롯하여 단경호, 심발형토기, 철부, 철촉 등이 출토되었다. 2호 주거지에서는 고구려토기인 광구장경양이호와 광구장경사이호, 어깨에 파상문이 음각된 평저호 등이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바닥시설은 점토다짐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고구려토기의 출토는 당시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각축을 벌였던 백제와 고구려의 영역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2차 조사시 확인된 유구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육계토성 내 유구 현황(1996년)

발굴 기관	유구 번호	성격	평면형태	규모(cm)	바닥시설	출토유물	내부 시설
정 기 도 박 물 관	96-1호	주거지(?)	?	길이 1,200 폭 400	불먹인 점토다짐(?)	.	.
	96-3호	주거지(?)	?	길이 522 폭 156	불먹인 점토다짐	단경호, 방추차, 잔	.
	96-4호	주거지	원형	직경 600 깊이 10~20 장축 1,750	점토다짐	심발형토기	.
	96-7호	주거지	'凸' 자형	단축 1,085 깊이 42	불먹인 점토다짐	대웅, 고배, 시루, 접시, 단경호, 철제꺾쇠, 철검	부뚜막 출입구
	96-7- 2호	주거지(?)	타원형	장축 430 단축 300	불먹인 점토다짐	.	.
	96-8호	주거지(?)	.	길이 210 폭 50~60	.	단경호, 심발형토기	.
	96-2호	구덩유구	원형	직경 210 깊이 60	.	.	.
	96-5호	구덩유구	원형	직경 188 깊이 66	.	단경호, 심발형토기	.
	96-6호	구덩유구	원형	직경 300 깊이 23	.	단경호, 웅, 심발형토기	.
	96-7- 1호	구덩유구	원형	직경 260 깊이 45	.	.	.
한 양 대 박 물 관	1호 주거지	주거지	'凸' 자형	장축 950 단축 720	다짐	단경호, 발, 완, 대웅편, 뚜껑	벽체 시설
	2호 주거지	주거지	방형	장축 600 단축 530	.	고구려토기류, 단경호, 시루, 웅, 방추차, 도르래, 철검, 갈돌	.
	3호 주거지	주거지	'凸' 자형	장축 850 단축 750	점토다짐	시루, 장동호, 웅, 적갈색토기, 철부, 방추차	.
	1호 부뚜막	부뚜막	.	길이 약 200 폭 50~60	.	심발형토기, 호, 방추차, 회색토기, 적갈색토기	.
	2호 부뚜막	부뚜막	.	길이 약 120 폭 50	.	회색토기, 철촉	.

3. 3次 調査

3차 발굴조사는 1997년 경기도박물관이 수행하였다. 1996년도의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홍수피해가 비교적 적고 문화층이 잔존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군부대 인접 지역인 405번지 일대를 조사하였다. 발굴결과 7기의 주거지와 10기의 수혈유구 등이 노출되었다. 주거지들은 대부분 바닥을 점토다짐하였으며, 유물은 대형옹을 비롯하여 단경호, 직구호, 옹시루, 장란형토기, 접시, 뚜껑, 철검, 철서, 철부,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삽도 5) 97-4호 주거지 전경



삽도 6) 97-4호 주거지 내 부뚜막 전경

특히 97-4호 주거지는 출입구와 부뚜막시설을 가진 원형주거지로 장축 방향은 북동-남서향이다. 출입구는 말각장방형으로 주거지의 남서쪽 중앙에 위치하며 주거지와 연결부는 좁은 형태이다. 또한 주거지 내부 가장자리로는 단면 'U' 자형의 溝가 확인되었으며, 부뚜막은 주거지의 북동쪽 중앙의 주거지 벽에 붙어 있는데 출입구와 일직선을 이루는 점이 특징적이다. 평면은 아궁이 부분이 넓고 굴뚝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의 형태이다.

3차 조사결과 밝혀진 유구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육계토성 내 유구 현황(1997년)

발굴 기관	유구 번호	성격	평면형태	규모(cm)	바닥시설	출토유물	내부 시설
경 기 도 박 물 관	97-2호	주거지(?)	?	길이 340 깊이 6	점토다짐(?)	발, 철촉, 찰갑	·
	97-4호	주거지	呂자형	직경 724 깊이 94	점토다짐	직구호, 단경호, 발, 대형옹, 뚜껑	부뚜막 출입구벽구
	97-9호	주거지(?)	원형(?)	직경 470 깊이 20	점토다짐	단경호, 철촉	·
	97-10호	주거지(?)	원형(?)	직경 355	점토다짐	단경호	·
	97-12호	주거지	원형	직경 620	점토다짐	옹, 시루, 단경호, 발, 철검, 철서, 방추차	·
	97-13호	주거지(?)	?	길이 336	점토다짐	옹, 장란호, 철부	·
	97-15호	주거지	원형	직경 490 깊이 30	점토다짐	대형옹, 단경호, 접시	벽구
	97-1호	구덩유구	방형	길이 210 깊이 30	·	단경호	·
	97-3호	구덩유구	원형	직경 248 깊이 28	·	단경호	·
	97-5호	구덩유구	원형	직경 172 깊이 80	·	·	·
	97-6호	구덩유구	원형	직경 140 깊이 20	·	·	·
	97-7호	구덩유구	원형	직경 150 깊이 25	·	·	·
	97-8호	구덩유구	梯形	길이 266 깊이 118	·	연질토기	·
	97-11호	구덩유구	말각 장방형	길이 235 깊이 15	·	직구호	·
	97-14호	구덩유구	원형	직경 210 깊이 40	·	대형옹, 단경호	·
	97-14- 1호	구덩유구	?	길이 120 깊이 15	·	·	·
	97-14- 2호	구덩유구	원형	직경 215 깊이 20	·	·	·

4. 出土遺物

1996년부터 1997년에 걸친 발굴결과 유물은 구석기를 비롯하여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시대와 삼국시대~조선시대에 걸친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중에서 백제 한성기의 유물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육계토성내의 주요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의 현황을 살펴보면 96-7호 주거지 유물로 호·옹·고배·장란형토기·심발형토기·시루·완·동이류 등이 있다. 특히 대옹은 주거지 양장벽에 인접하여 2~3m 간격으로 4점씩 노출되었으며, 부뚜막 주변에서는 시루·고배·완 등 소형의 조리용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한편 97-4호 주거지에서는 경질무문토기 뚜껑이 출토되었으나 주거지의 평면형태상 96-7호 주거지에 비해 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²⁾. 97-12호 주거지에서는 횡으로 평행선문이 타날된 단경호와 원통형시루가 출토되었다.

한양대학교 조사지역의 2호 주거지에서는 광구장경사이호·광구장경양이호를 비롯하여 어깨에 파상문이 음각된 평저호 등의 고구려계토기가 출토되었다.

백제토기류의 주요기종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류가 가장 많으며 대옹의 비율도 높다. 조리용기는 경질무문토기와 심발형토기·장란형토기·시루가 출토되었으며 식기는 완과 접시류가 사용되었다. 특히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조리의 기능이 경질무문토기 중심에서 타날기법이 가미된 심발형토기와 장란형토기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표 6】 육계토성 내 출토유물 주요기종 현황

구분	경질 무문 토기		호 원저 단경호		호 광구 직구 단경호		옹	고배	뚜껑	심발형	장란형	시루	완	동이	접시	기타	계
최소 개체수	5	86	3	3	26	3	2	33	2	9	2	7	8	1			190
백분율 (%)	2.6	45.2	1.6	1.6	13.7	1.6	1.1	17.3	1.1	4.7	1.1	3.7	4.2	0.5			100

42) 신희권, 2001, 「한강유역 1~3세기 주거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육계토성 내부의 주거지에서는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가 공반되고 있다. 경질무문토기는 목이 좁고 경부에 원형의 압인문이 있는 호와 전형적인 장란형토기 등이 함께 나타나고 있어 기종이 교체되는 토기 변화과정을 보여준다. 대웅은 96-7호 주거지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는데 풍납토성의 가-2호 주거지 출토품과는 경부 압인문이나 바닥에 원형의 통굽 등 제작기법의 유사성이 인정된다. 이 기종은 대부분 저장용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았다⁴³⁾. 고배는 회색연질로써 구연부의 높이가 낮고 굽이 나팔상으로 바라진 모습으로 백제 한성기 고배의 시원양식을 보여준다.

또한 한양대학교 조사지역의 2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고구려토기의 기종인 광구장경사이호와 광구장경양이호는 그 태토나 기형으로 보아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한 기종이나 이보다 이른 시기에 사용되어졌을 것으로 보인다⁴⁴⁾. 그러나 이 토기의 사용주체에 관해서는 연구가 좀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육계토성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입지가 동일한 풍납토성에 비해 기종구성이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특히 호류(48.6%)와 웅류(14%)의 비율이 높으며, 호·접시와 같은 기종에서 압문시문기법과 태토 등 고구려토기의 제작기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육계토성이 백제 한성기 중앙과 비교해볼 때 북쪽의 군사적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색이 강하게 작용한 것⁴⁵⁾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토기류의 특징, 철기류·장신구류와 주거지·수혈유구의 양상 등으로 미루어보아 육계토성 내부의 유구는 백제 한성기가 중심을 이루며 이후 고구려 남진기에는 후방 저점성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3) 이러한 제작기법을 가진 대웅은 주로 웅관으로 사용되었던 영산강유역과는 다르게 곡식저장용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京畿道博物館, 1999, 앞의 책, 258쪽).

44) 서울대학교박물관, 1988, 『몽촌토성』.

최종택, 1995, 『한강유역 고구려토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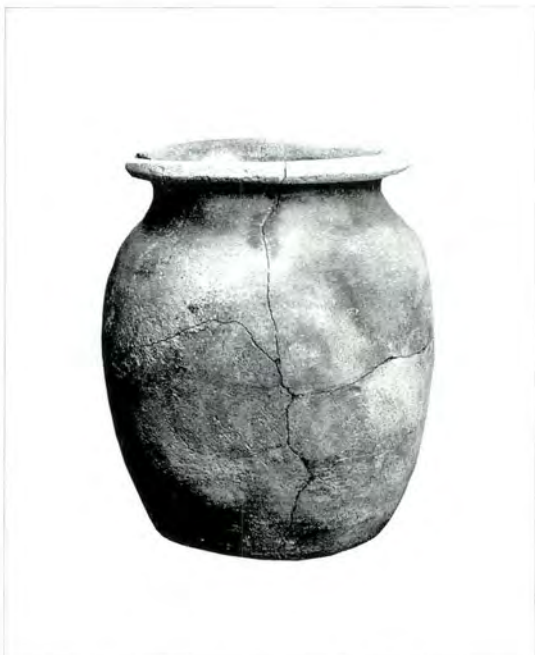
45) 한준영, 2003, 「백제 한성기의 성곽출토 토기 연구」, 『先史와 古代』 18, 한국고대학회.



삼도 7) 96-7호 주거지 출토 대웅



삼도 8) 한양대 2호 주거지 출토 광구장경사이호



삼도 9) 97-14호 주거지 출토 호



삼도 10) 한양대 2호 주거지 출토 호

V. 調查方法 및 經過



여 백

V. 調査方法 및 經過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계토성은 임진강 유역의 초기백제사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표조사를 통한 유적의 현황파악과 성격규명이 되지 않은 성내부 주거지에 국한된 발굴조사만 이루어져 왔다. 이번 조사는 유적의 전반적인 현황과 내용을 정리하여 차후 순차적인 학술조사방안을 세우고 그에 따른 정비개발과 유적의 효과적인 보존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현장조사에 앞서 육계토성에 대한 관련문헌과 조사지역의 고지도 및 일제시대 지형도를 확인하고 주변유적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여 이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현장조사는 제한된 일정과 여건상의 이유로 시굴조사를 선행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시굴지역은 군부대 연병장을 중심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토지보상문제로 부득이하게 조사범위를 軍 소유지인 382번지 일대로 변경하여 약 1300㎡(433坪)을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지역은 10×10m 방안으로 지형에 맞게 북동-남서 방향으로 총 12개를 구획한 후 남북 장축의 2×10m의 트렌치를 굴토하여 층위를 확인하는 하향식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과정에서 트렌치 대부분은 군 시설물이 건립되면서 문화층까지 교란된 경우가 많았다. 조사가 완료된 트렌치에 대해서는 층위와 유구 평면도 및 단면도를 작성하고 사진촬영 후 기록을 남겼다. 또한 각 트렌치 중 유구가 확인된 N3W1, N4W1 트렌치 등의 유구는 하강조사를 실시하였고, N1E1, N2E1 트렌치에 대해서는 그리드 전체를 확장하여 노출된 유구의 평면을 확인하였다.

한편 성벽에 대한 지표조사는 1996년 수해로 유실된 서벽과 북벽일부를 포함한 전 구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성벽은 군 병커와 민묘의 조성, 그리고 경작지화 등에 의해 훼손되어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육계토성의 전체적인 범위와 규모, 시설물 등에 대하여 기본현황을 정리함과 동시에 성벽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평면도 및 종횡단면도를 작성하였다. 또한 방대한 성내부에 대한 조사는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현재 성내부에 가설된 도로를 이용하여 총 5개의 지점을 구획하여 현황

을 파악하였다. 즉 성곽 내부를 횡으로 가로지르는 도로의 북동쪽을 “가”지점, 성내부 동남쪽 하단부에서 북동쪽으로 난 도로와 서쪽 내성벽을 연결하는 곳을 “나”지점, 그 맞은편 남쪽을 “다”지점, 성곽의 남서쪽 모서리 현 시굴조사지역 주변을 “라”지점, 성내부 남서쪽 현재 포도밭으로 개간된 성벽 상부와 그 아래 지역을 “마”지점으로 구분하였다.

현장조사는 7월부터 8월사이의 한여름에 진행되어 어려움이 많았다. 7월 4일 조사에 착수한 날 주월리 일대에 우박과 강풍을 동반한 재해가 발생하여 이 지역의 주요 재배작물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주민들은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어 조사에 따른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1996년과 1997년의 발굴조사결과 유적의 중요성이 현지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것을 우려하여 조사협조에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조사지역이 개인사유지 한복판에 섬처럼 둘러싸여 있어 조사단 및 조사장비의 진출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굴지역은 연약한 사질토양이 퇴적되어 있으며 군 막사 하부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여서 적은 강우에도 무너지거나 쓸려가는 상황이 반복되어 조사일정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였다.

Ⅵ. 調査内容



여 백

VI. 調査内容

1. 試掘調査

1) 土層狀態

이번 시굴조사는 각 트렌치의 북벽과 동벽, 남벽의 층위양상을 개별로 기록하여 전반적인 층위양상을 파악하였다⁴⁶⁾. 다만 지난 3차에 걸친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두께 30~40cm의 황갈색사질층이 지표층 바로 아래에 퇴적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996년과 1997년 조사 때의 층위와 동일한 양상이다. 그러나 현 조사지역이 과거 군부대 막사가 위치하였던 관계로 문화층까지 교란되어진 경우가 많아 유구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삽도 11) 토층상태

시굴조사 지역의 층위는 각 트렌치 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6개의 층으로 구분되어진다. 먼저 I 층인 지표층은 대부분이 교란층으로 두께 10~70cm이고 깊은 곳은 180cm 가량된다. 이 층에서는 군 시설물에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 폐벽돌과 비닐, 플라스틱 배관, 스티로폼 조각 등의 쓰레기와 함께 백제토기편 및 즐문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II 층은 두께 30~40cm의 황갈색사질층(10YR 7/8)⁴⁷⁾으로 이 층위도 군 시설물의 영향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N0W1, N1W1, N1E1, N3E1, N4E1, N5E1 트렌치에서만 보인다. 이곳에서는 유

46) 토층도는 개별 트렌치별로 북·동·남벽을 실측하려고 하였으나 조사지역이 군 막사 건립으로 교란되어 층위가 상당히 불안정하였으며, 수해로 인하여 트렌치벽이 붕괴되어 트렌치별로 실측이 가능한 단면에 한해 실측하였다.

47) Munsell Soil Color Charts(Gretag Macbeth, New York, 2000)에 의함(이하동일).

구와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Ⅲ층은 흑갈색사질층(10YR 3/1)으로 두께 30~60cm이며 백제 토기편만 소량 출토되었다. Ⅳ층은 암갈색사질층(7.5R 3/3)으로 두께 30~60cm 정도이며 지표 하 90~120cm에서 확인된다. 유구와 유물은 대부분 이 층에서 조사되었다. Ⅴ층은 명갈색사질층(7.5R 5/6)으로 두께 20~30cm 정도이다. 이 층에서는 N5E1 및 N4E1 트렌치에서만 유구는 확인되나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Ⅵ층인 황갈색사질층(10YR 6/8)은 유구와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순수 자연층으로 대부분 고운 모래가 퇴적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2) 트렌치별 조사내용

(1) N0W1 트렌치

조사지역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는 트렌치로 지표면의 90~100cm 아래에서 유구가 발견되었다. 트렌치의 동·서·남벽은 군 시설물로 인해 문화층이 대부분 훼손되었다. 유구는 남벽 부에서 주거지 1기와 동벽부 중앙과 북동쪽 모서리 부근에서 각각 수혈유구 1기씩 확인되었다. 이중 동벽부 중앙에서는 즐문토기가 출토되었으며 북동쪽 모서리의 유구는 일부 교란되었다. 유구 내부는 모두 점토와 목탄이 섞인 암갈색사질토가 충전되어 있다.

(2) N1W1 트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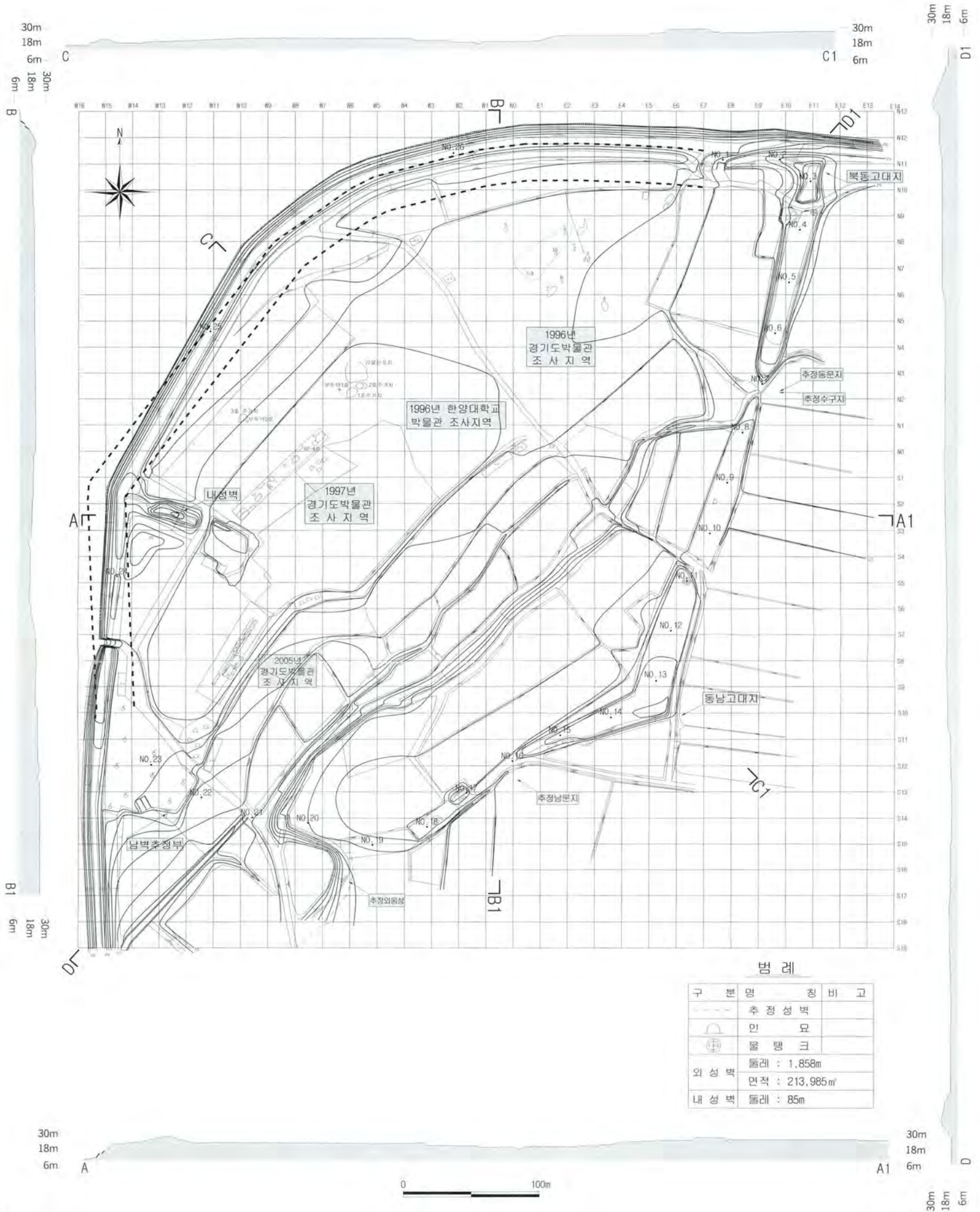
N0W1 트렌치의 북쪽에 위치하며, 깊이 100~110cm에서 암갈색사질층이 확인되었다. 트렌치 내부는 남벽부를 제외하고 군 시설물로 인해 문화층까지 완전히 교란되었으나 유구의 흔적이 남벽과 서벽 단면상에서 확인된다. 특히 남서쪽 모서리에서는 벽체나 노지로 추정되는 황갈색 진흙이 단면에서 반원형태로 관찰된다.

(3) N2W1 트렌치

문화층인 암갈색사질층은 지표 하 100cm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이 트렌치 역시 군 시설로 인해 서벽과 남벽 그리고 동벽의 문화층까지 대부분 교란된 상태이며, 내부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남아있다. 다만 트렌치 동쪽 토층단면에서 주거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노출되었다.

(4) N3W1 트렌치

N2W1 트렌치의 북쪽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N3E1과 인접하여 있다. 지표 하 100~120



도면 5) 육계토성 그리드 구획도

여 백



도면 6) 시굴조사 유구 배치도

cm에서 유구가 확인되었다. 노출된 유구는 원형의 수혈유구 2기와 중복된 장방형과 원형의 주거지가 있다. 원형의 수혈유구와 남쪽의 장방형 주거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하강조사를 실시하였다.

트렌치 남쪽의 동벽에 연접하여 노출된 장방형주거지는 서벽에 붙어 연장되고 있으나 독붕괴를 고려하여 노출된 부분의 절반만 절개하여 조사하였다. 바닥과 벽체는 별도의 시설을 하지 않았다. 유구 전체를 조사하지 않아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으나 형태와 규모로 볼 때 주거지로 판단된다. 규모는 깊이 50cm, 길이 310cm이다. 또한, 장방형 주거지 하부의 원형주거지에서는 벽체에 황갈색의 점토가 다량 함유되었다. 유물은 내부퇴적토에서 회청색경질타날문토기 구연부편과 즐문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트렌치 북쪽의 원형유구는 서쪽으로 이어지는 원형의 유구와 중복되어 있다. 조사결과 벽체는 별다른 시설을 하지 않았으며, 바닥은 소형의 강돌을 이용하여 마무리하였다. 내부에서는 즐문토기편과 적갈색, 회청색 타날문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주거지로 보기에는 규모가 작으며, 벽체와 바닥에 별다른 시설을 하지 않아 저장용 수혈유구로 추정된다. 규모는 깊이 110cm, 폭 220cm이다.

(5) N4W1 트렌치

유구는 깊이 100cm 아래의 명갈색사질층에서 노출되었다. 군 시설물이 트렌치와 평행하게 설치되어 문화층까지 교란되었다. 트렌치 중앙에서 원형의 수혈유구가, 동남벽 모서리에서는 수혈로 보이는 유구가 조사되었다.

트렌치 중앙의 수혈유구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의해 파괴되어 반원형의 윤곽선만 확인된다. 벽체는 별다른 시설을 하지 않았으며, 바닥은 작은 강돌을 이용하여 마무리하였다. 유구의 일부분만 조사하여 형태와 성격은 분명치 않지만 주거지로 보기에는 소형이며 깊이가 깊은 것으로 볼 때 저장용 수혈유구로 판단된다. 내부퇴적토에서는 대형옹편·호 구연부편·즐문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규모는 깊이 100cm, 폭 230cm이다.

(6) N5W1 트렌치

콘크리트 구조물에 의해 문화층은 대부분 파괴되었다. 지표 하 70cm 지점에서 황갈색사질층이 노출되었는데, 이는 다른 트렌치에 비해 약 50cm 정도 상면에 해당된다. 토층의 높이로 볼 때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원지형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7) N1E1 트렌치

지형의 제한으로 인해 동쪽의 7m 구간만 조사한 결과 암갈색사질층에서 주거지로 판단되는 유구가 확인되었다. 범위확인을 위해 그리드 전체를 확장하였는데, 문화층은 군 시설물과 연탄재 및 각종 쓰레기 등의 매립으로 인해 절반가량이 교란되었다.

유구는 주거지 5기·수혈유구 2기가 노출되었다. 그리드의 중앙에서 4~5m 정도의 폭으로 목탄과 점토가 평행하게 남북방향으로 이어지는 'ㅁ' 자형 주거지가 확인되었고 'ㅁ' 자형 주거지의 하부에서 선대의 것으로 보이는 2기의 유구가 중복되어 조사되었다. 그러나 교란이 심하여 윤곽선은 분명치 않다. 남벽에 붙어 조사된 장방형의 주거지는 중앙부에서 부뚜막 시설로 보이는 석재들이 노출되었다. 또한, 동벽에 접해서 주거지의 바닥면으로 판단되는 부정형의 유구 2기가 확인되었다. 서벽의 중앙부에 인접한 곳에서는 타원형 수혈유구 2기가 조사되었다. 한편, 확장 트렌치의 중앙부에는 근래에 조성된 배수시설의 흔적이 있다.

(8) N2E1 트렌치

N2E1 트렌치는 인접한 N1E1 확장트렌치와 입지조건이 동일하여 동쪽으로 7m만 조사하였다. 유구는 지표면 120cm 아래에서 노출되었으며 유구의 범위와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확장하였다. 그 결과, 각종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문화층의 절반정도가 교란되었으며, 황갈색사질층에서 주거지 2기·수혈유구 2기가 노출되었다. 유구는 확장트렌치 서쪽에서 폭 3~5m 정도에 남북 장축으로 관찰되나 중복상태가 심하다. 확장트렌치의 동쪽으로 군용 폐기물과 함께 연탄재, 시멘트구조물, 자갈과 모래 등이 있으며, 후대 배수시설의 흔적이 남북방향으로 길게 남아 있다.

(9) N3E1 트렌치

군 시설물로 인해 동벽은 전체적으로 교란되었으며 유구의 상면도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다. 유구는 깊이 100~120cm 아래에서 확인된다. 조사된 유구의 윤곽선은 분명치 않지만 주거지가 남북방향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백제토기만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백제주거지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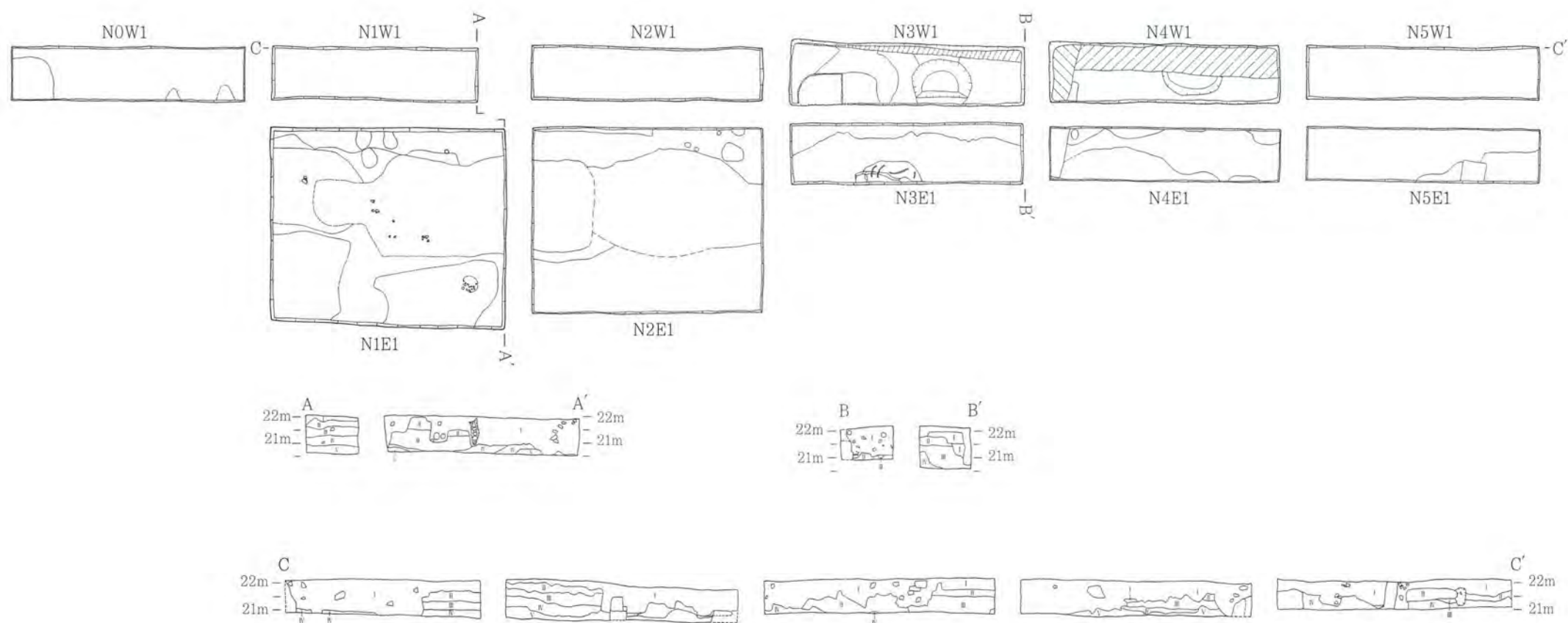
(10) N4E1 트렌치

지표 하 100~110cm의 깊이에서 유구가 노출되었다. 남벽에 70cm 정도의 콘크리트구조물

이 문화층을 파괴하고 들어서 있는데 이곳에서는 2기의 주거지가 잔존해 있다. 모두 동벽에 인접하여 남북방향으로 길게 노출되었으나 중복관계가 심하여 전체적인 형태는 불분명하다. 내부에서 백제토기만 출토되고 있어 백제 주거지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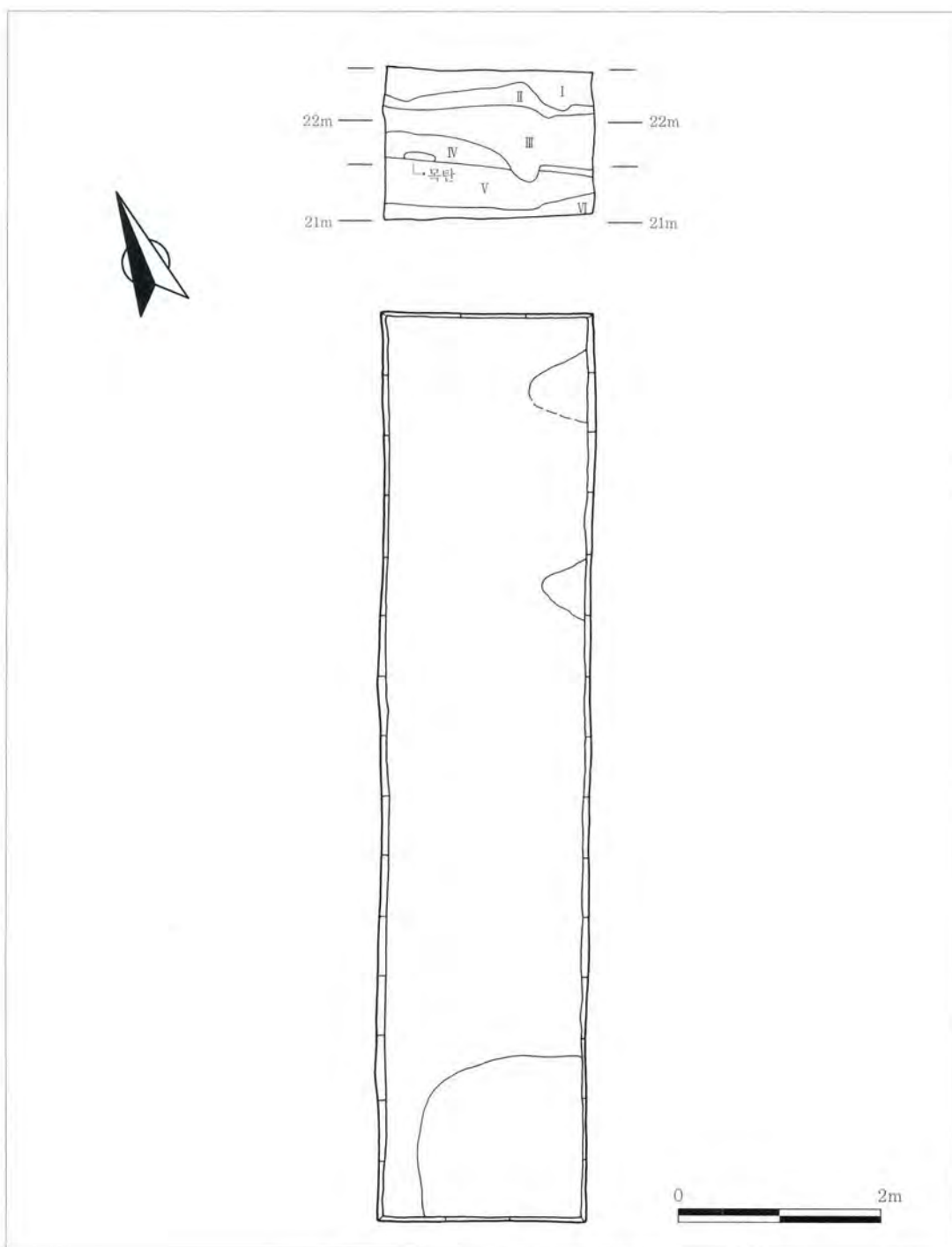
(11) N5E1 트렌치

시굴조사지역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자리한 트렌치로 우천시 침수와 붕괴가 계속되어 조사를 진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총 2기의 유구가 지표 하 100~120cm에서 노출되었다. 북동벽 모서리에는 두께 50cm, 높이 1m 가량의 사각형 콘크리트구조물이 문화층을 파괴하고 설치되어 있다. 이 구조물로 인해 북쪽은 대부분 교란되었지만 유구로 보이는 윤곽선이 바닥면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동벽 중간지점, 즉 콘크리트 구조물 밑으로 연접하여 부정형의 유구가 노출되었다. 한편, 동남벽 모서리에서 확인되는 유구는 윤곽선이 인접한 N4E1 트렌치의 북쪽 유구 윤곽선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 N4E1 트렌치 북쪽유구와 동일유구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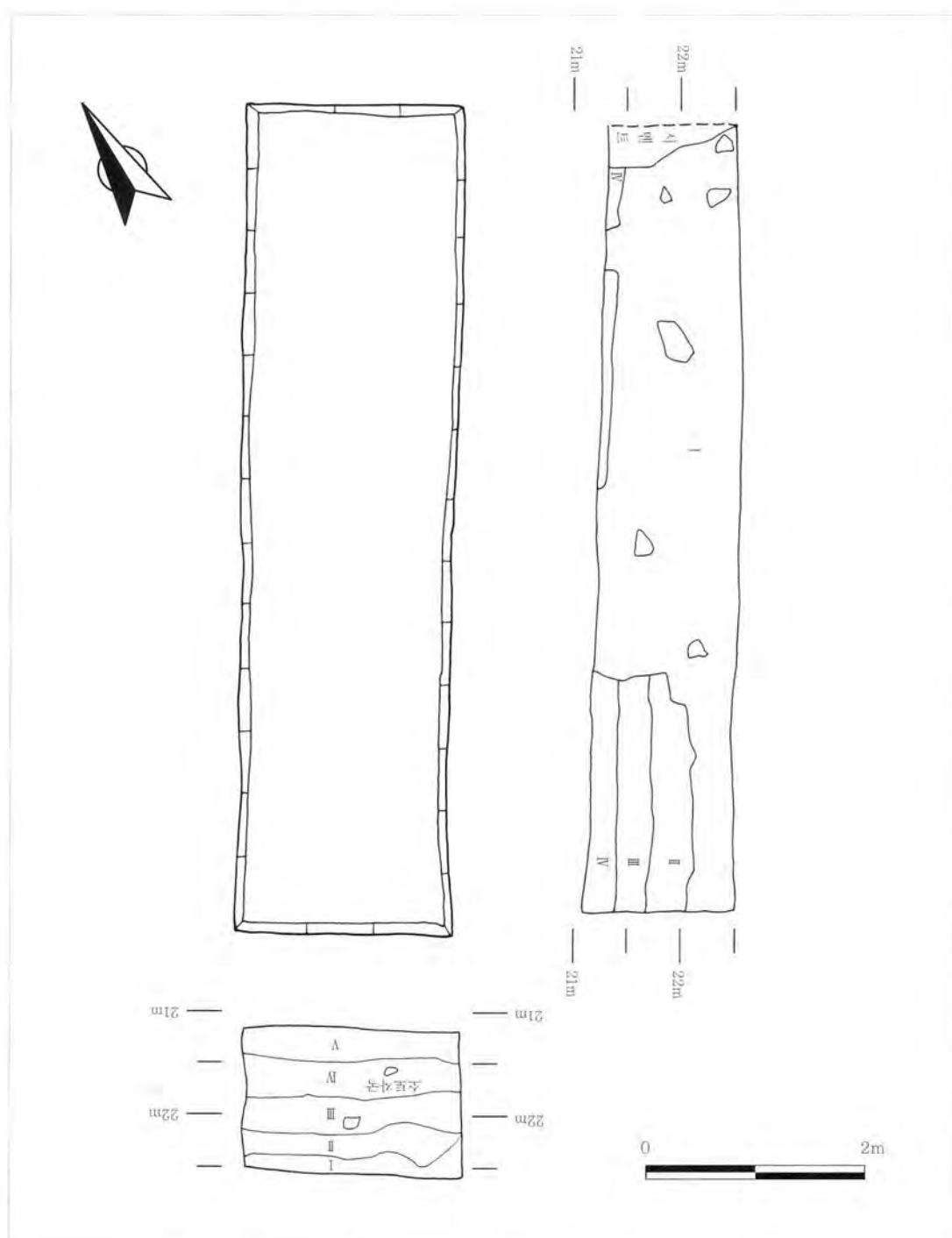


도면 7) 조사지역내 유구배치도 및 토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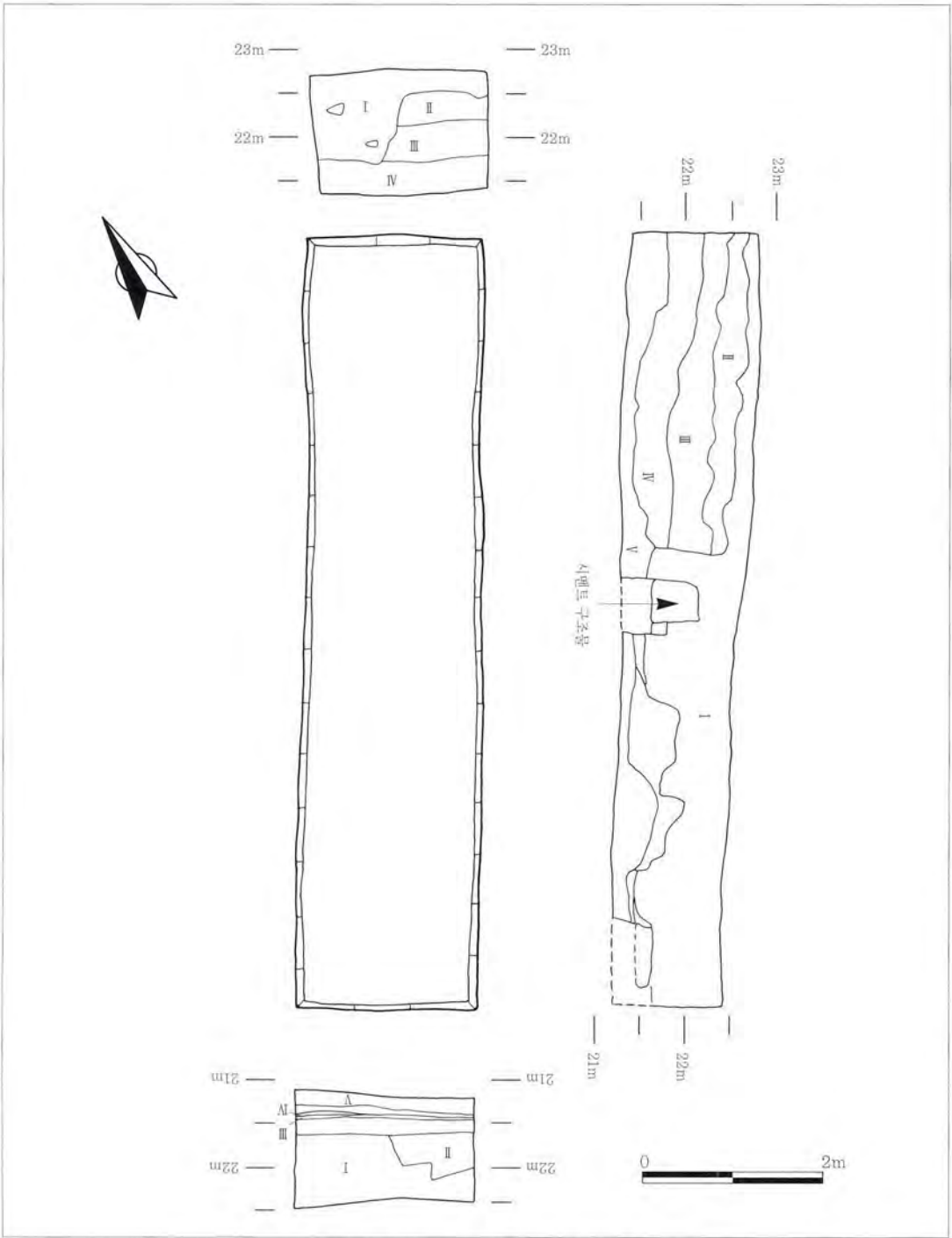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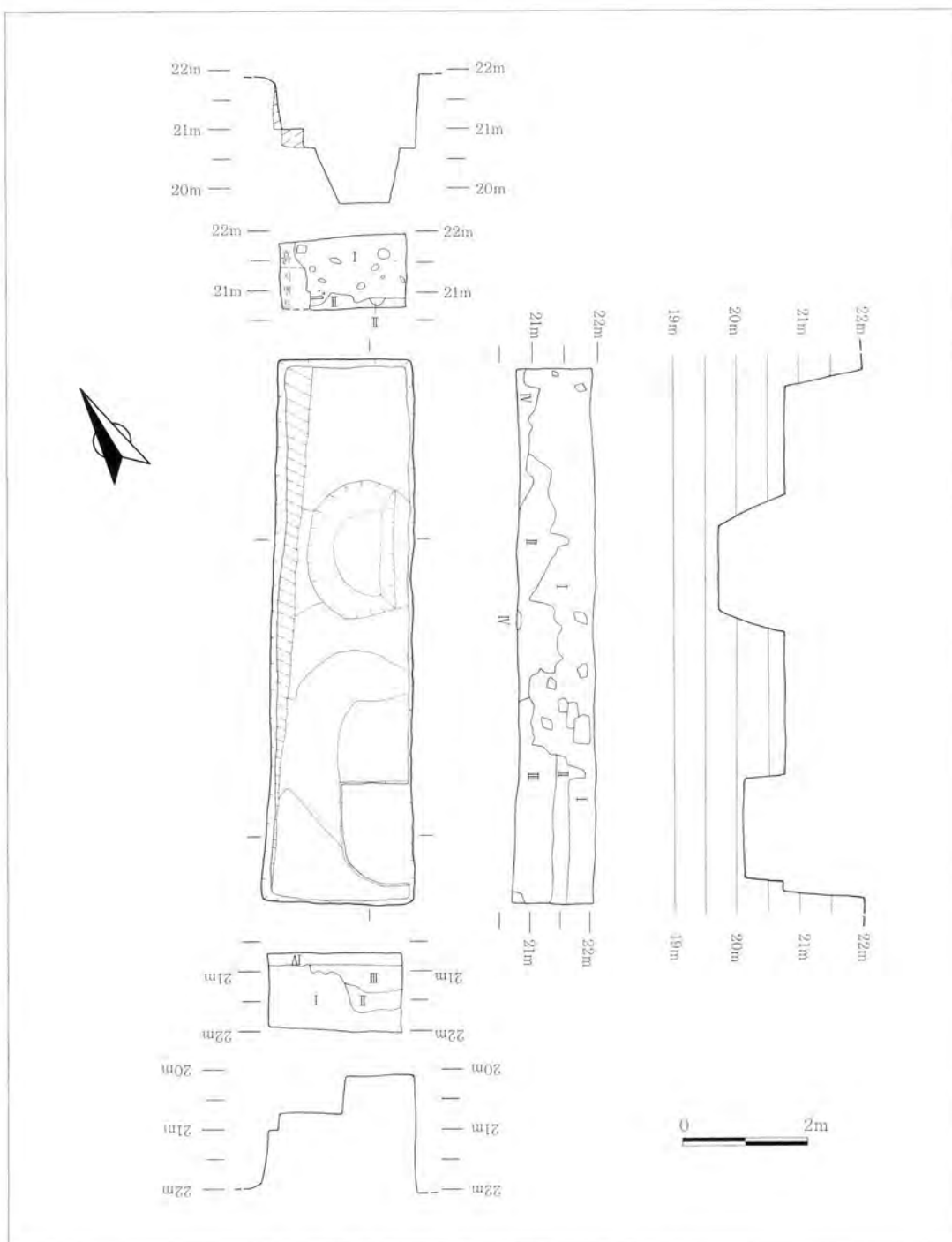
도면 8) NOW1 트렌치 평면도 및 토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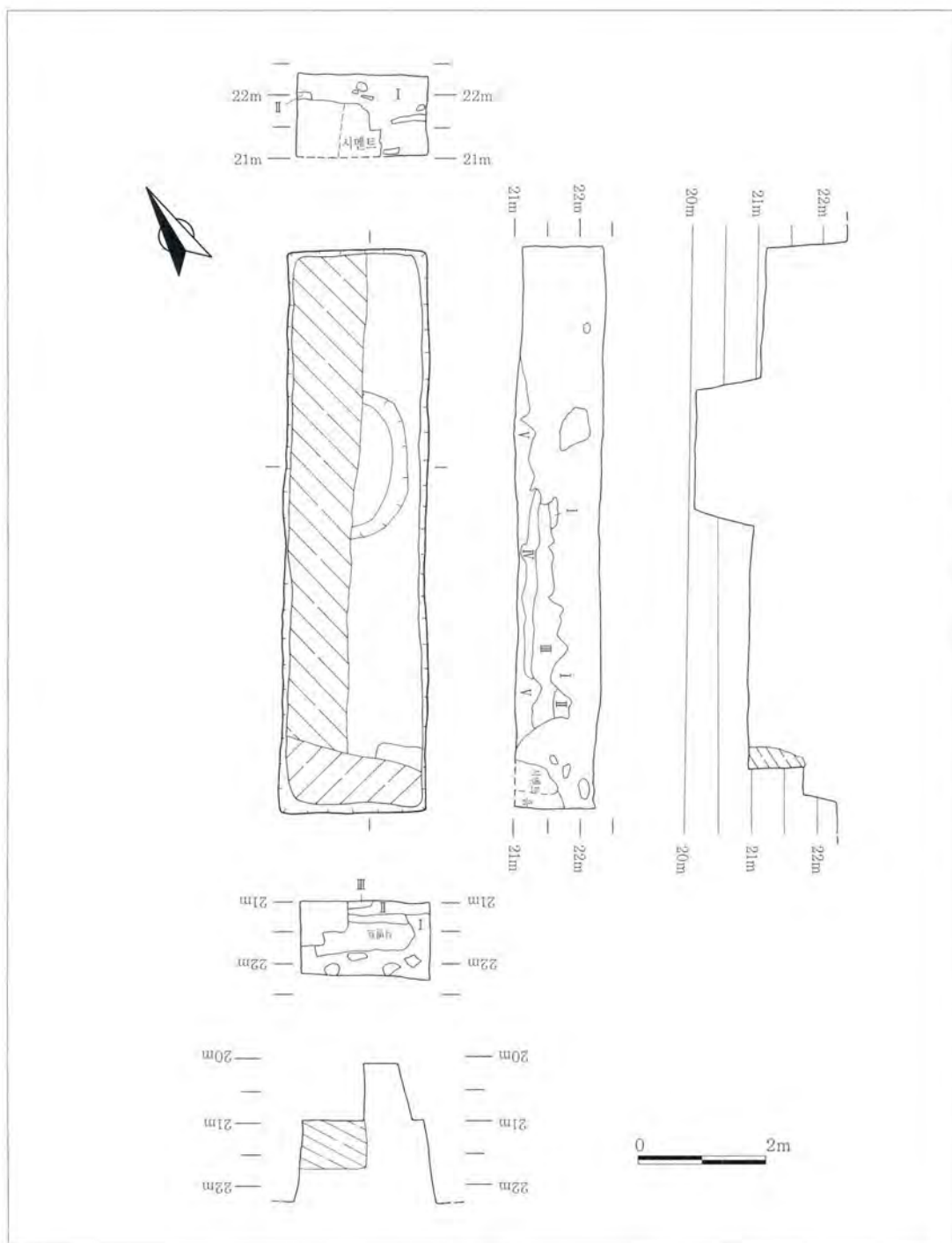
도면 9) N1W1 트렌치 평면도 및 토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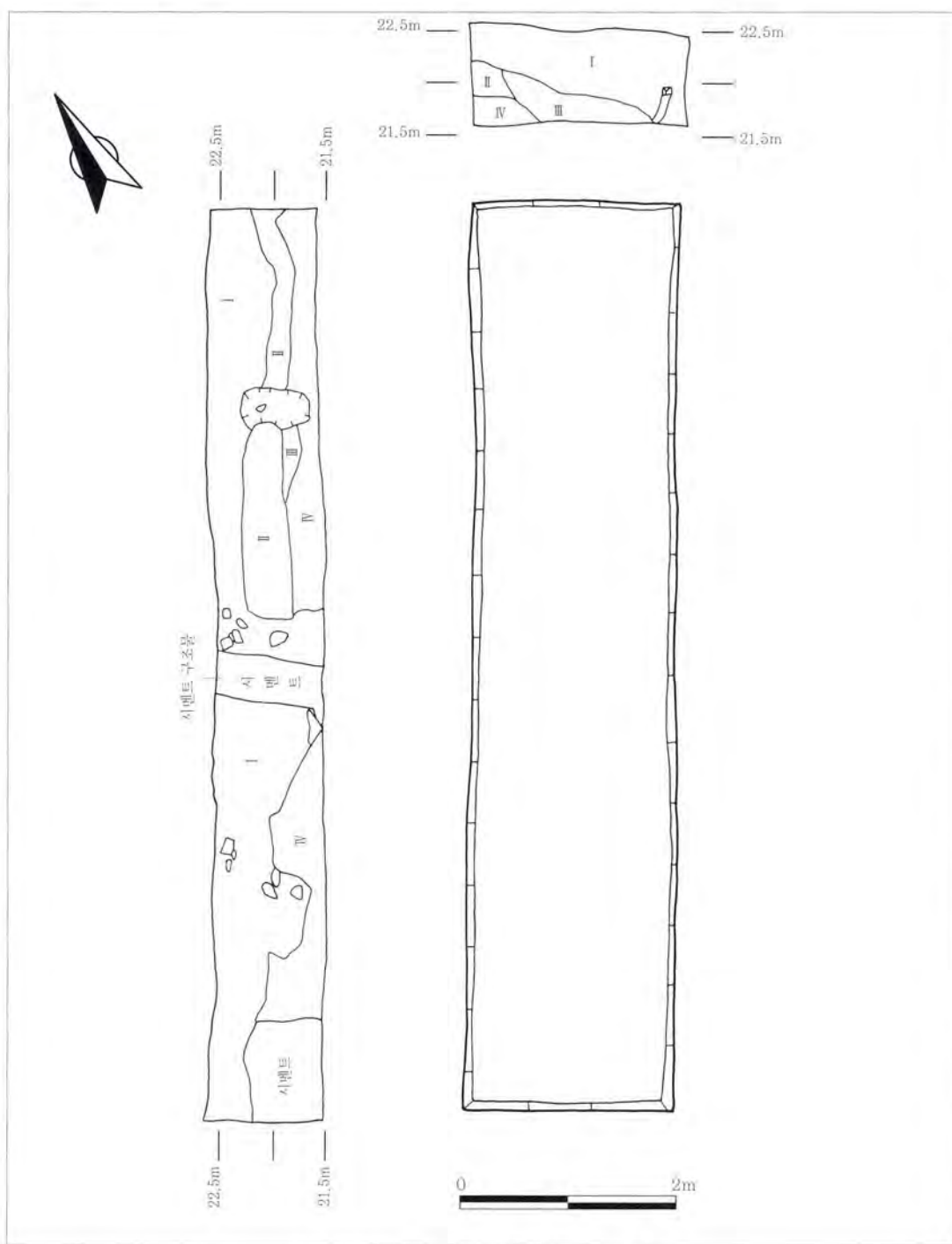
도면 10) N2W1 트렌치 평면도 및 토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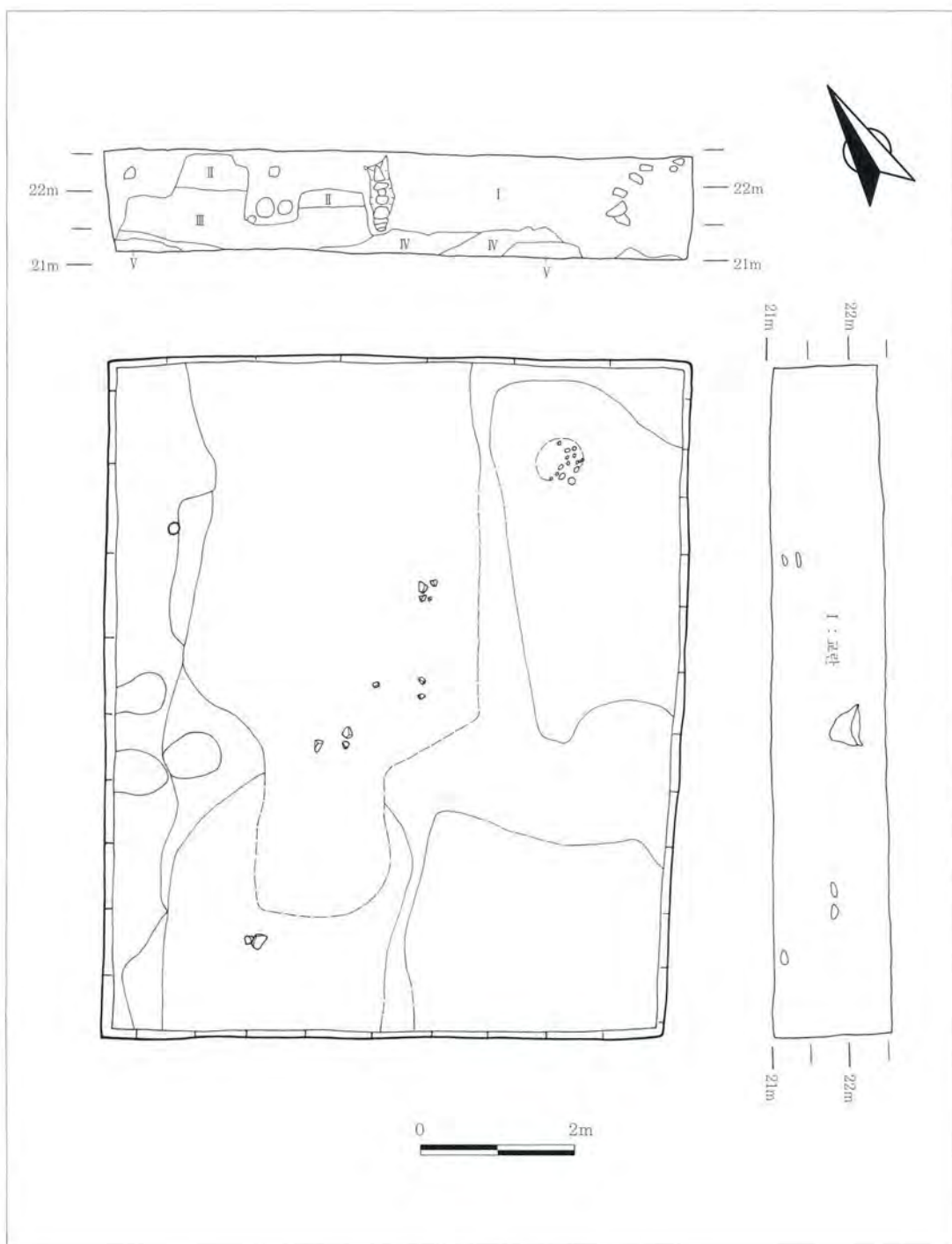


도면 11) N3W1 트렌치 평·단면도 및 토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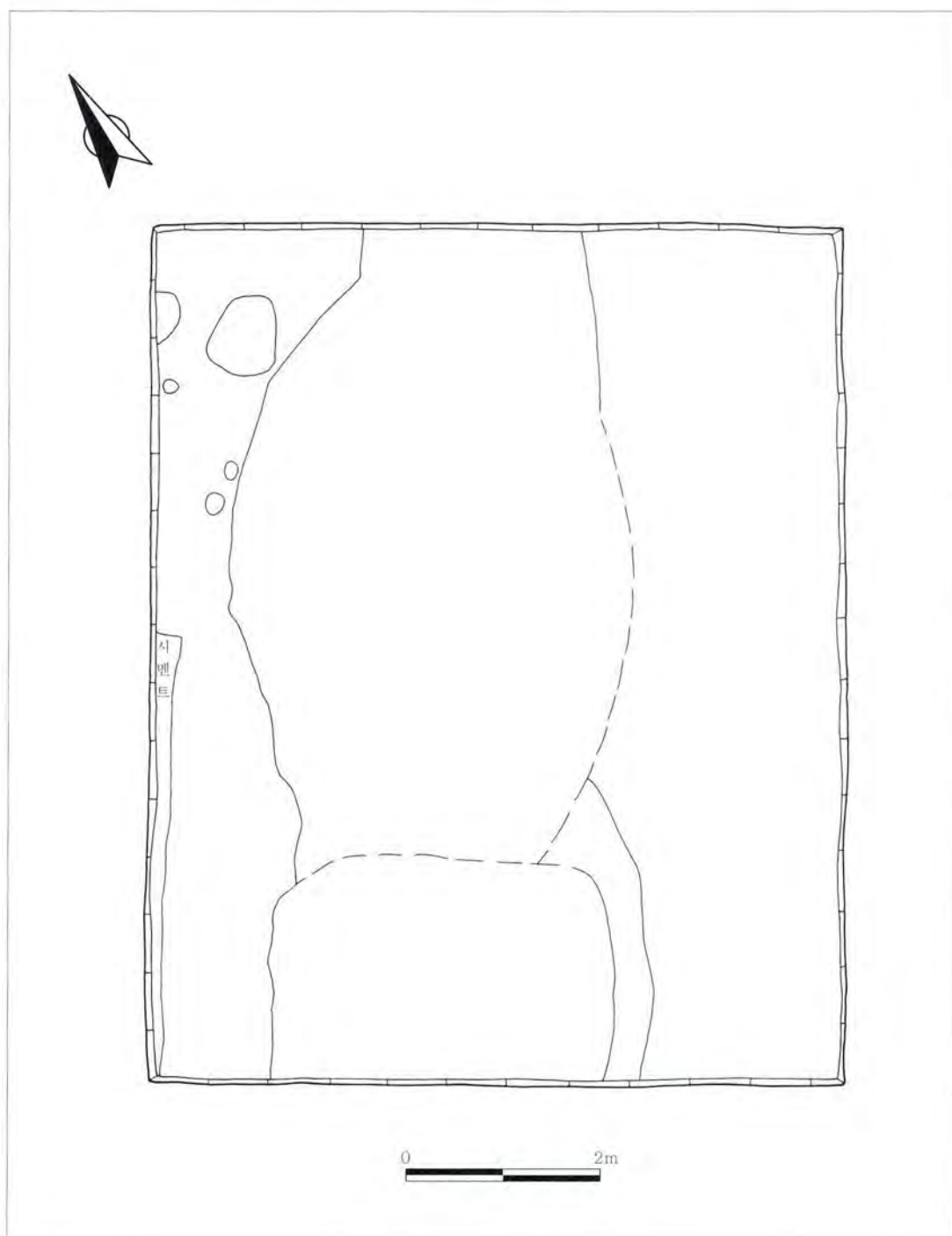


도면 12) N4W1 트렌치 평·단면도 및 토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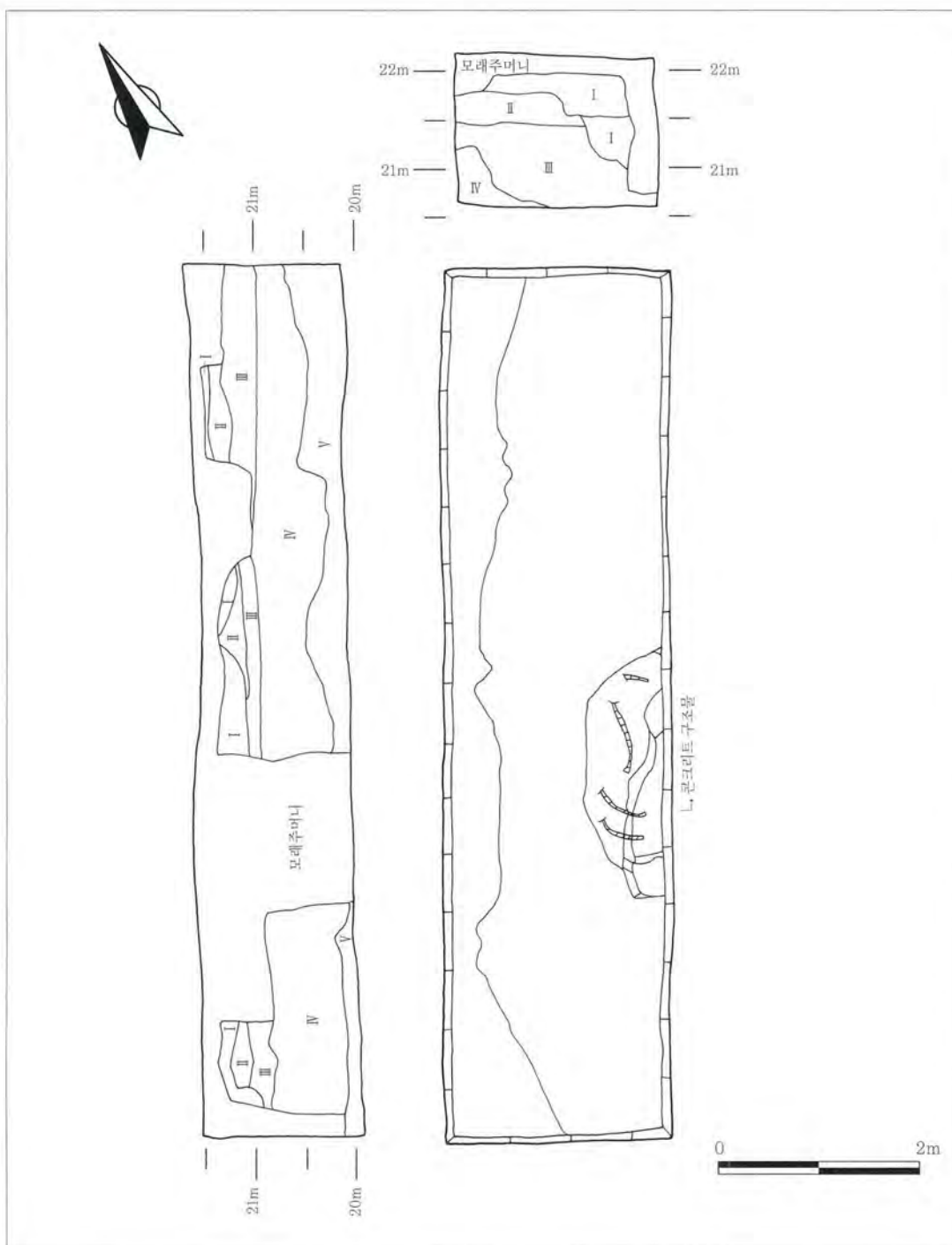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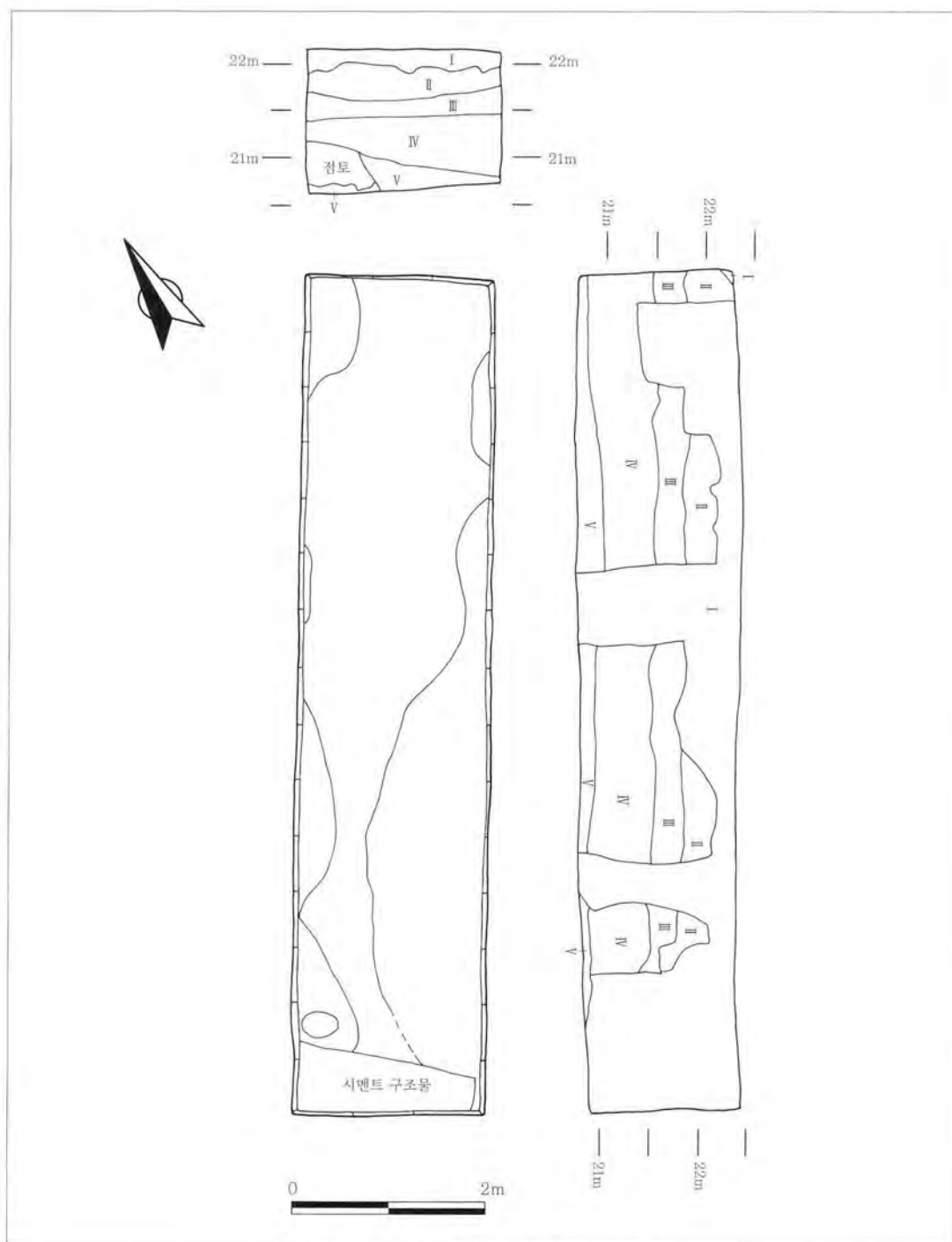
도면 14) N1E1 트렌치 평면도 및 토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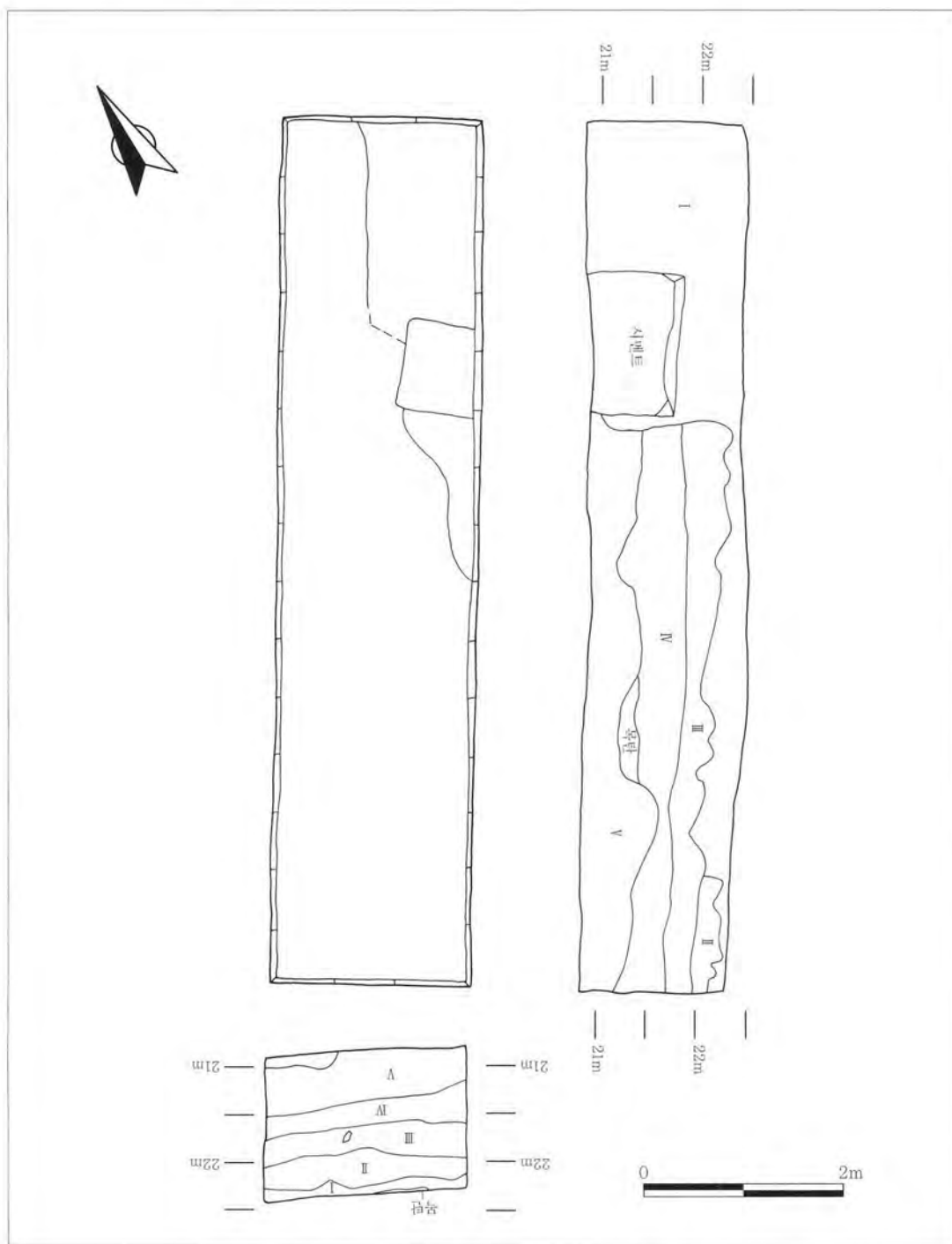
도면 15) N2E1 트렌치 평면도



도면 16) N3E1 트렌치 평면도 및 토층도



도면 17) N4E1 트렌치 평면도 및 토층도



도면 18) N5E1 트렌치 평면도 및 토층도

3) 遺物

(1) NOW1 트렌치 출토 토기류

도면19-①(사진37-①)은 황갈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는데, 대부분 마모되었다. 태토에는 석립과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0.8cm

도면19-②(사진37-②)는 속심이 적갈색을 띠는 흑회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구연은 긴 경부에서 거의 수평하게 밖으로 외반되었다. 구연안과 바깥쪽에 넓은 홈을 돌렸으며 구연단은 편평하게 조성하였다. 내외면에서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 사립이 다량 들어있으나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최대두께 0.7cm

도면19-③(사진37-③)은 회색 경질토기 호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내만하는 동체에서 거의 직립해 있다. 구연단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석립과 사립이 포함되었는데, 소성상태는 좋은 편이다.

최대두께 0.3cm

도면19-④(사진37-④)는 속심이 황갈색을 띠는 회색 연질토기 호의 구연부편이다. 내만하는 동체에서 직립하였으며 구연단은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내외면은 마모되어 자세한 관찰이 힘들다. 태토에는 사립이 다량 들어있다.

최대두께 0.7cm

도면19-⑤(사진37-⑤)는 적갈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한번 살짝 꺾여 외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다. 구연단 끝에 홈을 두어 단이 지게 조성하였다. 태토에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1.2cm

도면19-⑥(사진37-⑥)은 속심이 황갈색을 띠는 회색 연질토기편이다. 경부가 일부 남아 있다. 외면에는 선문이 타날되었으며 경부와 경부와 가까운 부분에는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함유되었다.

최대두께 0.3cm

도면19-⑦(사진38-②)은 회색을 띠는 연질토기편이다. 경부가 일부 남아있다. 외면에는 0.3×0.3 cm 격자문이 시문되었다. 형태와 두께로 보아 비교적 큰 기종의 편으로 추정된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다량 들어있다.

최대두께 1.0cm

도면20-①(사진37-⑦)은 회청색 경질토기편이다. 내외면에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사립이 혼입되었으며 단면상으로 기포가 관찰된다.

최대두께 0.6cm

도면20-②(사진38-④)는 회색 연질토기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평행선문이 타날되었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들어있다.

최대두께 0.6cm

도면20-③(사진38-①)은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선문이 중복 시문되었는데, 마모되어 희미하다. 내면에는 지두압흔이 드러난다. 태토에는 사립이 다량 함유되었다.

최대두께 1.0cm

도면20-④(사진38-⑤)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0.25×0.25 cm 정도의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소량 들어있다.

최대두께 0.6cm

도면20-⑤(사진38-③)는 적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는데, 마모되거나 박락되어 희미하다. 태토에는 굵고 가는 사립이 다량 들어있다.

최대두께 0.8cm

도면20-⑥(사진38-⑥)은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물손질로 인해 희미하게 관찰된다. 태토에는 사립이 다량 포함되었으나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최대두께 0.8cm

도면20-⑦(사진38-⑦)은 회백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는데 마모되어 희미하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0.5cm

도면20-⑧(사진38-⑧)은 회갈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0.35 \times 0.35\text{cm}$ 정도의 격자문이 시문되었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소량 함유되었으나 치밀하다.

최대두께 0.8cm

도면20-⑨(사진38-⑨)는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는데 마모가 심해 희미하다. 내외면이 마모되어 사립이 다량 드러나 있다.

최대두께 1.3cm

도면21-①(사진39-①)은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는데 마모되어 희미하게 관찰된다. 태토에는 석립과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1.7cm

도면21-②(사진39-②)는 회청색 경질토기편이다. 외면에 격자문이 타날된 동체부편으로 색조, 두께, 태토 등으로 보아 도면21-①과 같은 편으로 여겨진다.

최대두께 1.7cm

도면21-③(사진39-③)은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전체적인 형태로 보아 도면12-①, 12-②와 같은 개체의 잔편으로 추정된다. 크기로 보아 대형기종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최대두께 1.7cm

도면21-④(사진39-④)는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횡선문이 시문되었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들어있다.

최대두께 0.8cm

도면21-⑤(사진39-⑤)는 흑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0.15×0.3cm 정도의 격자문이 비교적 정연하게 타날되었다.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태토에는 사립이 다량 함유되었다.

최대두께 1.3cm

도면21-⑥(사진39-⑥)은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는데 대부분 물손질을 가해 정면하였다. 정면한 면 위에 명문이 음각되었는데, 정확한 해석이 어렵지만 ‘卍’자와 같이 보인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들어있으며 정선된 편이다.

최대두께 0.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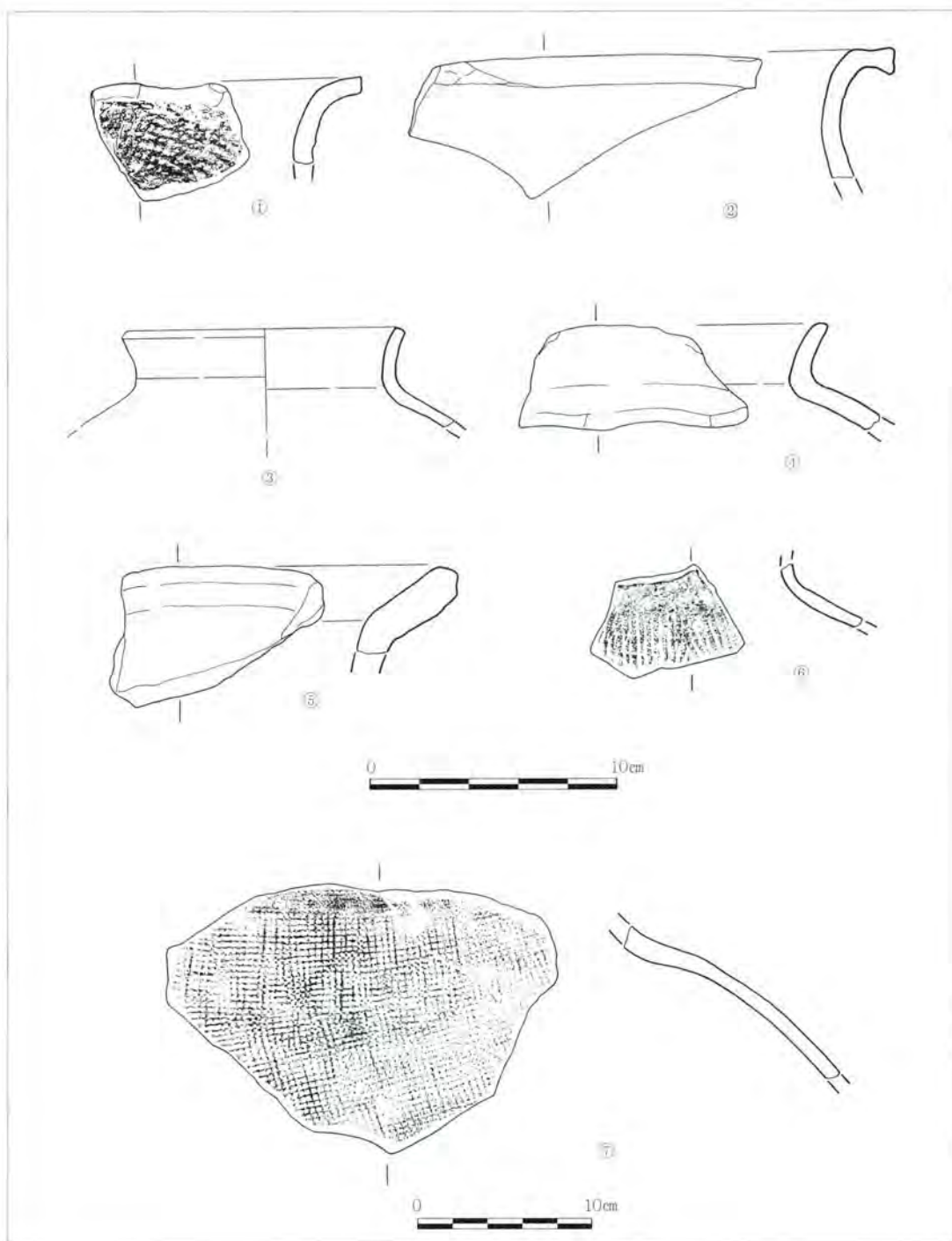
(2) N1W1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도면22-①(사진40-①)은 회청색 경질토기편이다. 경부가 일부 남아있으며 형태는 내만하는 동체에서 직립한 것으로 여겨진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는데 물손질로 정면하여 일부에서만 관찰된다. 석립과 사립이 다량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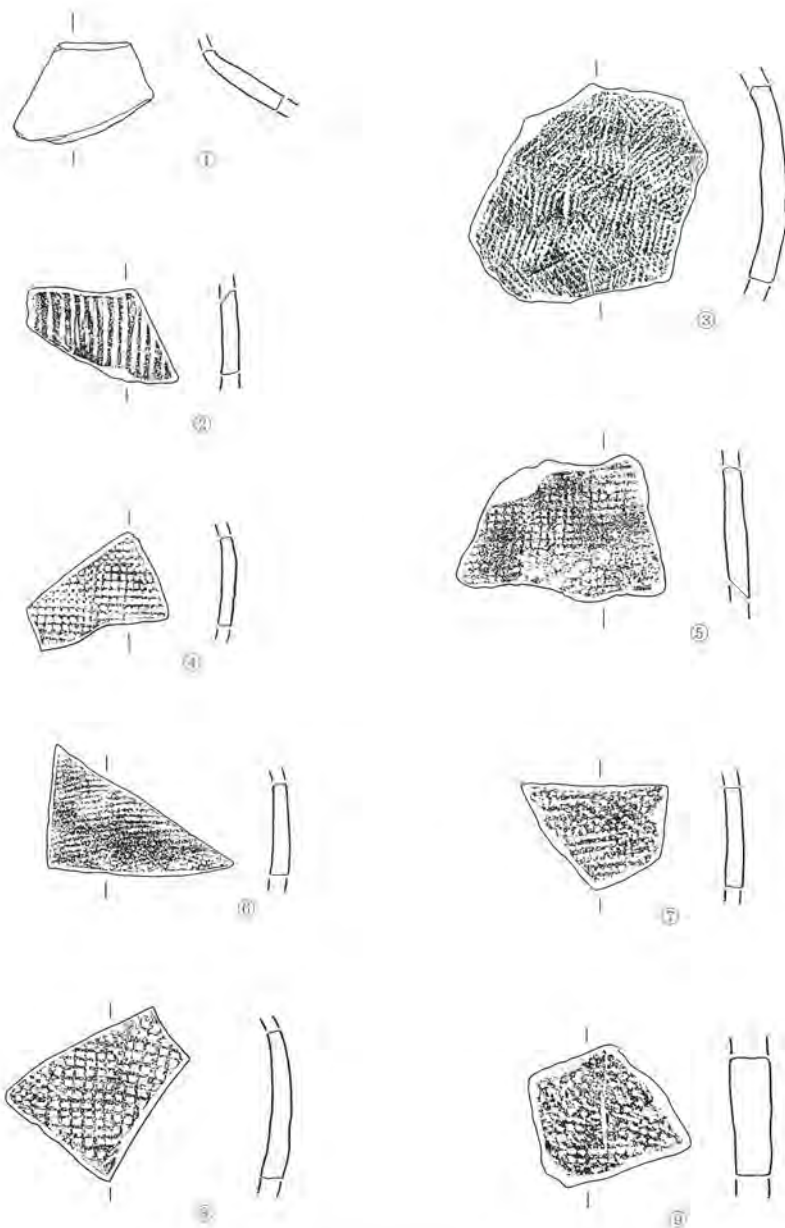
최대두께 1.4cm

도면22-②(사진40-②)는 속심이 흑회색을 띠는 회백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선문을 사선방향으로 엇갈려 시문하였는데 마모되어 희미하다. 석립과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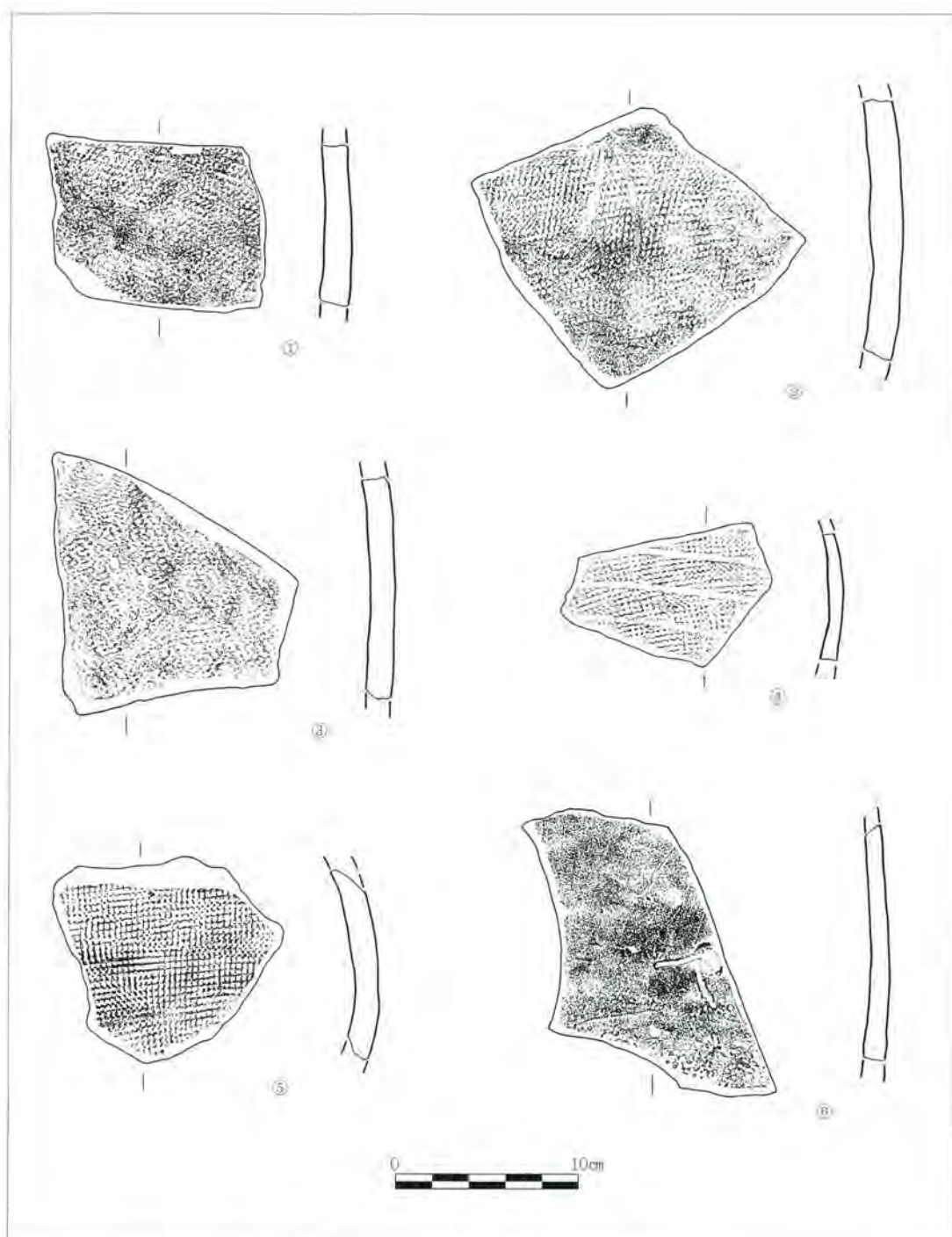
최대두께 0.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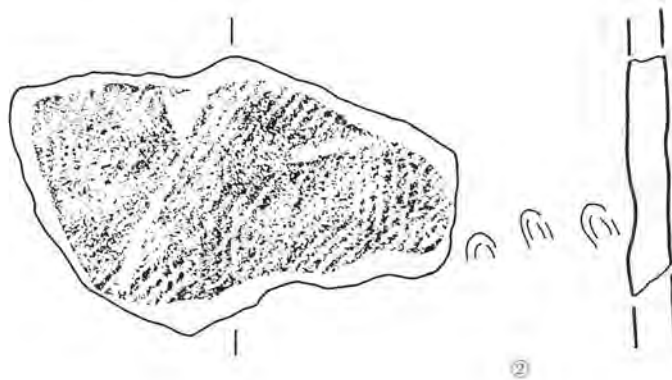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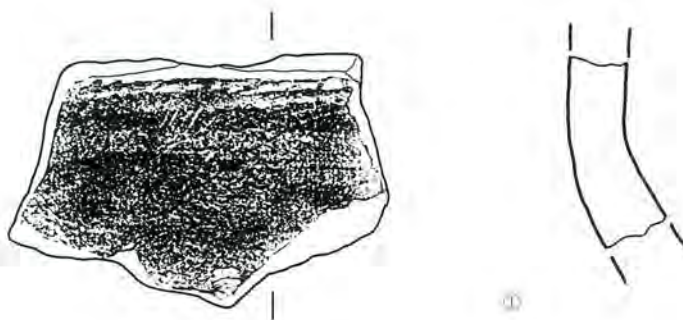
도면 19) NOW1 트렌치 출토 토기류 1



도면 20) NOW1 트렌치 출토 토기류 2



도면 21) NOW1 트랜치 출토 토기류 3



도면 22) N1W1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3) N2W1 트렌치 출토 토기류

① 흑회색 사질층

도면23-①(사진41-①)은 회청색 경질토기 호의 구연부편이다. 경부는 내만하는 동체에 서 직립하였으며 구연은 살짝 외반되었다. 구연단은 편평하게 처리한 후 흠을 돌렸으며 구연 안쪽에도 흠을 돌려 굴곡졌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동체최대두께 0.7cm

도면23-②(사진41-②)는 회색 연질토기 호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경부에서 부드럽게 외반되었고 구연단에 흠을 돌렸다. 내면에는 경부와 동체의 경계에 점토이음흔적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포함되었다.

동체최대두께 0.5cm

도면23-③(사진41-③)은 회색 연질토기편이다. 반듯한 면이 남아있는 것으로보아 구연 부편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다. 내외면에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깨진 면으로 가는 사립이 관찰된다.

동체최대두께 0.5cm

도면23-④(사진41-④)는 회색 경질토기의 경부편이다. 동체부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으며 경부에는 물손질이 관찰된다. 내면에도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들어 있다.

동체최대두께 0.8cm

도면23-⑤(사진41-⑤)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에는 희미하게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혼입되었다.

동체최대두께 0.7cm

도면23-⑥(사진41-⑥)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태토에는 사립이 함유되었다.

동체최대두께 0.5cm

도면23-⑦(사진41-⑦)은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다량 포함되었다.

동체최대두께 0.7cm

도면23-⑧(사진41-⑧)은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다. 태토에는 굵고 가는 사립이 다량 함유되었다.

동체최대두께 cm

도면23-⑨(사진41-⑨)는 회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는데, 물손질을 가해 부분적으로 문양이 희미하다. 태토에는 굵고 가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동체최대두께 0.6cm

도면23-⑩(사진41-⑩)은 흑회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으나 물손질을 가해 일부분에서 관찰된다.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남아있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소량 포함되었다.

동체최대두께 0.7cm

도면23-⑪(사진41-⑪)은 황갈색 연질토기의 우각형 파수부편이다. 동체에 붙착되었다가 따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체에서 손을 사용해 만든 흔적이 드러나며 끝을 뭉뚝하게 조성하였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들어있다.

길이 6.5cm, 너비 3.1cm

② 암갈색 사질층

도면24-①(사진42-①)은 회색을 띠는 경질토기편이다. 경부가 일부남아있으며 내만하는 동체에서 직립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동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고 경부와 가까운 부분에는 물손질을 가해 정면하였다. 내면에는 물손질을 가하였다. 태토에는 굵고 가는 사립이 다량 포함되었다.

최대두께 0.6cm

도면24-②(사진42-③)는 적갈색을 띠는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이 대부분 마모되었거나 박락되었는데 일부에서 희미하게 격자문을 얇게 타날한 흔적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0.9cm

도면24-③(사진42-②)은 회색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마모되어 희미하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들어있다.

동체최대두께 0.8cm

(4) N3W1 트렌치 출토 토기류

① 교란층

도면25-⑦(사진43-①)은 회갈색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평행선문+횡선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에는 희미한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함유되었다.

동체최대두께 0.5cm

② 원형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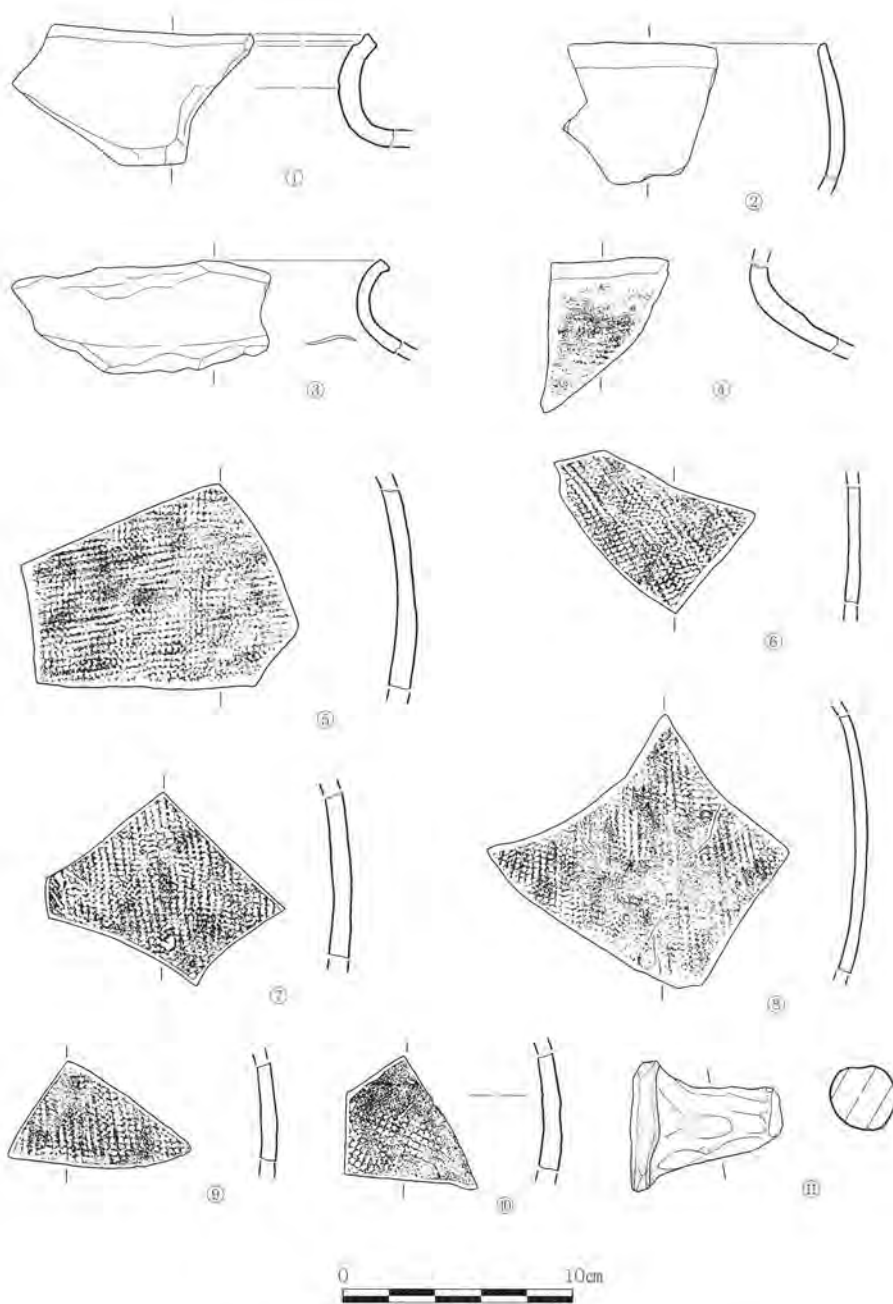
도면25-⑧(사진43-②)은 속심이 황갈색을 띠는 회색토기의 바닥편이다. 내면에는 회전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들어있다.

바닥최대두께 0.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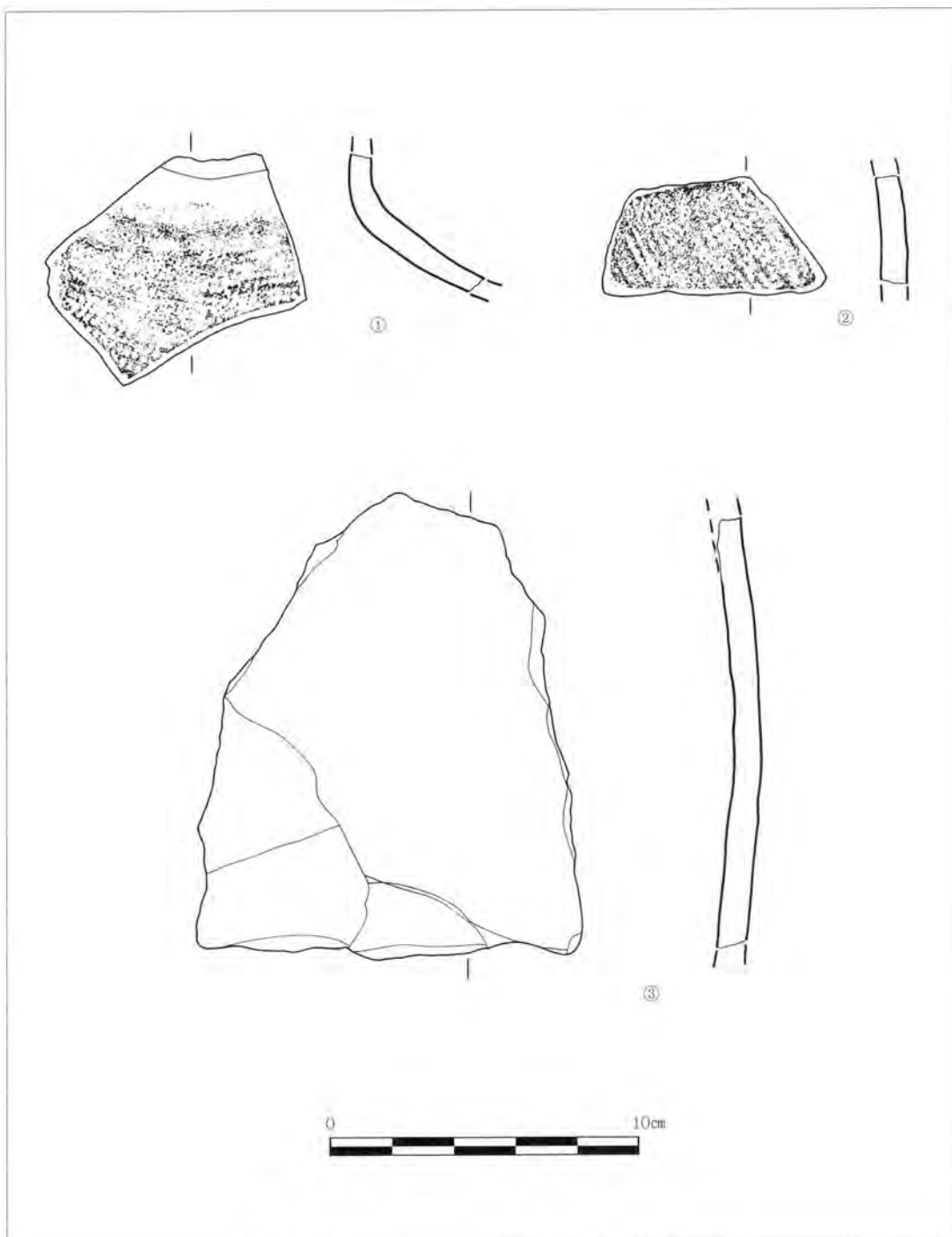
③ 장방형유구

도면25-①(사진44-①)은 속심이 적갈색을 띠는 흑회색 경질토기편이다. 경부가 3.5cm정도 남아있는데, 곡선으로 내만하는 동체에서 거의 직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체에는 0.5×0.4cm 정도의 격자문이 비교적 정연하게 타날되었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나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최대두께 0.7cm



도면 23) N2W1 트렌치 흑회색 사질층 출토 토기류



도면 24) N2W1 트렌치 암갈색 사질층 출토 토기류

도면25-②(사진44-③)는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내면에는 물손질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다량 포함되었다.

최대두께 0.9cm

도면25-③(사진44-②)은 회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단명형태로 보아 바닥과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외면에는 평행선문이 시문되었는데, 종방향과 사선방향으로 타날되어 일부 겹치기도 하였다. 내면에는 지두압흔과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0.5cm

도면25-④(사진44-④)는 적갈색을 띠는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0.5×0.4 cm 정도의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들어있다.

최대두께 0.6cm

도면25-⑤(사진44-⑤)는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횡선문이 타날되었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혼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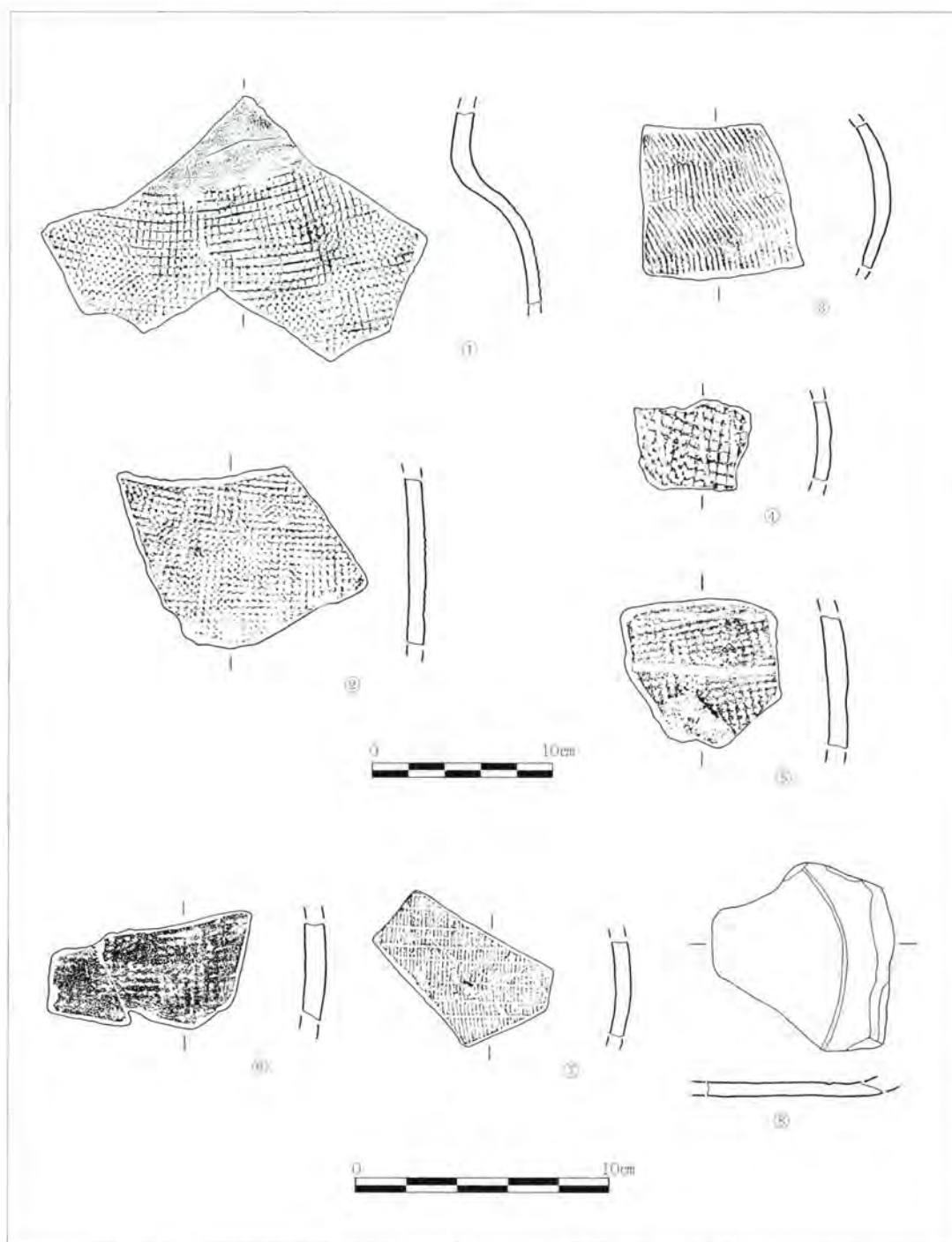
최대두께 0.8cm

도면25-⑥(사진44-⑥)은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을 타날한 후 물손질을 가하였다. 태토는 가는 사립이 함유되었다.

최대두께 0.8cm

(5) N4W1 트렌치 원형수혈유구 출토 토기류

도면26-①(사진45)은 황갈색 연질토기 호의 구연부편이다. 구연과 동체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결실되었다. 경부는 3cm 정도이며 내만하는 동체에서 직립하였다. 구연은 바깥쪽을 향해 수평으로 짧게 바라졌고 구연단에는 넓은 홈을 둘렀다. 동체외면에는 사선문+횡선문이 타날되었다. 경부와 가까운 부분과 경부에는 물손질로 정면한 흔적이 드러난다. 내면에는 동체와 경부의 경계에 점토이음흔적이 관찰되는데 이를 물손질과 도구로 다듬은 흔적



도면 25) N3W1 트렌치 출토 토기류 (장방형유구①~⑥, 교란층⑦, 원형유구⑧)

이 남아있다. 태토에는 미세하고 가는 사립이 혼입되었으나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추정구경 16.4cm, 동체최대두께 0.4cm

도면26-②(사진46-①)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으며 내면에는 점토이음흔적이 관찰된다. 전체적인 형태로 보아 도면26-③·④와 같은 편으로 추정되나 서로 붙지는 않는다.

동체최대두께 1.3cm

도면26-③(사진46-②)은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두께와 형태로 보아 대형용기인 옹의 편으로 추정된다. 외면에는 0.3×0.3 cm 정도의 격자문을 중복시문하였다. 내면에는 끝이 2.5cm 정도되는 도구로 회전하며 정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점토이음흔적도 확인된다. 태토에는 석립과 사립이 포함되었으나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동체최대두께 1.3cm

도면26-④(사진46-③)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으며 내면에는 점토이음흔적이 관찰된다. 태토나 문양의 시문, 형태 등으로 보아 도면26-③와 같은 편으로 추정되나, 서로 부착되지는 않는다.

동체최대두께 1.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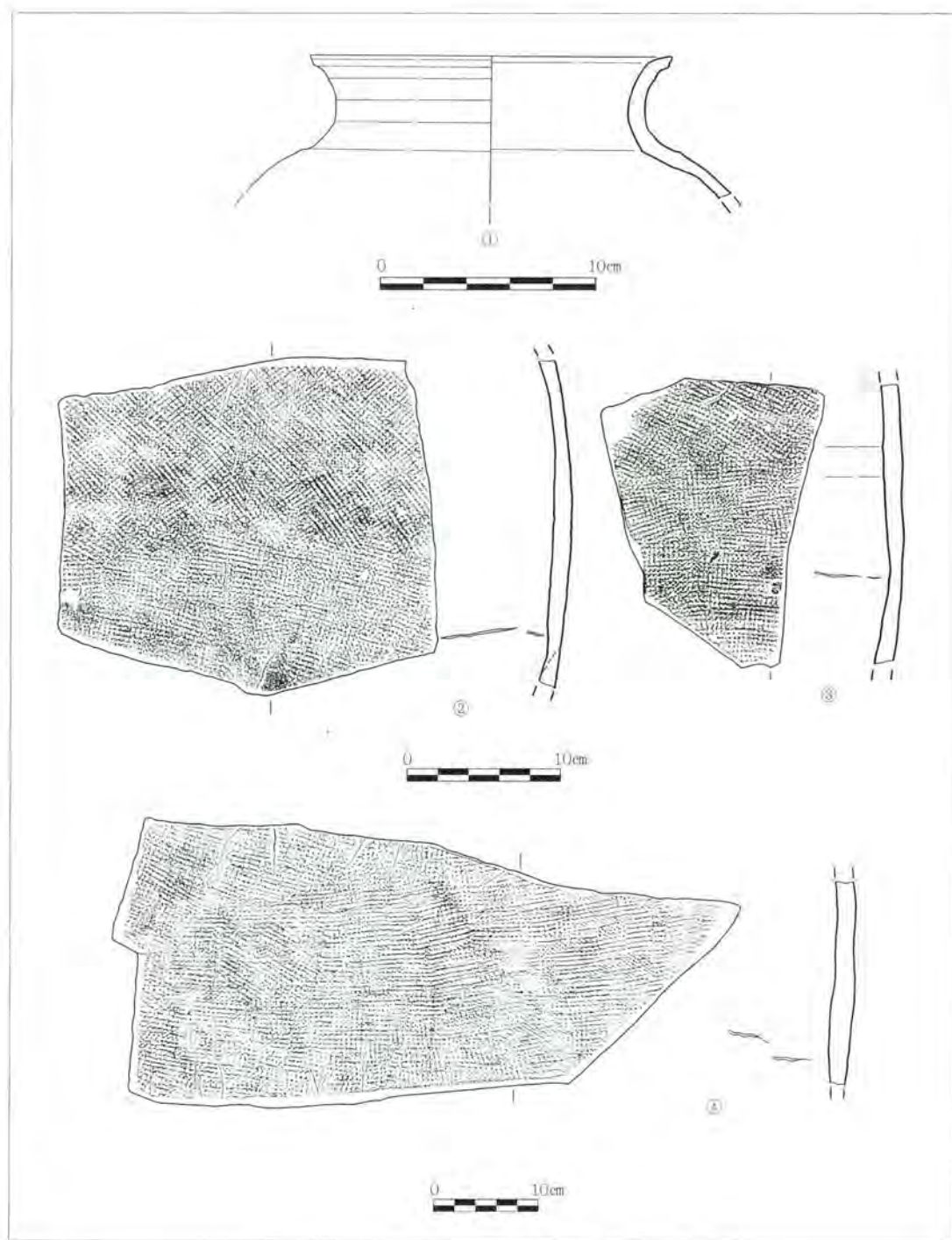
(6) N1E1 트렌치 출토 토기류

① 교란층

도면27-①(사진47-①)은 회색을 띠는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형태로 보아 대형 옹의 편으로 여겨진다. 구연은 경부에서 짧게 수평하게 외반되었으며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구연 안쪽에는 넓은 홈을 두었다.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는 굵고 가는 석립과 사립이 다량 포함되었으나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추정구경 54.2cm, 두께 1.4cm

도면27-②(사진47-②)는 회청색 경질토기 옹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긴 경부에서 수평하



도면 26) N4W1 트렌치 원형수혈유구 출토 토기류

게 바라졌으며 안에는 넓은 홈을 돌렸다. 구연단은 비교적 편평하게 조성하였다. 내외면은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태토에는 석립과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는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동체최대두께 1.0cm

도면27-⑤(사진47-③)는 회색 연질토기 호의 구연부편이다. 동체의 일부와 경부가 잔존해 있는데, 경부는 내만하는 동체에서 직립하였다. 구연은 외반되었으며 구순은 편평하다. 내면의 태토이음 흔적으로 보아 경부를 따로 만들어 부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외면에서 회전물손질 흔적이 관찰된다. 태토는 가는 사립이 포함되었다.

추정구경 13.2cm, 동체최대두께 0.4cm

도면27-③(사진47-④)은 회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경부는 내만하는 동체에서 직립한 것으로 보이며 구연은 외반되었다. 내외면에서 물손질흔이 관찰되나 희미하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들어있다.

동체최대두께 0.6cm

도면27-④(사진47-⑤)는 회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경부와 구연의 일부가 남아있는데, 경부는 직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연은 밖으로 짧게 바라져 있으며 구연단은 편평하게 조성하였다. 내외면은 마모되어 자세한 관찰이 힘들다. 태토에는 사립이 소량 포함되었다.

최대두께 0.6cm

도면27-⑥(사진47-⑥)은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형태로 보아 경부와 가까운 부분으로 추정된다. 외면에는 사선문이 타날되었으며 그 위로 횡선이 돌아가고 있다. 내외면에서 물손질로 정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석립과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0.7cm

도면27-⑦(사진47-⑦)은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었으며 내면에는 손으로 누른 흔적이 관찰된다. 태토에 석립과 사립이 다량 함유되어 거친 느낌이다.

최대두께 0.7cm

도면27-⑧(사진47-⑧)은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으로 형태로 보아 저부에 가까운 편으로 추정된다. 외면에는 선문이 타날되었으며 표면이 부분적으로 박락되었다.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포함되었다.

최대두께 0.8cm

도면28-①(사진48-①)은 외면이, 황갈색과 흑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선문이 중복타날되었다. 아랫면에 흑색을 띠고 있는 것은 불에 닿은 흔적이 추정된다. 내면에는 유기질이 흡착된 것이 관찰된다. 점토이음흔적과 중 횡방향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확인된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0.9cm

도면28-②(사진48-②)는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마모되어 희미하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들어있다.

최대두께 1.1cm

도면28-③(사진48-③)은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함유되었다.

최대두께 0.7cm

도면28-④(사진48-④)는 황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시문되었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다량 포함되었다.

최대두께 0.9cm

도면28-⑤(사진48-⑤)는 속심이 황갈색을 띠는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선문이 중복 시문된 듯 보이며 횡선이 한줄 돌아가고 있으나 잔존하는 편이 작아 자세한 문양을 알 수 없다.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들어있다.

최대두께 0.7cm

도면28-⑥(사진48-⑥)은 속심이 적갈색을 띠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

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다량 들어있다.

최대두께 0.7cm

도면28-⑦(사진48-⑦)은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을 시문한 후 물손질을 가해 일부에서만 관찰된다. 태토에는 사립이 포함되었다.

최대두께 0.5cm

도면28-⑧(사진48-⑧)은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은 마모되어 자세한 관찰이 힘들며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0.8cm

도면28-⑨(사진48-⑨)는 회색 연질토기의 바닥편이다. 안바닥에 회전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들어있다.

바닥최대두께 0.8cm

② 유구내부 퇴적층

도면29-①(사진49-①)은 적갈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외반된 것으로 여겨지며 구연단은 비교적 둥글게 처리하였다. 동체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고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굵고 가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0.6cm

도면29-②(사진49-②)는 내면에 흑회색을 띠는 회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수평하게 꺾여 외반하였으며 구연단은 편평하게 조성하였다. 구연안쪽에는 넓은 홈이 돌아간다.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굵고 가는 사립이 다량 포함되어 거친 느낌이다.

최대두께 0.8cm

도면29-③(사진49-③)은 회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내만하는 동체에서 직립하였으며 구연은 거의 수평하게 외반되었다. 구연단에는 횡선을 한줄 돌려 단면 형태가

‘3’ 자형이다. 내외면에는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들어있다.

최대두께 0.4cm

도면29-④(사진49-④)는 회색 연질토기의 경부편이다. 외면에는 선문이 타날되었으며 경부는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내외면이 마모로 인해 사립이 다수 노출되어있어 사립이 다량 혼입된 것을 알 수 있다.

최대두께 0.6cm

도면29-⑤(사진49-⑤)는 회청색 경질토기편이다. 경부가 일부남았으나 자세한 형태는 알기 힘들다. 내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사립이 함유되었으나 소성상태는 좋은 편이다.

최대두께 0.3cm

도면29-⑥(사진49-⑦)은 적갈색 연질토기편이다. 경부가 일부 잔존해 있으며 외면에는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다. 내외면에 마모가 심해 석립과 사립이 많이 드러나 있다.

최대두께 0.9cm

도면29-⑦(사진49-⑥)은 속심이 적갈색을 띠는 회청색 경질토기편이다. 경부가 일부 있으나 잔존하는 면이 적어 형태는 알 수 없다. 내외면에서는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굵고 가는 사립이 혼입되었으나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최대두께 0.8cm

도면29-⑧(사진49-⑧)은 황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는데 대부분 마모되어 희미하다. 태토에는 석립과 사립이 다량 포함되어 거칠다.

최대두께 0.6cm

도면30-①(사진50-①)은 속심이 적갈색을 띠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평행선문+횡선문과 격자문이 시문된 것으로 보아 저부와 가까운 편으로 추정된다. 내면에는 여러방향의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들어있다.

최대두께 0.7cm

도면30-②(사진50-②)는 황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장방형의 격자문이 타날된 것으로 여겨진다. 태토에는 석립과 사립이 다량 들어있다.

최대두께 0.9cm

도면30-③(사진50-③)은 회백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함유되었다.

최대두께 0.7cm

도면30-④(사진50-⑤)는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두께로 보아 대형기종의 편으로 추정된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마모되어 희미하다. 태토에는 굵고 가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1.8cm

도면30-⑤(사진50-④)는 회백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중복타날되었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포함되었다.

최대두께 0.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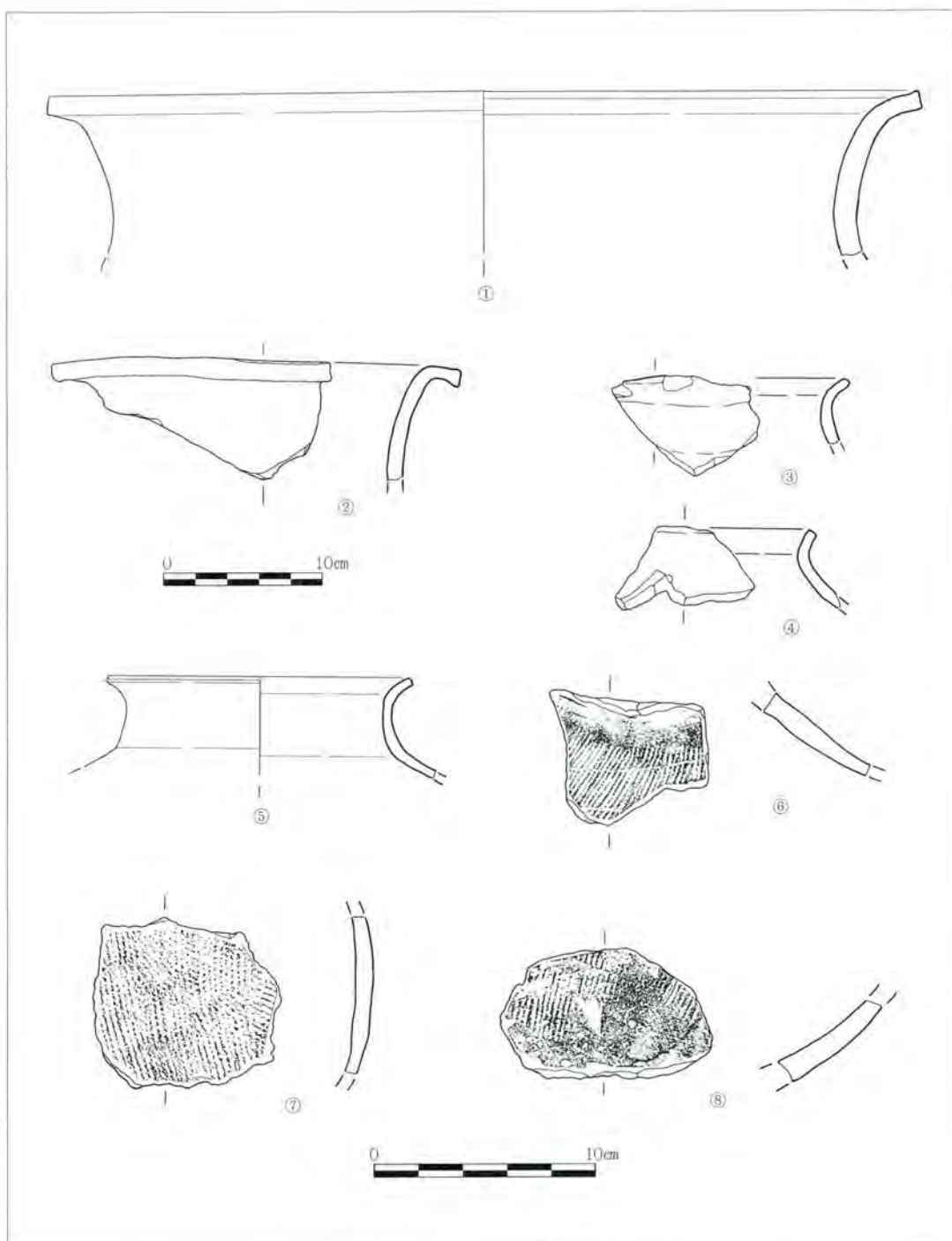
도면30-⑥(사진50-⑥)은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단면상으로 살짝 꺾여 있어 저부와 가까운 편으로 여겨진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들어있다.

최대두께 0.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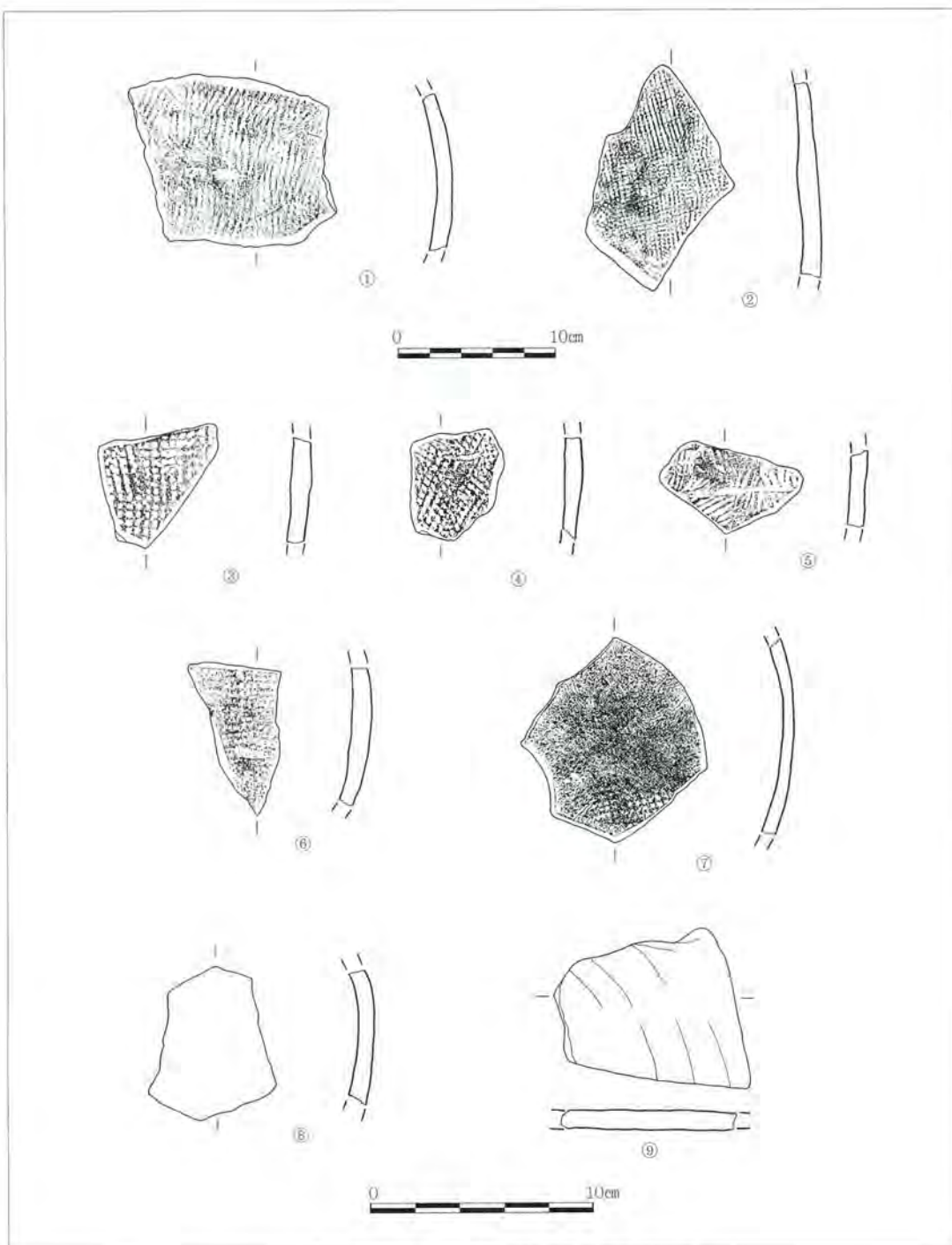
도면30-⑦(사진50-⑦)은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내외면은 마모되고 박락되어 표면이 고르지 못하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0.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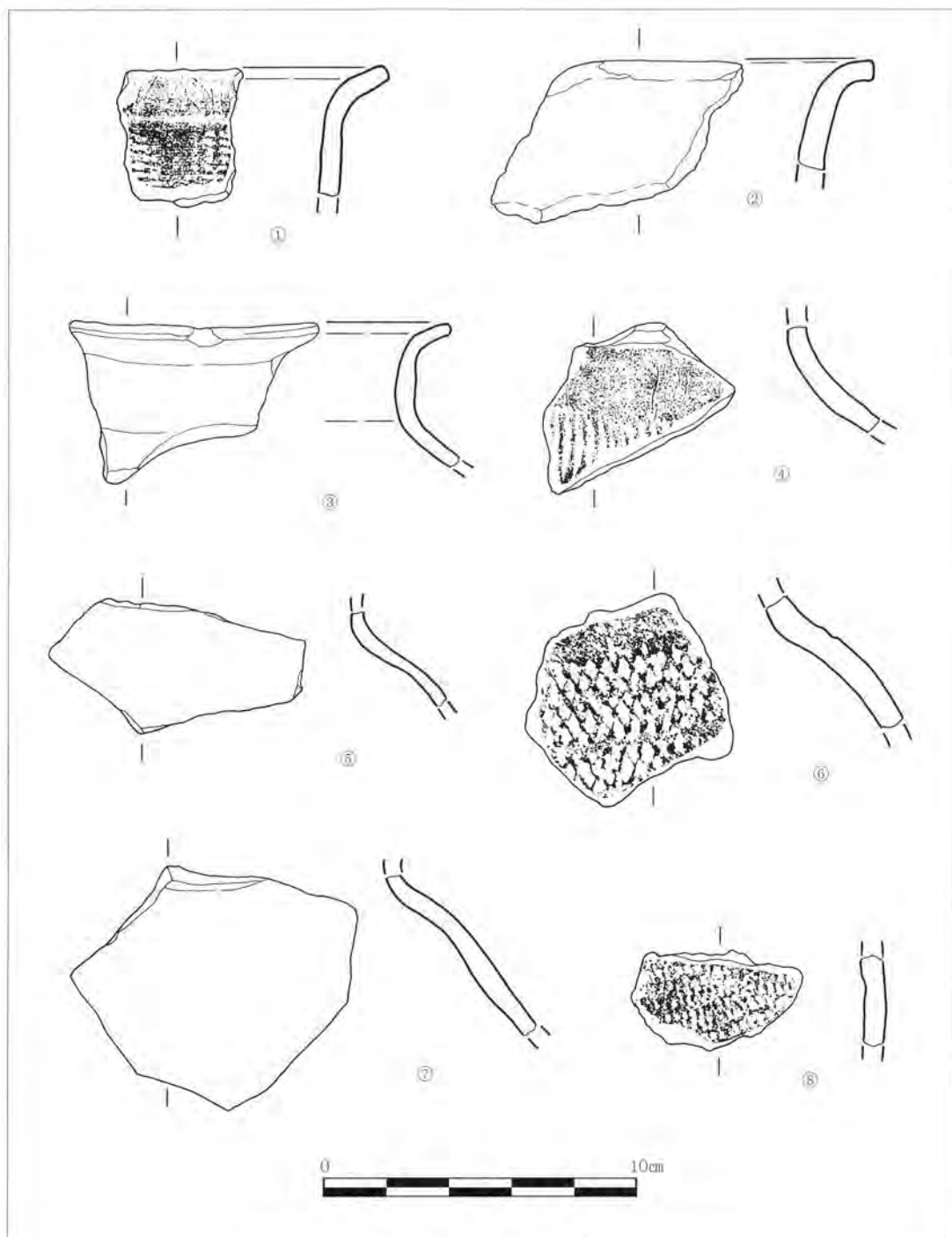
도면30-⑧(사진50-⑧)은 내면이 황갈색을 띠는 흑회색 연질토기의 저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으나 마모되어 일부분에서만 관찰된다. 태토에는 석립과 사립이 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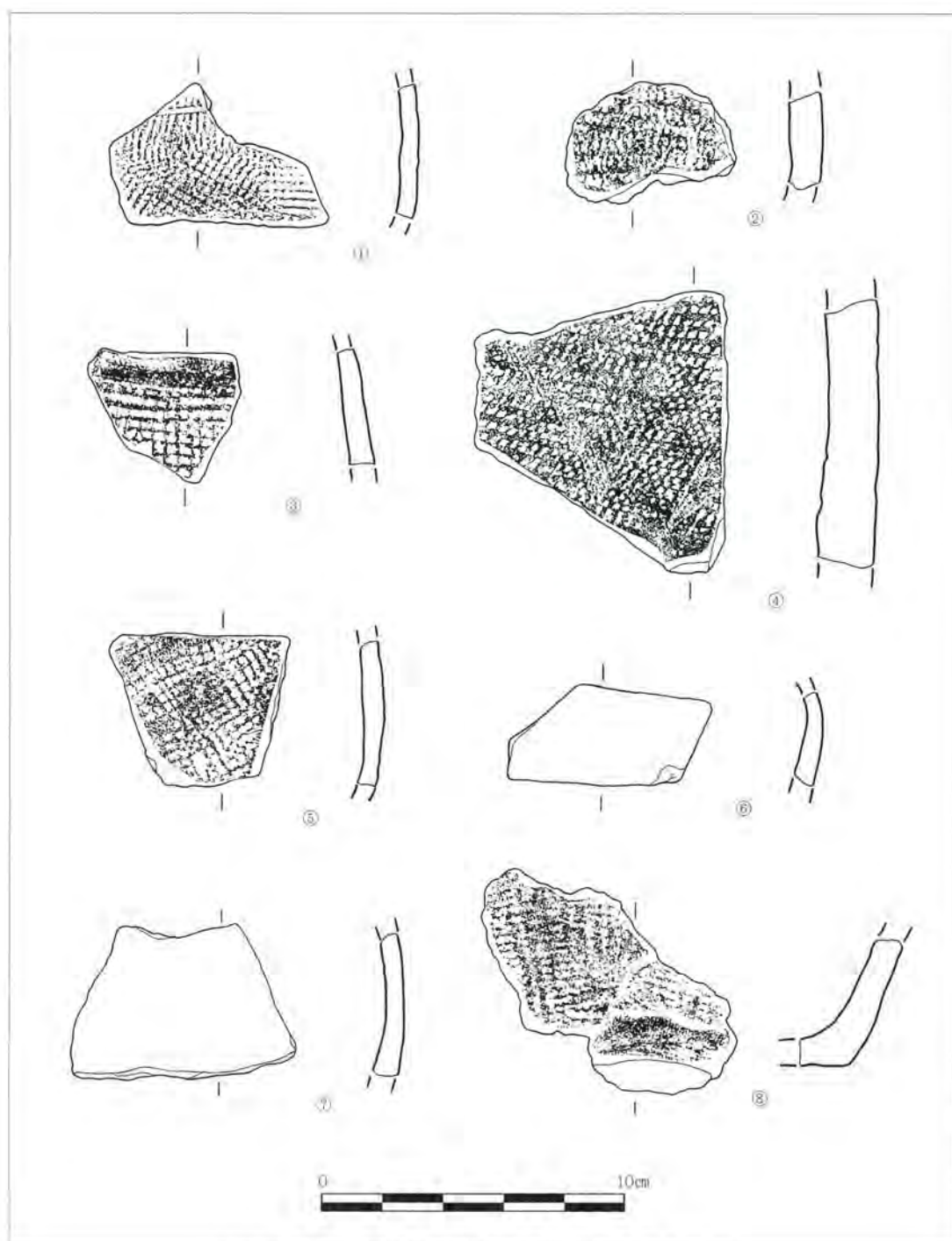
도면 27) N1E1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1



도면 28) N1E1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2



도면 29) N1E1 트렌치 유구내부퇴적층 출토 토기류 1



도면 30) N1E1 트렌치 유구내부퇴적층 출토 토기류 2

함유되어 거칠다.

최대두께 0.8cm

(7) N2E1 트렌치 출토 토기류

① 교란층

도면31-①(사진51-①)은 황백색을 띠는 토기편으로 경도는 니질에 가깝다. 구연이 일부 남아있는데, 내만하는 하는 동체에서 직립한 것으로 여겨진다. 동체는 단면상으로 급하게 곡면으로 꺾여 견부가 생겨났다.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남아있다. 태토는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여있는데, 소성상태는 좋은 편이다.

동체최대두께 0.5cm

도면31-②(사진51-②)는 속심이 적갈색을 띠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평행선문과 격자문이 시문되었는데, 격자문이 후에 타날된 것으로 보인다. 태토는 가늘고 굵은 사립이 다량 포함되어있다.

동체최대두께 0.8cm

도면31-③(사진51-⑤)은 속심이 회갈색을 띠는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크기와 형태로 보아 대형기종의 편으로 추정된다. 외면에는 $0.3 \times 0.3\text{cm}$ 정도의 격자문을 중복시문한 후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동체최대두께 1.0cm

도면31-④(사진51-④)는 속심이 적갈색을 띠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일부 물손질을 가해 지워졌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소량 혼입되었으나 치밀하다.

동체최대두께 0.6cm

도면31-⑤(사진51-③)는 회갈색을 띠는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는데, 눈의 크기가 $0.2 \times 0.2\text{cm}$ 정도이며 눈의 간격 또한 0.2cm이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소량 들어있다.

동체최대두께 0.5cm

도면31-⑥(사진51-⑥)은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으나 마모되어 희미하다. 내면에는 횡방향과 사선방향의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 가는 사립이 소량 포함되었다.

동체최대두께 0.9cm

도면31-⑦(사진51-⑦)은 회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0.3 \times 0.3\text{cm}$ 의 격자문 위로 횡선을 돌린 후 그 위로 격자문을 타날되었다. 내면은 표면에 군데군데 박락되었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동체최대두께 0.9cm

② 유구내부퇴적층

도면32-①(사진52-①)은 회백색 연질토기로 호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내만하는 동체에서 외반됨없이 길게 직립하였으며 구순은 비교적 둥글게 처리하였다. 동체에는 평행선문이 사선방향으로 타날된 것으로 보이나 잔존하는 편이 작아 세밀한 관찰이 어렵다.

동체최대두께 0.6cm

도면32-②(사진52-②)는 황갈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내만하는 동체에서 외반된 것으로 보이며 구연단은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외면에는 구연까지 격자문이 시문되었으며 경부에는 횡방향으로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태토에는 가늘고 굵은 사립과 석립을 다량 혼입되어 거칠다.

동체최대두께 0.8cm

도면32-③(사진52-③)은 회백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동체에서 길게 외반된 것으로 보이며 구순은 편평하게 조성하였다. 내외면에는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동체최대두께 0.5cm

도면32-④(사진52-④)는 황갈색 연질토기로 호의 구연부편으로 여겨진다. 경부는 내만하는 동체에서 직립되었으며 길이는 2.8cm 정도이다. 구연은 경부에서 밖으로 바라졌으며 구순은 편평하게 조성되었다. 내외면에는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다량 포함되었다.

동체최대두께 0.5cm

도면32-⑤(사진52-⑤)는 적갈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동체에서 밖으로 꺾여 외반되었으며 구순을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외면은 마모되어 자세한 관찰은 힘들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소량 들어있다.

동체최대두께 0.6cm

도면32-⑥(사진52-⑥)은 적갈색 연질토기의 경부편이다. 외면에는 평행선문이 타날되었으나 마모되었다. 내외면에는 가늘고 굵은 사립이 다량 포함되어 거친느낌이다.

동체최대두께 1.0cm

도면32-⑦(사진52-⑦)은 회백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승문이 시문된 것으로 추정된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동체최대두께 0.9cm

도면32-⑧(사진52-⑧)은 회백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선문이 타날된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마모되어 일부에만 남아있다.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소량 들어있다.

동체최대두께 0.5cm

도면32-⑨(사진52-⑨)는 회백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으로 도면32-⑧과 같은 편으로 추정되나 서로 붙지는 않는다. 외면에는 평행선문이 시문되었으나 마모되어 희미하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소량 포함되었다.

동체최대두께 0.5cm

도면33-①(사진53-①)은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0.3 \times 0.3\text{cm}$ 의 격자문이 중복타날되었다. 태토에 가는 사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동체최대두께 0.8cm

도면33-②(사진53-②)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태토에는 사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동체최대두께 0.6cm

도면33-③(사진53-④)은 속심이 회백색을 띠는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3.5 \times 3.5\text{cm}$ 의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다량 들어있다.

동체최대두께 0.9cm

도면33-④(사진53-③)는 황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은 $0.3 \times 0.3\text{cm}$ 정도의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태토는 정선된 편이다.

동체최대두께 1.0cm

도면33-⑤(사진53-⑥)는 회색 연질토기편으로 저부이다. 내면에 물손질흔이 희미하게 확인된 것 외에 마모되어 자세한 관찰이 어렵다. 태토는 정선된 편이다.

동체최대두께 0.6cm

도면33-⑥(사진53-⑦)은 회색 연질토기의 저부편으로 도면33-⑤와 같은 개체의 편으로 보이거나 서로 붙지는 않는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소량 포함되었다.

동체최대두께 0.6cm

도면33-⑦(사진53-⑤)은 회청색 경질토기의 저부편이다. 바닥은 거의 유실되었으나 꺾인 부분이 남아있다. 돌아가는 면이 좁고 굽기가 얇은 것으로 보아 소형 기종의 편으로 추정된다. 태토에는 가늘고 굽은 석립이 다량 포함되어 표면이 고르지 못하다.

동체최대두께 0.3cm

도면33-⑧(사진53-⑧)은 회백색 연질토기의 바닥편이다, 마모가 심해 자세한 관찰이 어렵다. 태토에서 미세한 사립이 확인된다.

바닥최대두께 0.5cm

(8) N3E1 트렌치 유구내부퇴적층 출토 토기류

도면34-①(사진54-②)은 속심이 회백색을 띠는 회색 연질토기 동이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동체에서 수평하게 꺾여 외반되었으며 구연안쪽에는 넓은 홈을 돌렸다. 외면에는 격자문을 시문하였다. 태토에 가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0.7cm

도면34-②(사진54-③)는 속심이 황갈색을 띠는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태토에 가는 사립이 들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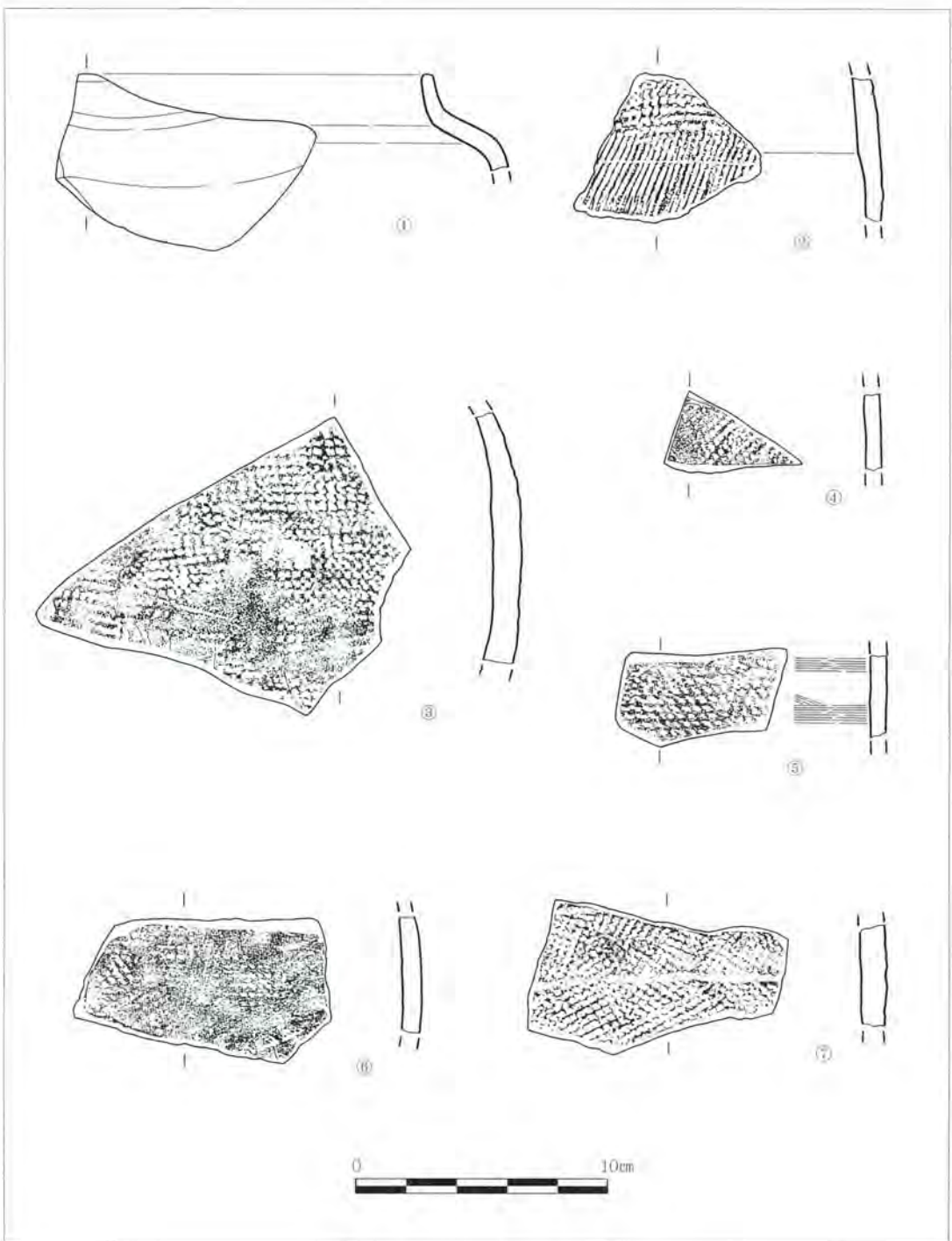
최대두께 0.7cm

도면34-③(사진54-①)은 속심이 적갈색을 띠는 흑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경부에서 밖으로 수평하게 바라졌으며 구연단은 편평하게 조성하였다. 구연안과 밖에 넓은 홈이 돌아가고 있다.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돌아가고 있다. 태토에 가는 사립이 들었으나 치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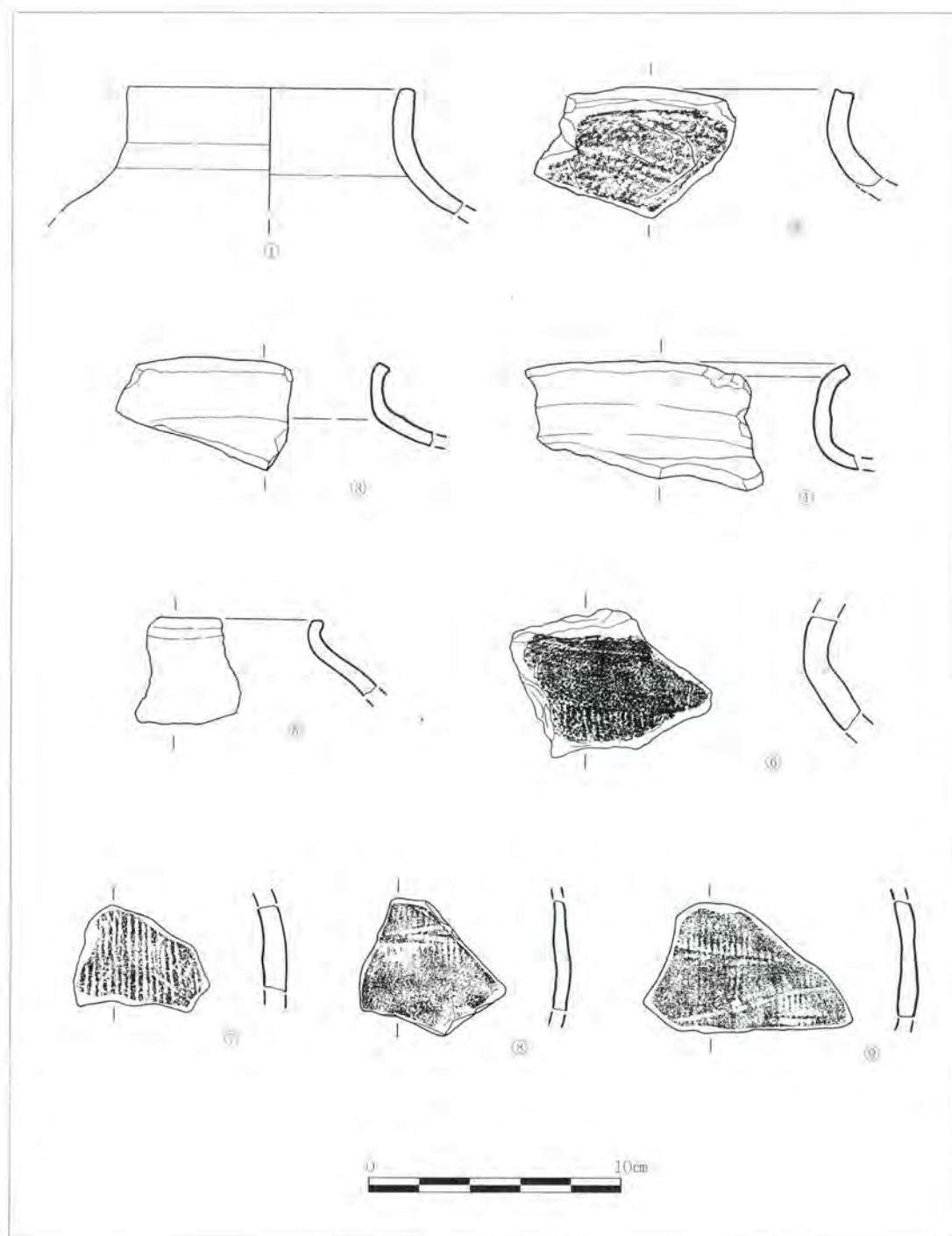
최대두께 0.7cm

도면34-④(사진54-④)는 내면에는 적갈색과 회색을, 외면에는 황갈색과 회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크기로 보아 대형기종의 편으로 여겨진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중복 타날되었는데, 바닥과 가까운 부분에는 마모되었다. 내면에는 여러방향의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사립이 다량 함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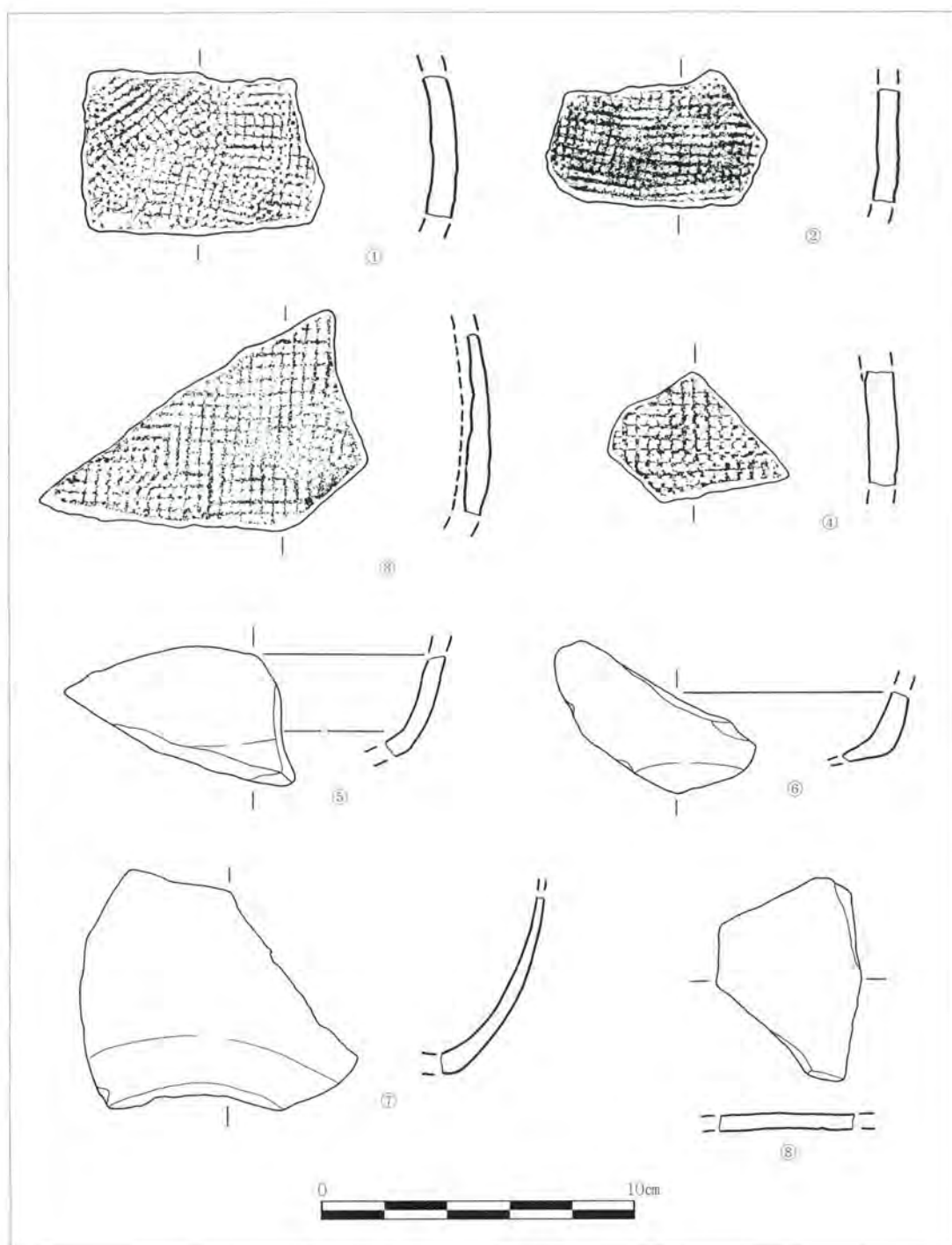
최대두께 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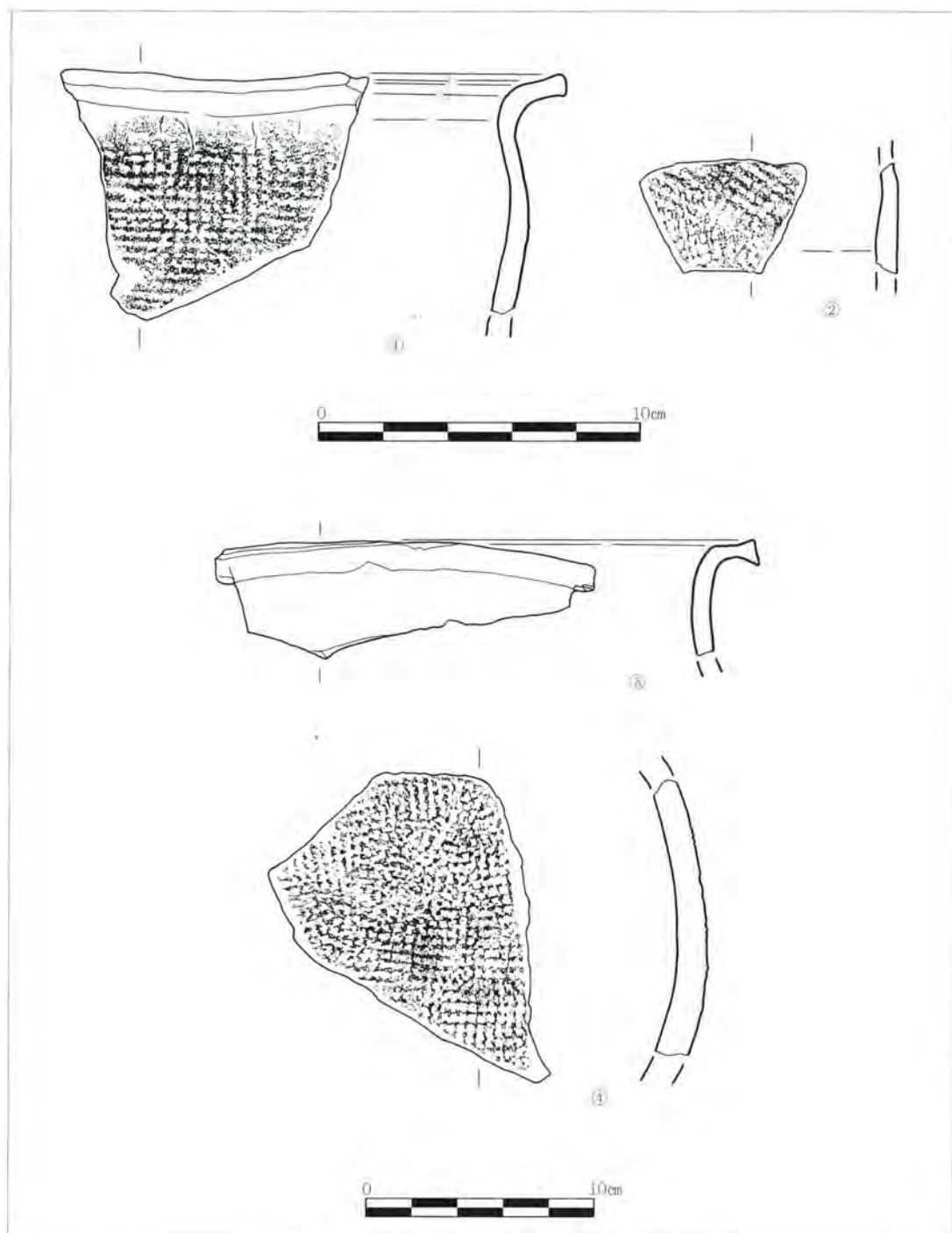
도면 31) N2E1 트랜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도면 32) N2E1 트랜치 유구내부퇴적층 출토 토기류 1



도면 33) N2E1 트렌치 유구내부퇴적층 출토 토기류 2



도면 34) N3E1 트렌치 유구내부퇴적층 출토 토기류

(9) N4E1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도면35-①(사진55-①)은 황백색을 띠는 니질에 가까운 연질토기편이다. 형태로 보아 연통의 편으로 추정된다. 외면에는 돌대가 한줄 돌아가고 있는데, 대부분 박락되었다. 내면에는 돌대를 붙이기 위해 손으로 누른 흔적이 관찰되며 여러방향으로 물손질을 가해 정면하였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들어있으나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동체최대두께 1.0cm

도면35-②(사진55-②)는 황백색의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형태, 태토 등으로 볼 때 도면35-①과 같은 편으로 추정된다. 내면에는 종방향의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동체최대두께 1.1cm

(10) N5E1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도면36-①(사진56-①, 57)은 황갈색 연질토기 용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수평하게 바라진 것으로 보이며 구연단을 각을 지게 조성하여 단면형태가 '∧'이다. 구연의 두께가 동체보다 두툼하게 조성하였다. 또한, 1.5×1.0cm 정도 크기로 타원형태의 구멍이 뚫려 있다. 끝이 넓은 도구로 돌려가며 정면한 흔적이 드러난다. 내면의 대부분은 박락되어 표면이 거칠다. 태토에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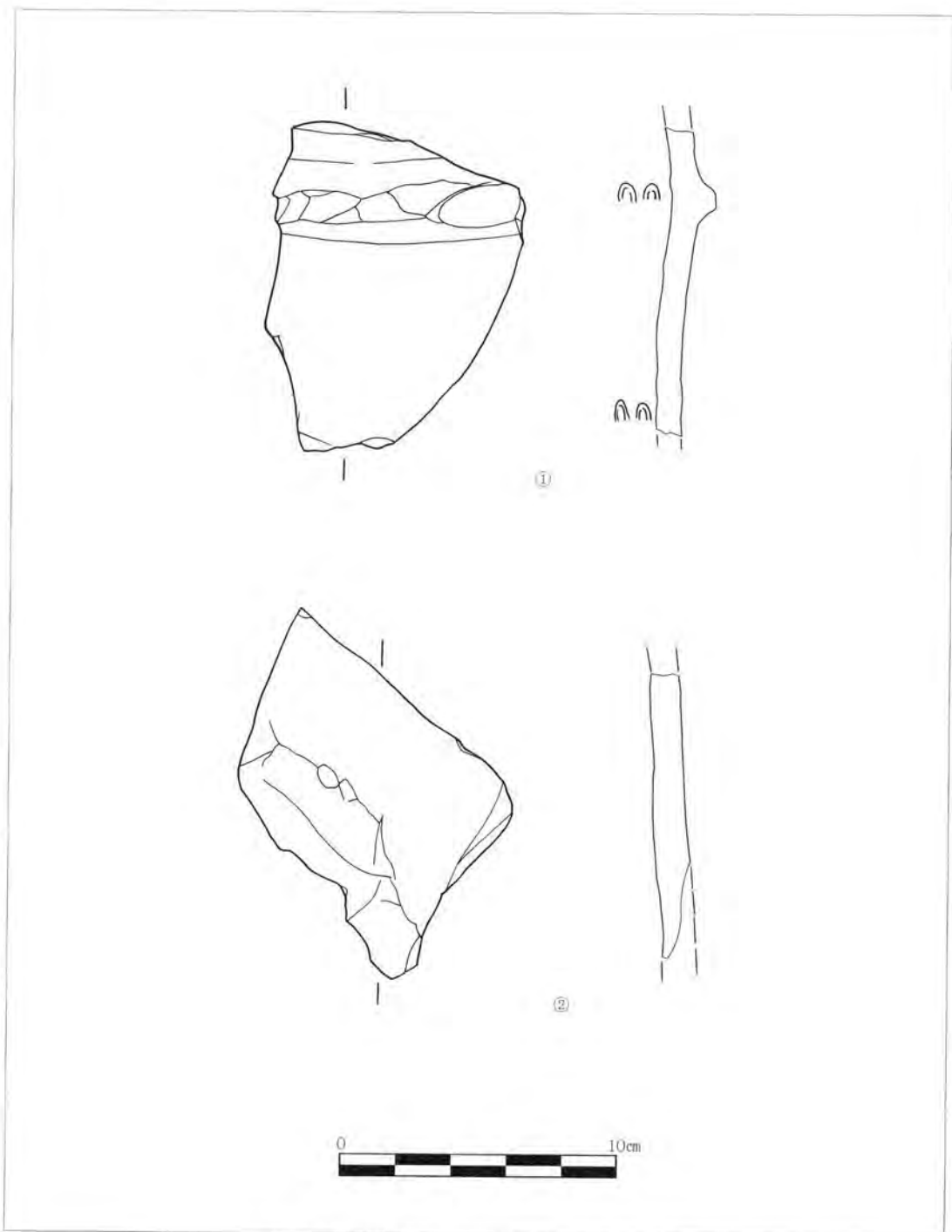
최대두께 1.1cm

도면36-②(사진56-②)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을 시문한 후 물손질을 가해 지운 뒤 횡침선 3줄을 돌렸다.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석립과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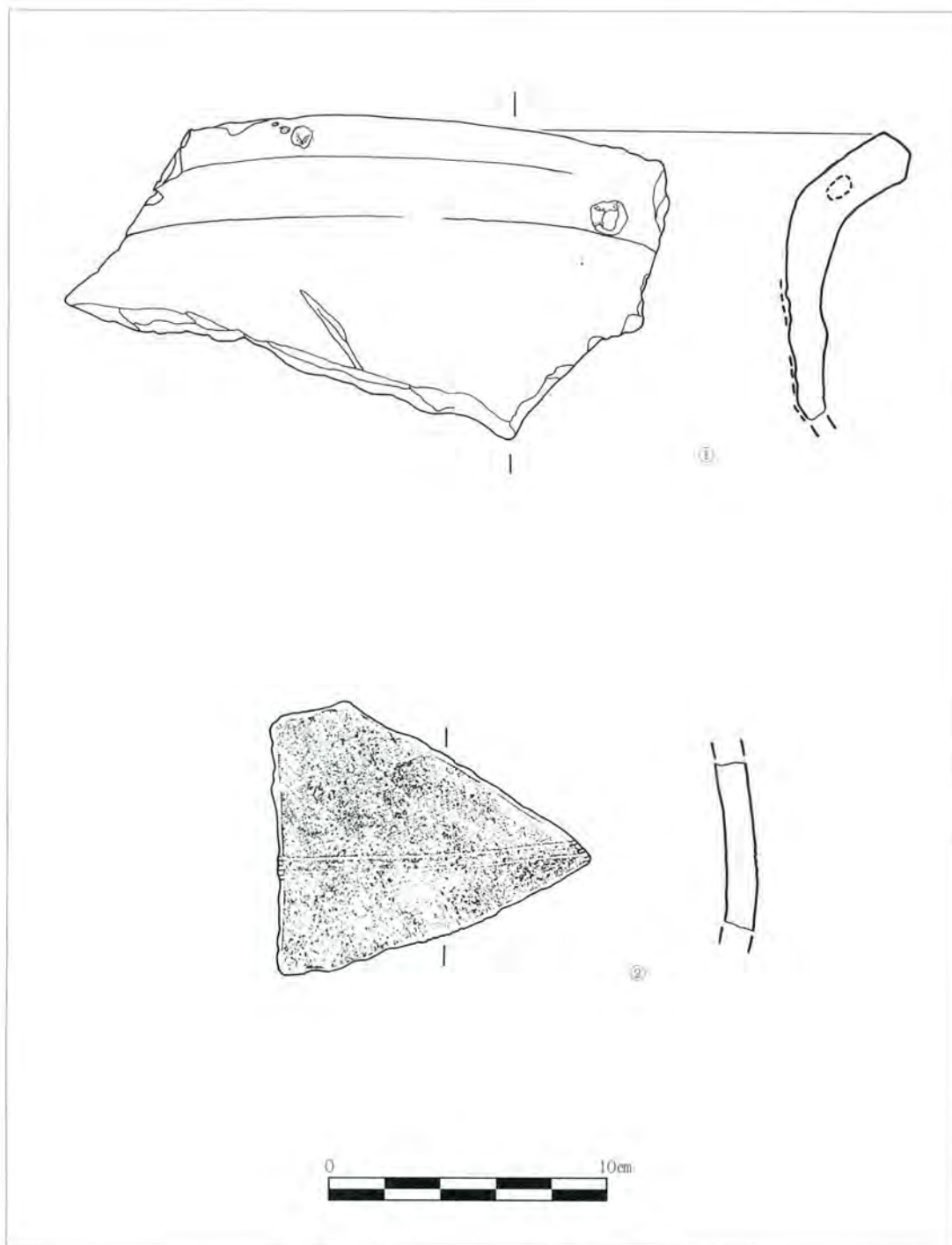
최대두께 1.0cm

(11) 지표수습 토기류

도면37-①(사진58-①)은 속심이 적갈색을 띠는 회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



도면 35) N4E1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도면 36) N5E1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는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에는 점토이음흔적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사립이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1.3cm

도면37-②(사진58-④)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중복시문되었다. 내면에는 점토이음흔적이 관찰된다. 단면상에서는 토기의 횡방향으로 덧붙인 것이 확인된다. 태토에는 사립이 소량 들어있다.

최대두께 1.2cm

도면37-③(사진58-③)은 속심이 적갈색을 띠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에는 석립이 노출되었다. 태토에는 석립과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1.2cm

도면37-④(사진58-②)는 속심이 적갈색을 띠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중복해서 타날되었다. 태토에 석립과 사립이 다량 함유되었다.

최대두께 1.2cm

도면37-⑤(사진58-⑤)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0.2×0.4cm 정도 크기의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태토에는 석립과 사립이 포함되었다.

최대두께 1.6cm

도면38-①(사진59-①)은 적갈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수평하고 짧게 외반되었으며 구연단은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내외면에서 희미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사립이 다량 함유되었다.

최대두께 0.8cm

도면38-②(사진59-②)는 회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외반되었으며 구연단은 편평하게 조성하였다. 내외면에는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1.0cm

도면38-③(사진59-③)은 회색 연질토기의 경부편이다. 외면에는 평행선문이 타날되었다. 태토에는 사립이 들어있다.

최대두께 0.4cm

도면38-④(사진59-④)는 내면이 회색을 띠는 황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된 듯하나 마모되어 희미하다. 태토에는 굵고 가는 사립이 다량 들어있다.

최대두께 0.9cm

도면38-⑤(사진59-⑤)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평행선문+횡선문이 시문되었다. 내면에는 사선방향의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0.7cm

도면38-⑥(사진59-⑥)은 황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평행선문이 시문되었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포함되었다.

최대두께 0.6cm

도면38-⑦(사진59-⑦)은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는데, 부분적으로 마모되어 희미하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들어있다.

최대두께 1.2cm

도면38-⑧(사진59-⑧)은 회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세줄의 파상문과 횡선문이 돌아가고 있다. 태토에는 굵고 가는 사립이 첨가되었다.

최대두께 1.0cm

도면38-⑨(사진59-⑨)는 황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두께가 매우 두툼한 것으로 보아 대형기종의 잔편으로 여겨진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는데, 대부분 박락되거나 마모되었다. 태토에 가는 사립이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2.7cm

도면39-①(사진60-①)은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두께로 보아 대형기종의 편으로 여겨진다. 외면에는 비교적 큰 격자문이 시문되었으나 마모되어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함유되었다.

최대두께 2.3cm

도면39-②(사진60-②)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0.35 \times 0.35\text{cm}$ 정도의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에는 사선방향의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굵고 가는 사립이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0.9cm

도면39-③(사진60-③)은 회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마모되어 부분적으로 희미하다. 내면에는 종방향과 횡방향의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는 치밀한 면이다.

최대두께 0.7cm

도면39-④(사진60-④)는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으나 마모되었다. 태토에 가는 사립이 들어있다.

최대두께 1.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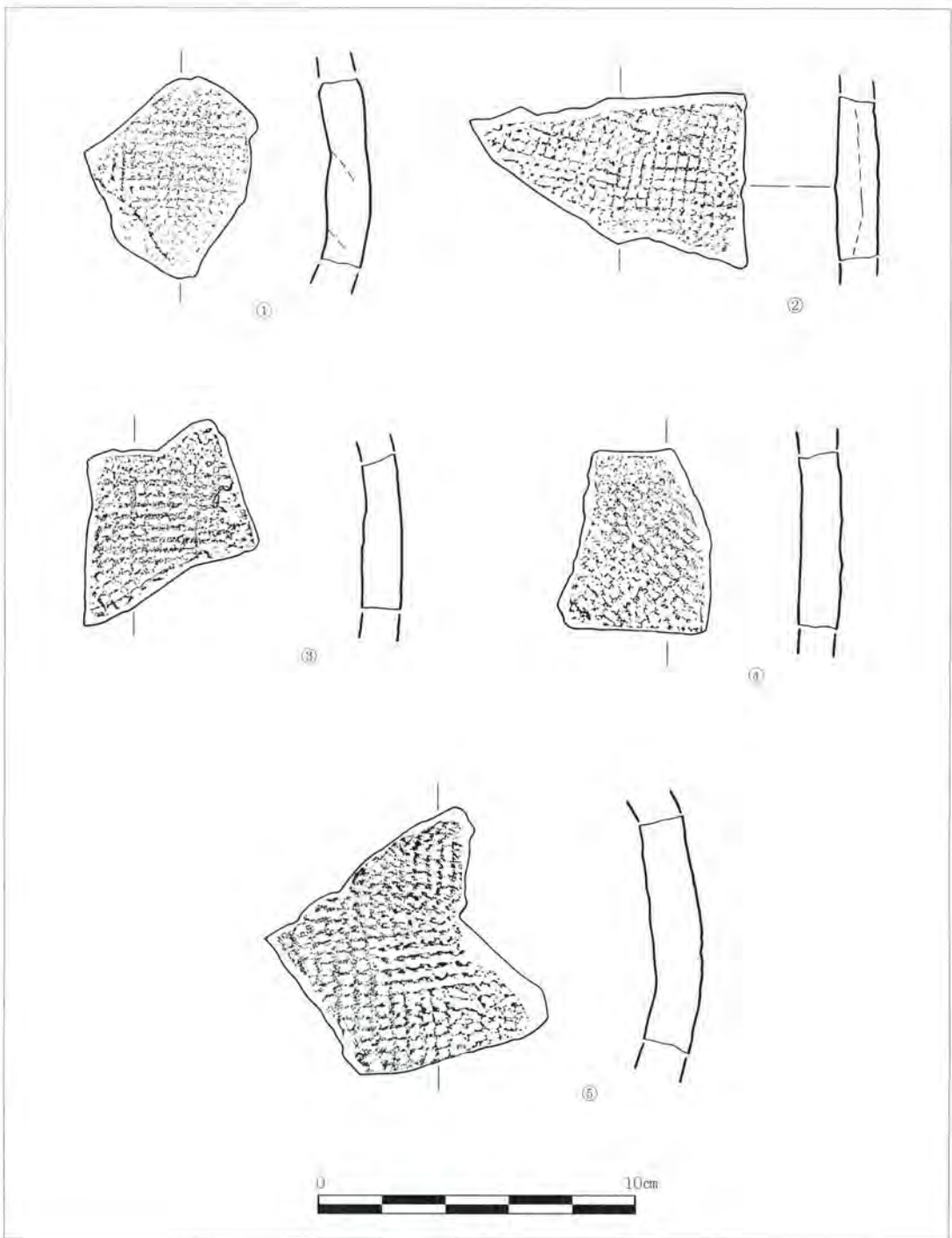
도면39-⑤(사진60-⑤)는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중복 시문되었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포함되었다.

최대두께 0.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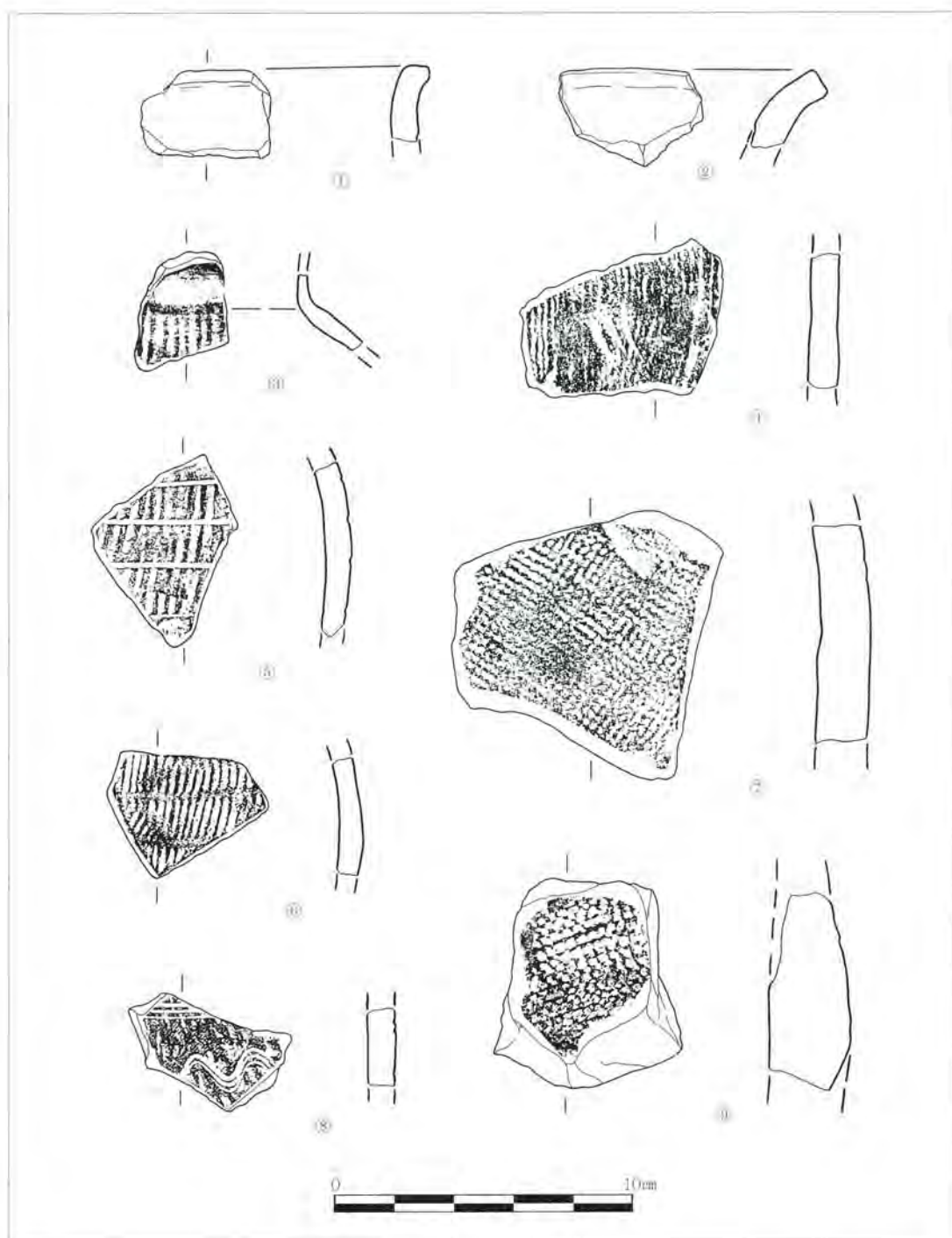
도면39-⑥(사진60-⑥)은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중복타날되었다. 문양이나 단면형태로 볼 때 저부와 가까운 편으로 여겨진다. 태토에 가는 사립이 첨가되었다.

최대두께 0.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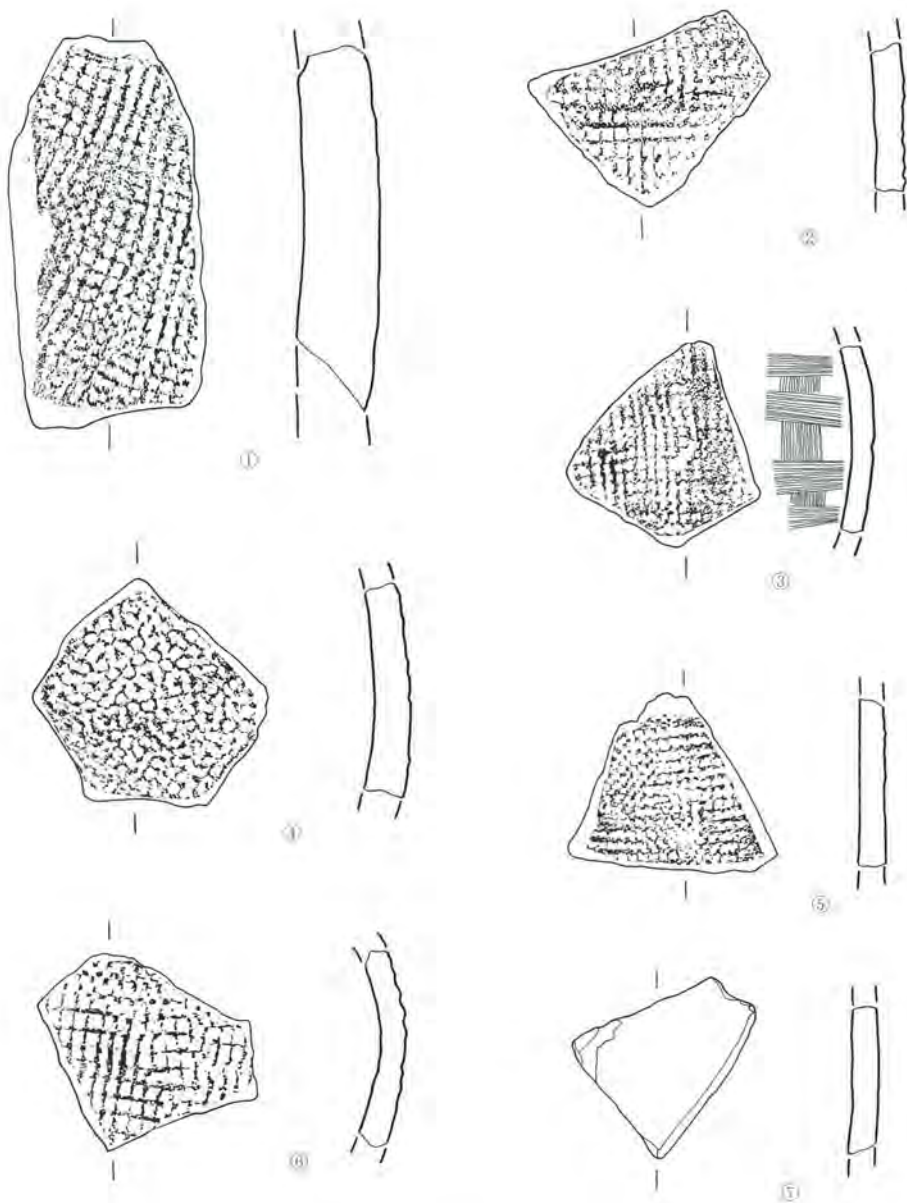
도면39-⑦(사진60-⑦)은 내면에 회백색을 띠는 적갈색 연질토기편이다. 내외면에는 마



도면 37) 지표수습 토기류 1



도면 38) 지표수습 토기류 2



도면 39) 지표수습 토기류 3

모되어 아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태토에 가는 사립이 들어있다.

최대두께 0.7cm

(12) 경질무문 토기류

도면40-①(사진61-①)은 적갈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약간 외반하였으며 끝을 비교적 둥글게 처리하였다. 외면에는 물손질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내면은 불에 그을려 대부분 검은 색을 띠고 있다. 태토에는 굵고 가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0.7cm

도면40-②(사진61-③)는 적갈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만 따로 만들어 붙여 외반되게 성형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면에는 횡침선이 보이는데 이는 정면할 때 도구를 사용한 흔적으로 보인다. 태토에는 사립이 다량 들어있다.

최대두께 0.6cm

도면40-③(사진61-②)은 황갈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내면에는 정면할 때 도구를 쓴 흔적과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사립이 다량 포함되었다.

최대두께 1.0cm

도면40-④(사진61-⑥)는 황갈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밖으로 바라지게 조성하였으며 끝을 둥글게 처리하였다. 외면에는 박락이 심해 자세한 관찰이 힘들다. 내면에는 지두압흔과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굵고 가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0.6cm

도면40-⑤(사진61-④)는 적갈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살짝 외반된 것으로 여겨지며 끝을 편편하게 조성하였다. 외면에서 희미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 가는 사립이 함유되었다.

최대두께 0.5cm

도면40-⑥(사진61-⑤)은 적갈색 연질토기의 저부편이다. 바닥은 편평했을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마모되어 자세한 관찰이 힘들다. 태토에 가는 사립이 포함되었다.

동체최대두께 0.6cm

도면40-⑦(사진61-⑦)은 내면이 적갈색이 띠는 황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마모되어 사립이 다수 노출되었다. 내면에는 희미하게 여러방향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태토에 사립이 다량 들어있다.

최대두께 0.6cm

도면40-⑧(사진61-⑧)은 적갈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내외면이 마모되고 박락되어 자세한 관찰이 힘들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첨가되었다.

최대두께 1.0cm

(13) 출문토기류

도면41-①(사진62-①)은 내외면이 적갈색을 띠는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살짝 바라졌으며 끝은 비교적 뾰족하게 표현하였다. 외면에는 삼각형 모양의 점열문 세 줄을 압날하였다. 점열문 아래에는 삼각집선문을 시문하였다. 태토에 가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0.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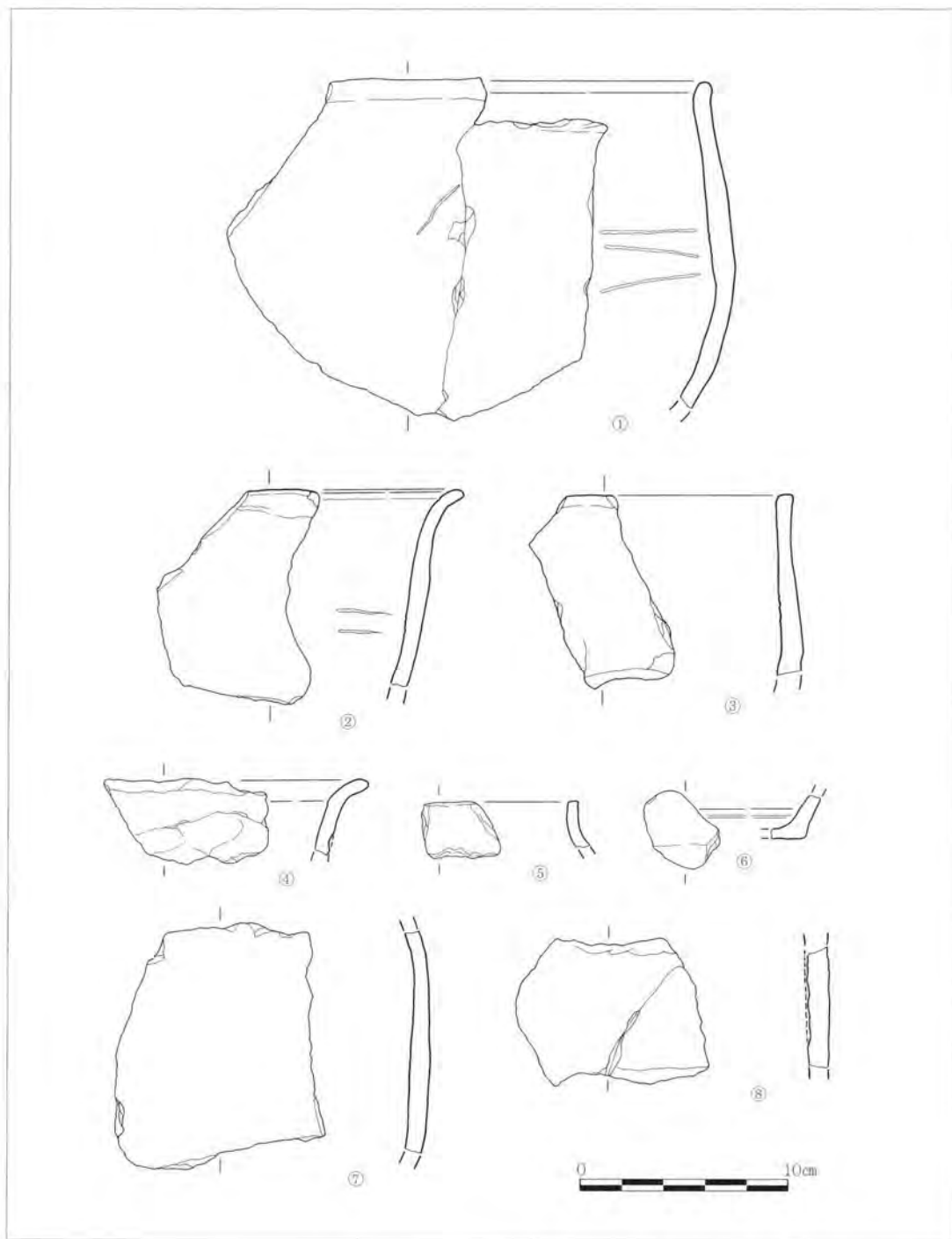
도면41-②(사진62-②)는 내면에 흑회색을 띠는 적갈색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삼각집선문을 시문하였다. 태토에 가는 사립이 다량 포함되었다.

최대두께 0.6cm

도면41-③(사진62-③)은 내외면이 적갈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끝이 가는 도구로 삼각집선문을 시문하였다. 태토에 가는 사립이 다량 들어있다.

최대두께 0.6cm

도면41-④(사진62-④)는 적갈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다치구로 삼각집선문을



도면 40) 경질무문 토기류

시문하였다. 내면은 대부분이 박락되었다. 태토에 가는 사립이 다량 함유되었다.

최대두께 0.5cm

도면41-⑤(사진62-⑤)는 내외면은 적갈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외면은 마모되어 문양이 희미한데 삼각집선문이 시문된 것으로 보인다. 내면에는 점토이음흔적과 손으로 누른 흔적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다량 첨가되었다.

최대두께 0.7cm

도면41-⑥(사진62-⑥)은 내외면이 황갈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삼각집선문을 시문한 것으로 여겨진다. 내면은 마모되어 사립이 다수 노출되었다. 태토에는 굵고 가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0.5cm

도면41-⑦(사진63-①)은 내외면이 황갈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다치구로 사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삼각집선문을 시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다량 포함되었다.

최대두께 0.6cm

도면41-⑧(사진63-②)은 황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은 대부분 마모되어 희미하게 문양이 관찰되는데 삼각집선문이 시문되었다. 태토에 미세한 사립이 들어있다.

최대두께 1.0cm

도면41-⑨(사진63-③)는 내면에 흑회색을 띠는 적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다치구로 삼각집선문을 표현하였다. 태토에 가는 사립이 다량 함유되었다.

최대두께 0.7cm

도면41-⑩(사진63-④)은 적갈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끝이 가는 도구로 집선문을 시문한 것으로 보인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첨가되었다.

최대두께 0.6cm

도면41-⑪(사진63-⑤)은 내면이 흑회색을 띠는 흑갈색 동체부편이다. 끝이 둥근 도구로 횡선을 두른 뒤 그 아래 사선문을 시문하였으나 잔편이라 전체적인 문양은 알 수 없다. 태토에 가는 사립이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0.4cm

도면42-①(사진63-⑥)은 내면이 흑갈색을 띠는 적갈색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끝이 날카로운 도구로 사선문을 시문하였으나 작은 파편이라 전체적인 문양을 알 수 없다. 태토에 가는 사립이 들어있다.

최대두께 0.6cm

도면42-②(사진63-⑧)는 내외면이 적갈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단선문을 두 줄을 압날한 후 아래에 사선문을 시문하였으나 잔편이라 전체적인 문양을 알 수 없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첨가되었다.

최대두께 0.5cm

도면42-③(사진63-⑦)은 적갈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방형의 문양이 압날한 것이 보이나 워낙 작은 파편이라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0.5cm

도면42-④(사진64-③)는 황갈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선방향의 문양이 확인되나 잔편이라 문양은 파악하기 어렵다. 태토에는 굵고 가는 사립이 함유되었다.

최대두께 1.0cm

도면42-⑤(사진64-①)는 내외면이 황갈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끝이 둥근 다치구를 이용해 사선방향으로 길게 시문하였다. 태토에는 사립이 다량 들어있다.

최대두께 1.1cm

도면42-⑥(사진64-②)은 부분적으로 흑회색을 띠는 황갈색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

선방향을 길게 그은 문양이 확인된다. 태토에는 석립과 사립이 다량 포함되었다.

최대두께 1.2cm

도면42-⑦(사진64-⑤)은 내외면이 황갈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끝이 비교적 넓은 도구려 사선방향으로 시문한 것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태토에는 굵고 가는 사립이 다량 들어있다.

최대두께 0.9cm

도면42-⑧(사진64-⑥)은 황갈색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마모되었으나 희미하게 얇고 길게 사선문이 확인된다. 태토에는 사립이 다량 포함되었다.

최대두께 1.3cm

도면42-⑨(사진64-④)는 적갈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선방향으로 간격이 일정치 않은 문양이 확인된다. 태토에는 굵고 가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1.3cm

도면42-⑩(사진64-⑦)은 황갈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선방향으로 깊게 시문되었다. 태토에는 굵고 가는 사립이 다량 함유되어 거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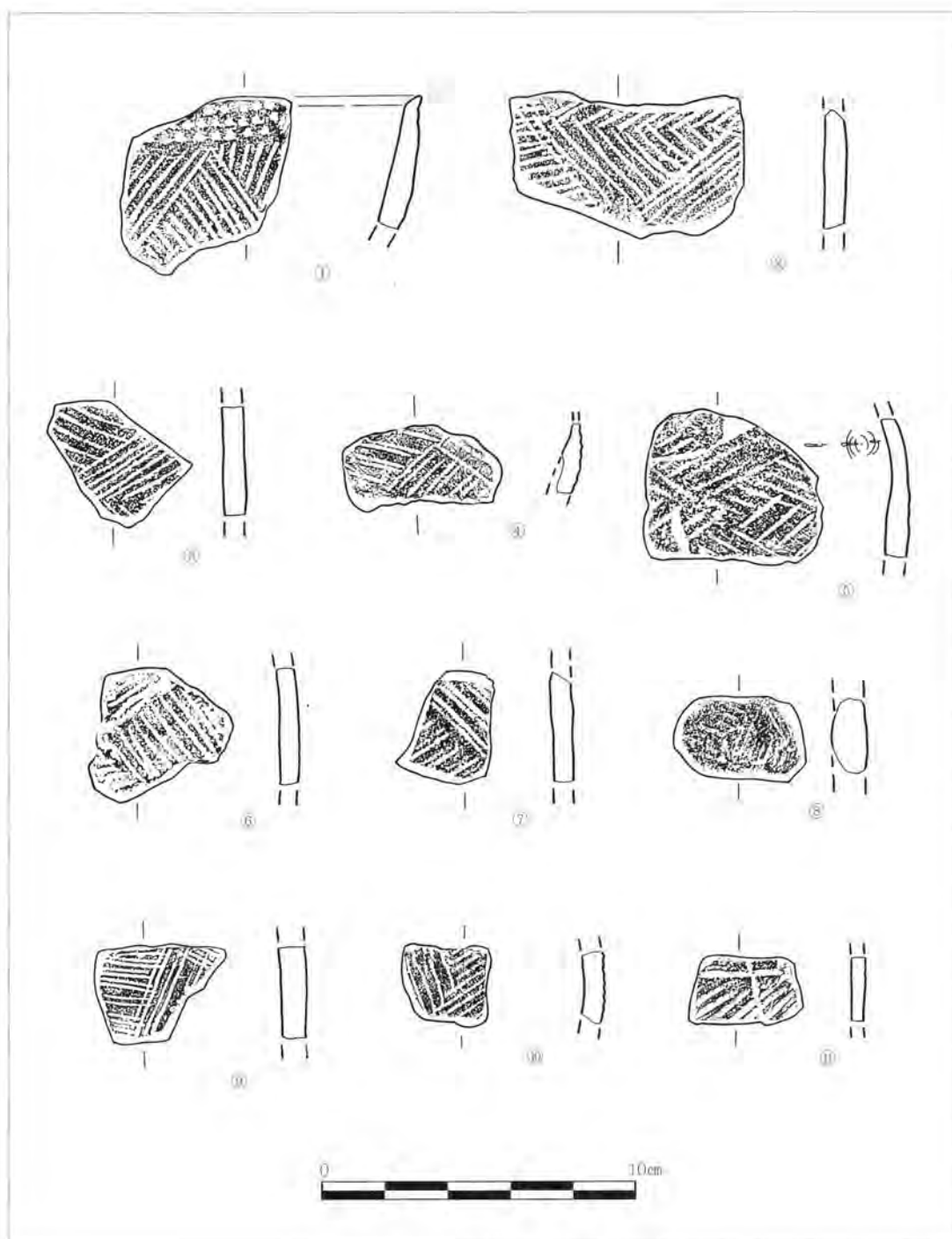
최대두께 1.4cm

(14) 기존조사 출토 고구려 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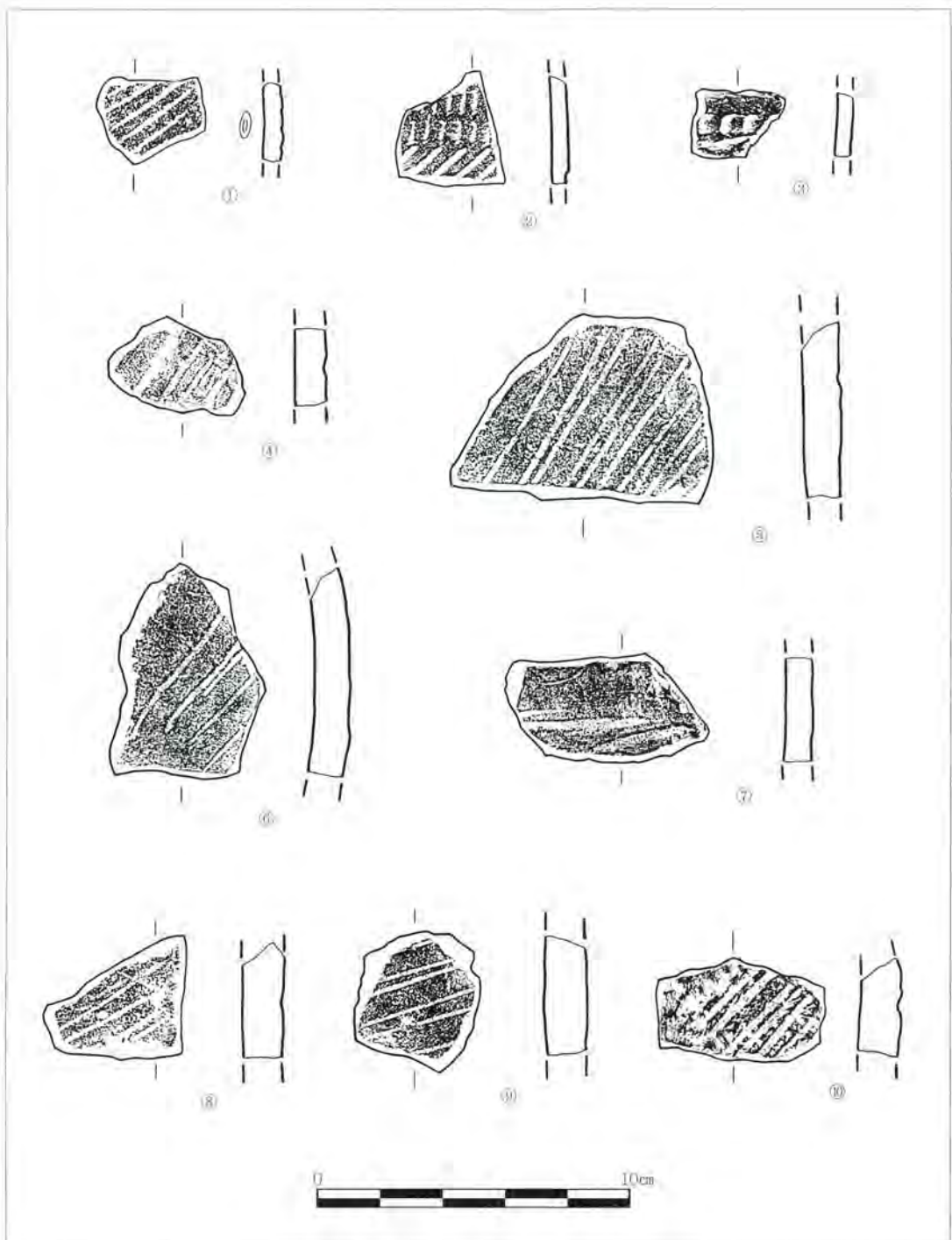
도면43-①(사진65-①)은 96년 지표조사 때 수습한 토기편으로 황갈색 호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경부에서 짧게 바라졌으며 구순은 편평하게 조성하였다.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 흔이 관찰된다. 손에 묻어날 정도로 니질이며 태토는 비교적 정선되었다.

추정구경 28.9cm, 최대두께 0.8cm

도면43-②(사진65-③)는 황갈색 연질 호의 구연편이다. 96년 지표조사 시 채집된 것이 다. 구연은 경부에서 수평하게 외반되었으며 구연단은 편평하다. 동체는 매끈하게 마연하였



도면 41) 줄문토기류 1



도면 42) 출문토기류 2

으며 희미하게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정선되었다.

추정구경 29.4cm, 최대두께 0.7cm

도면43-③(사진65-②)은 96년 조사 때 수습한 것으로 흑갈색을 띠는 연질 호의 구연부편이다. 경부는 내만하는 동체에서 직립하였다. 구연은 경부에서 바라졌으며 구연단은 편평하게 조성하였다. 구연 안쪽에는 넓은 홈을 돌려 약하게 단이 졌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추정구경 17.8cm, 최대두께 0.7cm

도면43-④(사진65-④)는 97년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토기편이다. 흑회색을 띠는 연질 호의 구연부편이다. 구연과 동체 일부만이 잔존해 있다. 구연은 짧게 외반하고 있으며 구연단은 편평하다. 내외면은 모두 광택에 날 정도로 매끈하게 마연하였다. 태토는 사립이 소량 함유되었으며 잘 정선되었다.

추정구경 12.5cm, 최대두께 0.8cm

도면44-①(사진66-①)은 회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돌아가는 면이 넓고 연질인 것으로 보아 동이의 편으로 추정된다. 기형이 전체적으로 틀어져 굴곡이 져 있다. 구연은 내만하는 동체에서 외반된 것으로 보인다. 손에 묻어날 정도로 니질이며 사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0.7cm

도면44-②(사진66-②)는 황갈색을 띠는 연질 호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내만하는 동체에서 직립하였으며 윗면을 편평하게 마무리하였다. 내면에는 동체와 구연의 경계에 점토이음흔적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포함되었다.

최대두께 0.6cm

도면44-③(사진66-③)은 적갈색을 띠는 연질토기 편이다. 구연은 곡면으로 내만하는 동체에서 직립하였다. 내외면은 마모되어 사립이 노출되었다. 구연 아래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 용도는 알 수 없다. 태토에는 사립이 다량 들어있다.

최대두께 0.6cm

도면44-④(사진66-④)는 황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은 반듯하게 정면하였으나 부분적으로 마모되었으며 내면에는 희미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0.6cm

도면44-⑤(사진66-⑥)는 전체적으로 회갈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최대경이 동체 상부에 있어 견부가 발달된 호의 잔편으로 여겨진다. 외면은 반듯하게 정면하였으나 부분적으로 마모되거나 박락되었다. 내면에는 희미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들어 있다.

최대두께 0.4cm

도면44-⑥(사진66-⑤)은 내면에 황갈색을 띠고 외면이 회색과 황갈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내외면이 마모되었으나 표면은 반듯한 편이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포함되었다.

최대두께 0.6cm

도면45-①(사진67)은 96년 한양대 조사지역 7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장동호의 저부편이다. 황갈색을 띠며 연질로 소성되었다. 기벽은 0.3cm 정도로 얇으며 내외면 모두 반듯하게 마연하였다.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되었으며 정선된 편이다.

잔존높이 16.4cm, 최대두께 0.3cm

도면45-②(사진68-②)는 한양대 7호 주거지에 확인된 토기편이다. 회색을 띠는 니질이며 동이로 추정된다. 외면에는 두줄의 횡침선이 돌아가고 있다.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는 사립이 소량 함유되었으나 잘 정선되었다.

잔존높이 17cm, 추정저경 20.4cm, 두께 0.8cm

도면45-③(사진68-①)은 한양대 7호 주거지에서 수습된 동이의 저부편이다. 회색이며 손에 묻어날 정도로 니질이다. 평저이며 동체는 사선으로 올라가고 있다. 태토에는 사립이 소

량 들어있다.

추정저경 16.8cm, 최대두께 0.9cm

도면46-①(사진70)은 내외면이 황갈색, 회갈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여러 편으로 수습된 것을 접착하였다. 최대동경이 동체의 상부에 있어 어깨가 발달하였다. 외면은 도구를 사용해 정면한 흔적이 관찰되며 표면이 비교적 굴곡없이 반듯하게 처리하였다. 내면에는 희미하게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함유되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최대동경 40.2cm, 최대두께 0.6cm

도면46-②(사진69-①)는 내외면이 흑회색, 황갈색 등을 띠는 저부편이다. 도면46-①과 같은 개체의 편으로 여겨지나 서로 붙지는 않는다. 바닥은 편평하며 동체는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다. 바깥바닥면까지 깨끗하게 정면하여 반듯하다. 안바닥은 대부분 박락되었는데, 희미하게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들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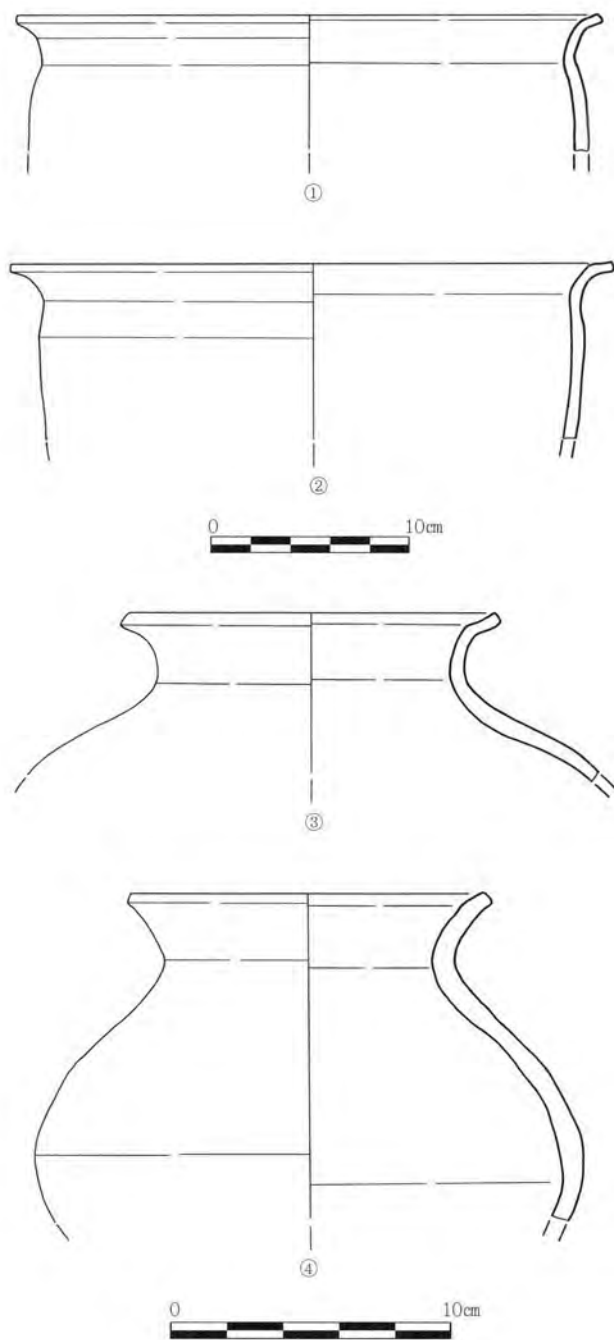
추정저경 28.0cm, 바닥최대두께 0.8cm

도면46-③(사진69-②)은 내면이 황갈색을 띠고 외면이 흑갈색과 황갈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형태로 보아 저부와 가까운 부분으로 추정된다. 외면에는 도구를 사용해 정면한 흔적이 관찰되며 표면은 반듯하다. 내면은 대부분이 박락되었으나 희미하게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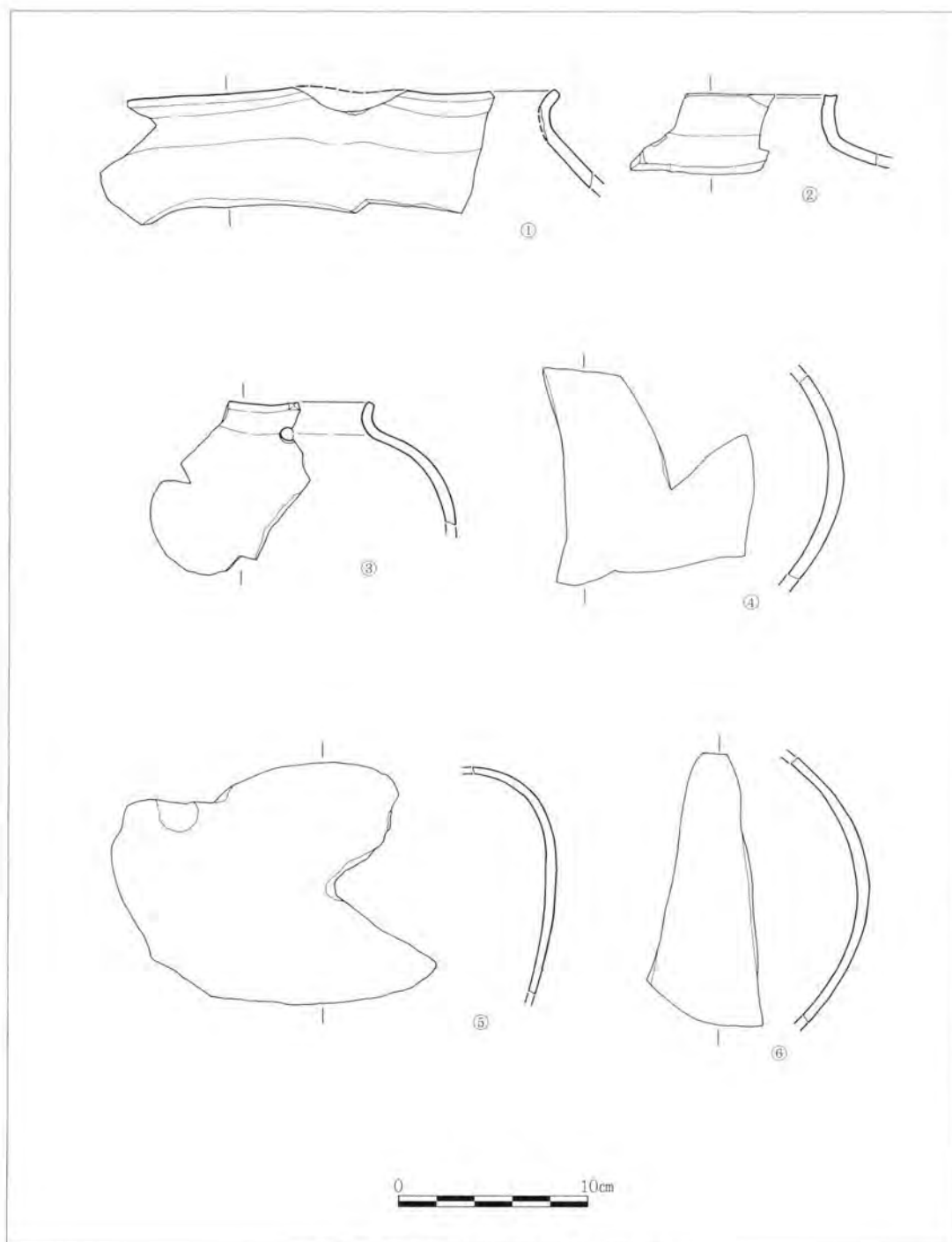
최대두께 0.6cm

도면46-④(사진69-③)는 회색 연질토기의 저부편이다. 바닥과 동체의 일부만이 남아있으나 전체적인 형태로 보아 동이편으로 추정된다. 바닥과 가까운 부분에 사선방향의 빗질흔과 같은 흔적이 관찰된다. 동체에는 두줄의 횡선이 돌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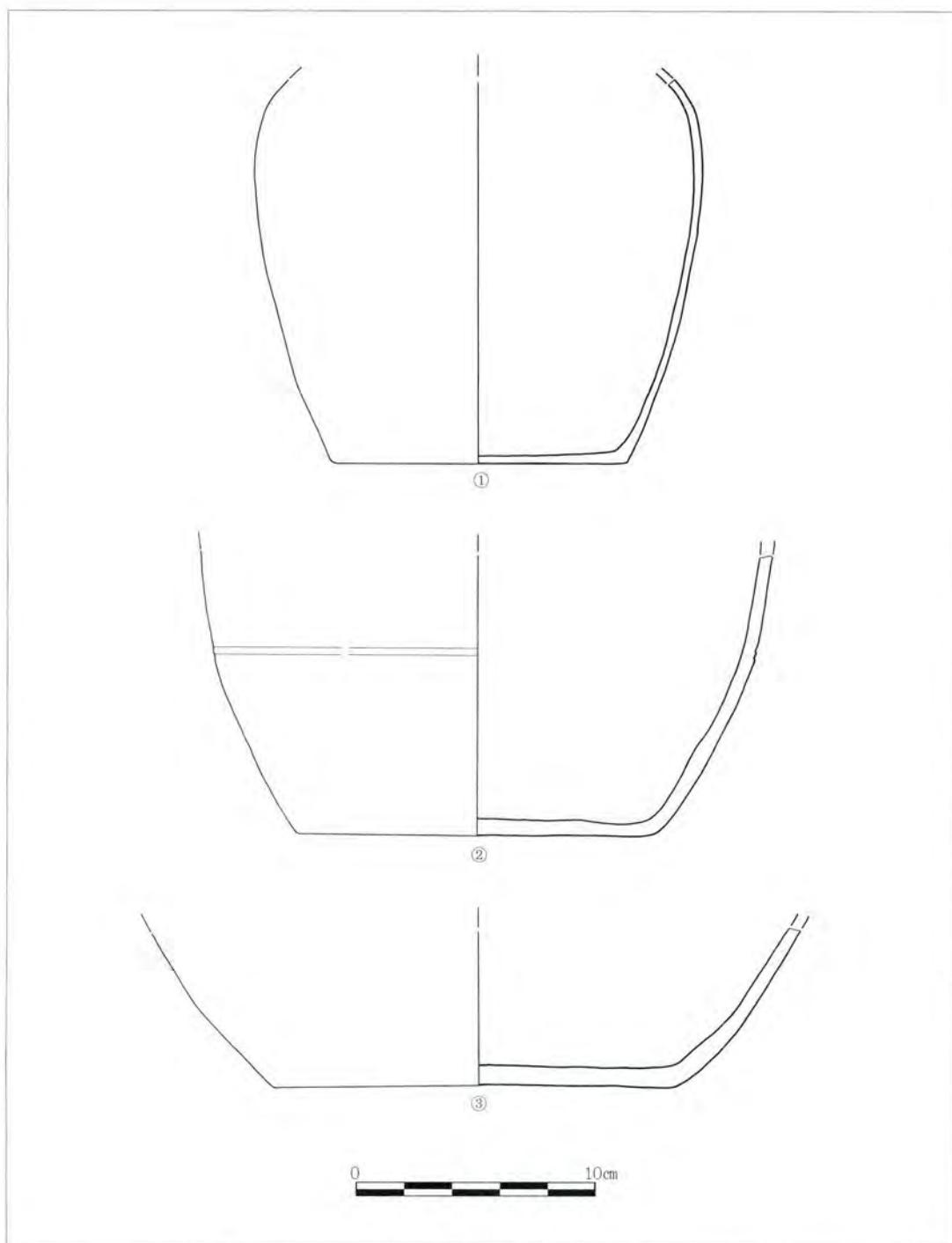
최대두께 0.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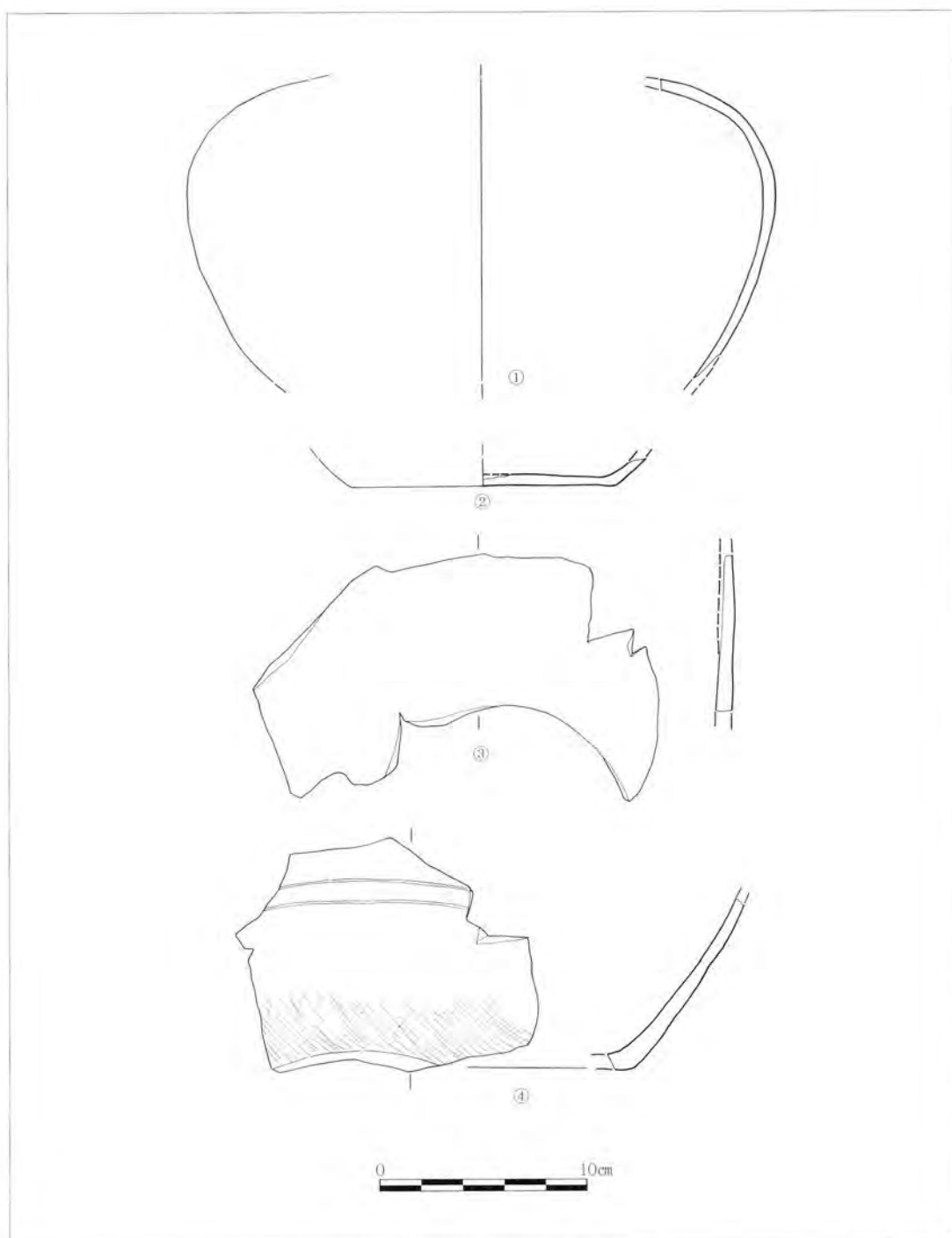
도면 43) 기존조사출토 고구려 토기류 1



도면 44) 기존조사출토 고구려 토기류 2



도면 45) 기존조사출토 고구려 토기류 3



도면 46) 기존조사출토 고구려 토기류 4

2. 地表調査

1) 城壁

성벽은 크게 외성벽과 내성벽으로 구분하였는데 먼저 외성벽은 현재 남아있는 잔존토루를 기준으로 북벽일부와 동벽, 남벽으로 구분하였고, 유실된 서벽과 북벽 일부는 잔존하는 성벽의 형태를 기준으로 추정 복원하였다. 또한 각 성벽은 세분하여 북벽은 2개 구간, 동벽과 남벽은 3개 구간으로 구분하였으며, 서쪽지점의 내성벽은 현재 잔존하는 성벽의 현상만을 확인하였다. 각 성벽의 측량현황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육계토성 현황

측량 조사 내용	구간	총 26개 구간(NO. 1~26)	규모	외성벽	북벽	90(260)m
	세부평판측량	9개소		동벽	407m	
	성벽단면측량	26개소		남벽	402m	
				서벽	(699m)	
	내성벽	85m		총길이	1,858m	
				면적		213,985㎡(64,730평)

2) 外城壁 現況

(1) 北壁

① I 구간

북벽은 성내에서 임진강으로 연결되는 수문에서부터 전차진지가 자리한 지점까지이다.

② II 구간

조사구간은 성곽의 북동쪽 모서리 부근의 전차진지에서 북동회절부까지이다. 성벽의 축조수법을 파악하기 위해 성벽의 단면이 노출되어 있는 북동회절부 도로변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정밀한 판측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지형을 활용하여 성토법으로 축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벽 외부에는 폭 5~7m의 평탄지가 성벽을 따라 북동회절부까지

약 50m 정도 이어지며, 그 앞쪽으로 임진강의 본류가 흐르고 있다.

또한 성내는 현재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성벽을 깎아 평탄지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성벽의 규모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대략 기단부 폭 12m, 상부 폭 8.5m 가량이며, 높이는 외벽 9m, 내벽 3m이다.

(2) 東壁

① I 구간

이 구간은 북동회절부에 개설된 도로의 남쪽 노란색 물탱크가 있는 지점부터 남쪽으로 뻗은 성벽을 따라 성외부에서 내부로 흘러드는 수로가 있는 곳까지이다. 성벽의 상면은 모두 인삼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성벽이 좁아들고 있어 높이와 폭이 일정하지 않다. 이는 경지정리과정에서 성벽의 내외부가 파괴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I 구간의 시작점에 민묘 2기가 내벽을 파괴하고 성내를 바라보고 조성되어 있으며 그 앞쪽으로 길이 10m, 높이 2.5m, 두께 30cm 정도의 콘크리트 옹벽이 타설되어 있다. I 구간 끝지점에는 내벽에 붙어 길이 30m, 폭 1m 가량의 근래의 배수로가 시설되어 성벽의 기단부를 파괴하였다. 성벽의 외부도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내부는 내벽에 접하여 사다리꼴모양의 평탄지가 형성되어 있고 그 앞쪽은 논으로 경작되고 있다.

한편 I 구간의 끝지점에 성외부에서 내부로 흘러드는 수로가 확인된다. 이 수로는 동벽 II 구간의 내벽에 붙어서 흘러가다가 회절하여 성내 평탄지 “라” 지점을 관통하여 남벽 II 구간과 III 구간 사이로 흘러 내려가 임진강과 합류한다. 성벽이 이 수로부근에서 잘려있어 인위적으로 수문을 낸 것인지 후대에 파괴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내외부의 고저차를 고려해 볼 때 인위적인 수로시설을 갖추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성벽의 규모는 일정치 않은데 대체적으로 기단부 폭 26~28.4m, 상부 폭 11~15m, 높이는 외벽 3.5~4m, 내벽 5~6m 가량으로 내벽이 외벽에 비해 높은 편이다.

② II 구간

현재 수로가 있는 지점에서부터 남쪽으로 진행하여 도로에 의해 성벽이 절개된 곳까지의 구간이다. 성벽의 상면은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성벽 중간지점에 민묘 2기가 내벽을 파괴하고 조성되어 있다. 민묘 앞쪽으로 대형 석재를 이용하여 축대를 2~3단 정도 쌓은 것이

확인된다. Ⅱ구간도 Ⅰ구간과 동일하게 성벽 내외부가 경지정리과정에서 삭토되어 성벽의 형태는 Ⅰ구간과 대칭되게 북쪽이 좁고 남쪽으로 이어지면서 넓어지는 형태를 하고 있다. Ⅱ구간의 시작점인 수로 남쪽 내벽 기단부에는 현무암과 강돌을 이용하여 2~4단 정도 쌓았다. 석재는 치석된 것과 부정형이 혼재되어 있으며 크기는 $50 \times 30\text{cm}$, $60 \times 35\text{cm}$ 이다. 성의 외부는 밭과 논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내부는 서쪽을 향하며 계단식으로 논과 밭이 경작되고 있다. 성벽의 규모는 일정치 않은데 Ⅱ구간 시작점의 기단부 폭 6.5m, 상면 폭 5.5m, 끝지점의 기단부 폭 24m, 상면 폭 18m이다. 높이는 내외벽이 1.5~3m 내외이다.

③ Ⅲ구간

절개지에서 동남회절부에 위치한 동남망대지까지의 구간으로 육계토성의 성벽가운데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구간이다. 현재 성벽 상면은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동남회절부 부근의 내성벽쪽은 성벽을 인위적으로 삭토하여 평탄지를 만들었으며, 그 안쪽은 불규칙한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고 그 주변은 계단식 논이 경작되고 있다. 평탄지에서 소량의 토기편들이 채집되었다. 성벽과 평행하게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이어져 있고 도로 바깥쪽 또한 논으로 경작되고 있다. 성벽의 규모는 기단부 폭 23m, 상부 폭 17.3m, 외벽 높이 3.1m, 내벽 높이 2.5m 내외로 계측된다.

(3) 南壁

① Ⅰ구간

동남회절부에서 남서쪽으로 진행하여 남문지1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상면은 포도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성벽의 상면은 남서쪽으로 진행할수록 폭이 좁아지는데 이는 경지정리과정에서 훼손된 결과로 판단된다. 남문지1의 북쪽 외벽부에 성벽과 직교하여 민묘 4기가 조성되었다. 남문지1에서 남벽 Ⅰ구간 상면으로 차량 진입로가 개설되어 성벽 상면은 파괴가 심한편이며 성벽 바깥쪽도 기존에 밭으로 이용되었으나 현재 객토하여 흙을 쌓아 놓았다. 이 구간은 남쪽의 칠중성과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다. 성벽의 규모는 지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기단부 폭 23m, 상면 폭 17.3m, 높이는 외벽 3.1m, 내벽 2.3m 내외이다.

② II구간

남문지1에서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성벽을 따라 성내부로 들어오는 주 출입로가 개설된 지점까지이다. 육계토성의 잔존성벽 중 가장 훼손이 심한 구간이다. 남문지1의 남쪽 성벽 상면에는 민묘 4기가 조성되어 절반 이상이 파괴되었고, 이곳에서부터 회절하는 구간은 완전히 멸실되어 그 흔적을 찾기 어렵다⁴⁸⁾. 현재는 구간의 남쪽 끝지점에 성 내부로 들어오는 길이 성벽의 상면을 파괴하고 개설되어 있으며, 그 옆으로는 외벽이 상당히 높게 잔존해 있다. 한편 기저부에는 강돌과 현무암이 일렬로 일정하게 연결되는 것이 보이는데 후대 석렬인지 기저부 성돌인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성벽의 규모는 대부분 파괴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지만 잔존구간을 기준으로 폭 15~20m, 높이는 외벽 6~8m, 내벽 4.5~5m이다.

③ III구간

이 구간은 성 내부로 들어오는 북동-남서방향의 도로의 시작점인 남문지 II에서 남서회절부까지이다. 성벽은 대부분 멸실되어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도로의 서쪽으로 사다리꼴 모양의 단면이 관찰된다. 이 단면은 남벽 II구간의 끝지점과 동일한 폭을 유지하고 있어 이곳에 성벽이 조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성벽의 상면은 포도밭으로 개간되어 대부분 훼손되었고 성벽 바깥쪽도 군용전차진지가 시멘트로 시설되어 있어 일부가 훼손되었다. 더구나 그 남쪽에 수해로 인해 120cm 깊이로 형성된 자연 배수로가 패여 있어 성벽 기반부의 훼손이 우려된다. 성벽의 규모는 기반부 폭 29.5m, 상부 폭 27m, 높이는 외벽 4.5m, 내벽 1~2m이다.

(4) 西壁

수문에서 북벽의 시작점인 군용 전차진지까지의 구간이다. 이 구간은 지난 96년 수해로 멸실되어 그 유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현재 서벽은 다시 제방으로 복구되었고, 그 앞쪽으로 대전차방어벽이 설치되어 있다. 서벽의 시작점에는 임진강으로 드나들 수 있는 수문이 설치되어 있다. 남벽 III구간에 남아 있는 잔존성벽을 따라 추정복원하였을 때 현재의 제방보다

48) 다만 현지 주민인 김정석(파주 적성면 주월리 거주, 76세)씨의 傳言에 의하면 1970년까지만 해도 이곳에 약간의 둔덕같은 것이 잔존해 있었으나 경지정리 과정에서 없어졌다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성벽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약간 안쪽으로 성벽이 돌아갔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복원된 제방의 안쪽으로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평행하게 이어져 있다. 서벽에서는 임진강과 사미천의 합류지점이 조망되며 인접한 가여울은 한국전쟁시 북한군 전차부대의 도하지점이었다.

(5) 內城壁

내성벽은 성내부 “가”지점과 “나”지점의 경계지점과 “라”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가”와 “나”지점의 경계지점에 있던 내성벽은 1996년 수해로 멸실되었다. 따라서 “라”지점의 성벽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하였다. 서쪽으로 임진강에 인접하여 내성벽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는 현재 병커가 설치되어 부분적으로 파괴된 것으로 판단된다. 동쪽으로 도로가 성벽을 관통하여 개설되었으며, 동쪽 끝부분에는 민묘 1기가 조성되어 있다. 도로를 기준으로 동쪽 성벽의 남쪽으로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었으며 내성벽 상부는 군용진지와 시멘트 구조물이 시설되어 훼손되었다. 잔존성벽의 규모는 길이 85m, 폭은 기반부 11~12m, 상부 5~6m, 높이 5~6m이다.

4) 城内部 現況

(1) “가”지점

현재 성내부를 북서-남동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도로의 북쪽에 해당되며 성내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다. 이 지점은 1996년 수해 후 경기도박물관에서 발굴한 지역이다. 조사결과 주거지 6기, 수혈유구 4기 등이 확인되었으며, 출토유물은 백제토기 및 철기류를 비롯하여 신석기시대 유물들이 다량 조사되었다. 발굴 직후 두께 1~2m 정도로 복토되어 경지정리가 된 상태여서 자세한 현상을 알 수 없다. 지점의 좌측으로는 제방 겸, 군병커가 시설되어 있고 그 내부로 제방과 평행하게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있다. 이 지점의 중앙으로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포도와 콩 등이 재배되고 있다. 동쪽의 동벽 I 구간 내벽으로는 계단식으로 논이 경작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낮아진다.

(2) “나”지점

성내부의 서쪽편에 해당되며 북서-남동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도로의 남서쪽과 내성벽의 북쪽에 위치한다. 이곳은 1996년 한양대학교 발굴조사지역과 1997년도 경기도박물관 조사지

역을 포함하는 곳이다. 현재 발굴된 지역은 복토되었고 그 위에는 포도와 콩이 경작되고 있으며, 중앙부에는 민묘 4기가 조성되어 있다. 지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며 지점의 동쪽에는 수로가 남북방향으로 조성되어 있다.

(3) “다” 지점

이곳은 성내부의 동남쪽에 해당되며 성을 동서로 양분하는 도로의 동쪽과 유적을 남북으로 나누는 도로의 남쪽편에 해당된다. 이 지점의 중앙에는 동쪽에서 서쪽방향으로 계단식의 논이 형성되어 있으며, 남벽의 안쪽으로는 포도와 콩이 재배되고 있다. 성벽 안쪽은 경지정리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삭토되었고, 서쪽 지점의 끝부분은 “나” 지점과 만나는 곳으로 수로가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흘러내려간다. 이 지점은 성내부에서 비교적 높은 지형을 유지하고 있어 유구의 유존가능성이 높은 지점이다.

(4) “라” 지점

성내부의 남서쪽에 해당되며 현재 시굴조사가 이루어지는 지점과 내성벽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이 지점의 중앙부에는 과거 군부대 시설물이 들어서 있었다가 철수한 후 대부분이 콩을 경작하고 있다. 이곳의 지형은 중앙의 군 연병장을 기준으로 서쪽이 낮은 지형이었으나 최근에 각종 건설폐기물을 매립하여 현재는 평탄지가 되었다. 시굴조사지역의 동남쪽도 낮은 지형인데 지금은 포도와 콩이 재배되고 있다. 포도밭의 동쪽은 저습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주변은 논으로 경작되고 있다. 이곳 또한 성내부에서 비교적 높은 평탄지에 속하며 97년도 경기도박물관 조사지역과 인접하여 있다.

(5) “마” 지점

이곳은 육계토성의 남서쪽 모서리에 해당되는 곳으로 성내부로 드나드는 주 출입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외옹성과 남문지 2를 포함하는 지점이다. 이 지점의 중앙부에는 시멘트 수로가 조성되어있으며, 주 출입로의 남쪽으로는 포도와 고구마가 재배되고 있다. 한편 이 지점의 서쪽에 위치한 포도밭 상면은 경지정리 과정에서 훼손되었으나 성벽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포도밭 동쪽 끝부분에 성벽의 단면으로 보이는 사다리꼴 형태의 유구가 확인된다. 이 사다리꼴 모양의 토루는 현재 주출입로와 도로 개설로 인해 성벽이 훼손된 남벽 I 구간과 연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포도밭의 서쪽 하단부에는 시멘트로 만들어진 군용진지가

구성되어 있다.

5) 施設物 現況

성내부의 시설물로는 추정 문지, 고대지, 추정 수구지, 추정 외옹성이 있으며, 문지는 동벽에 1개소와 남벽에 1개소씩이 확인되었다. 고대지는 북동벽 회절부와 동남벽 회절부에 각각 1개소가 시설되었으며, 수구지는 동벽에서 1개소가 관찰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외옹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추정 東門址

동벽 I구간과 II구간 사이 중앙에 위치한다. 현재는 농수로로 사용되어지고 있어 정확한 현상을 알기 어렵다. 다만 수로 부근에 비교적 큰 현무암과 강돌들이 바닥과 단면에 박혀 있는데 원래의 자연석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축성인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지형상 성 내부보다 외부가 높아 물은 성외부에서 내부로 흘러들어온다. 폭은 약 14m이며, 높이는 동벽 I구간 끝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5m 정도이다.

(2) 추정 南門址

남벽 I구간과 II구간 사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남벽 I구간 끝지점의 차량 진입로 개설과 경지정리로 인해 성벽의 일부가 파괴되었다. 문지의 내부와 외부는 모두 논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성 바깥쪽이 안쪽보다 높다. 현재 문지의 규모는 폭 33m, 높이 3m 내외이다.

(3) 北東 高臺址

북동회절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성벽과 시설물을 통틀어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망대지 기능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부는 표주박 형태이며 상면에 평탄지가 남아 있다. 이곳에서는 성내부 전지역과 북서쪽으로 임진강과 사미천의 합류지점이 한눈에 조망되어 관측장소로서는 천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회절부를 중심으로 콘크리트 병커와 참호가 설치되어 있어 대부분 훼손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망대지 상부의 폭은 20×10m, 잔존높이는 6~7m 정도이다.

(4) 東南 高臺址

남동회절부의 상면에 자리하고 있으며 성의 남쪽부분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성내 전지역이 조망되어 망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상면은 인삼밭으로 사용되고있어 정밀한 조사를 할 수 없었으나 상면에 20×20m 정도의 방형에 가까운 평탄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망대지의 높이는 약 4.3m 정도이다.

(5) 추정 水口址

동벽 I구간과 II구간 사이의 현 추정 동문지 지역이다. 지형상 성외부가 내부보다 높아 물이 외부에서 내부를 흘러 들어온다. 수구에 대한 인위적인 축조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나 그 당시에도 물이 흘러내려 수구를 시설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물은 성외부에서 내부로 흘러들어 동벽 II구간의 내벽을 타고 약 5m 정도를 흘러 남서쪽으로 회절하여 거의 일직선으로 “다”지점과 “라”지점 사이를 관통하여 임진강으로 흘러들어 간다.

(6) 추정 外甕城

남벽 II구간에 위치하며 현재 성내부의 주 출입로로 사용되는 도로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다. 형태는 남벽에 연접하여 반원의 형태로 남서쪽으로 뻗어가고 있다. 그러나 웅성의 끝부분과 내부 및 상면은 훼손되어 그 유지를 알기 어렵다. 추정 외웅성의 형태와 그 위치를 고려해 볼 때 서쪽에 문지가 자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웅성의 규모는 높이 5~6m이며, 폭은 훼손되어 알 수 없다.

VII. 綜合考察



여 백

VII. 綜合考察

육계토성에 대한 정밀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육계토성은 외옹성을 지닌 토축의 평지성임이 확인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노출된 기단부를 조사한 결과 2~4단 정도의 기단석을 쌓고 그 위에 성토하여 축성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굴조사 결과 주거지 15기, 수혈유구 11기, 용도 미상 유구 1기 등 총 27개의 유구가 확인되어 96·97년도 조사지역과 연계하여 육계토성의 공간구성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이 장에서는 조사결과에 따른 유구의 기본적인 현황에 대하여 검토하고 출토유물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遺構에 대한 檢討

1) 試掘調査

이번 시굴조사는 총 11개의 시굴트렌치에서 ‘凸’ 자형 주거지 1기를 포함한 주거지 15기와 수혈유구 11기, 용도 미상 유구 1기가 조사되었다. 다만 유구간의 중복상태가 심하고 트렌치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조사하여 유구의 성격별 개수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조사자 입장에서 각 트렌치별 유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유적 전체를 이해하는데 유리하리라 판단된다. 각 트렌치별 유구 현황은 【표 8】과 같다.

유구의 하강조사는 N3W1과 N4W1 트렌치의 유구 가운데 윤곽선이 명확한 2기의 원형 수혈유구와 1기의 장방형 주거지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N3W1 트렌치의 수혈유구는 깊이 110cm, 지름 220cm로 벽체는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았으며, 바닥은 작은 강자갈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또한 N4W1 트렌치의 원형 수혈유구는 벽체와 바닥에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물은 내부퇴적토에서만 소량 수습되었다. 이로 볼

【표 8】육계토성 시굴조사 유구 현황

위치	유구번호	평면형태	성격	계	위치	유구번호	평면형태	성격	계
N0W1	①	?	주 거 지	15	N0W1	①	타원형	수 혈 유 구	11
N1E1	②	방형(?)				②	타원형		
	③	방형			N1E1	③	타원형		
	④	방형(?)				④	부정형		
	⑤	방형(?)				⑤	원형		
	⑥	‘ㅁ’ 자형			N2E1	⑥	원형		
N2E1	⑦	방형				⑦	원형		
	⑧	장방형			N3W1	⑧	원형		
N2E1	⑨	?				⑨	방형		
N2W1	⑩	방형(?)			N4W1	⑩	원형		
	⑪	장방형			N4E1	⑪	방형		
N4E1	⑫	?							
	⑬	?							
N5E1	⑭	?							
	⑮	?							

때 이번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수혈유구는 저장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⁴⁹⁾. 조사된 유구현황은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육계토성 유구 조사 현황

위치	유구번호	평면형태	성격	시설	출토유물
N3W1	⑦	원형	수혈유구	·	타날문토기편
N3W1	⑪	장방형	주거지	·	타날문토기편
N4W1	⑩	원형	수혈유구	·	대옹편 호 구연부편

2) 地表面調査

육계토성은 임진강 남안에 인접한 충적지의 낮은 구릉성 대지(해발 19~21m)에 입지한 토축성이다. 서벽은 유실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지만 잔존 남벽부와 연결하여 대략적인 평면형태를 추정하여 보았을 때 북동-남서방향을 장축으로 하는 장방형으로 판단된다⁴⁹⁾. 또한 남쪽으로 직선거리 3km 지점에 칠중성이 자리하고 있어 고대성곽의 특징인 평지성과 산성의 세트관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단면은 전체적으로 서쪽과 동쪽이 높으며 성

【표 10】 육계토성 성벽 현황

(단위 : m)

구분	구간	잔존 길이	폭	높이	시설물
북벽		170 (추정길이)	.	.	.
		90	기단부: 12 상 부: 8.5	외 벽: 9 내 벽: 3	북동 고대지
동벽	I 구간	145	기단부: 26~28 상 부: 11~15	외 벽: 3.5~4 내 벽: 5~6	추정 수구지
	II 구간	142	기단부: 6.5~24 상 부: 5.5~18	외 벽: 1.5~3 내 벽: 1.5~3	추정 동문지
	III 구간	120	기단부: 23 상 부: 17.3	외 벽: 3.1 내 벽: 2.5	동남 고대지
남벽	I 구간	120	기단부: 23 상 부: 17.3	외 벽: 3.1 내 벽: 2.3	추정 남문지
	II 구간	115	기단부: 20 상 부: 15	외 벽: 6~8 내 벽: 4.5~5	.
	III 구간	167	기단부: 29.5 상 부: 27	외 벽: 4.5 내 벽: 1~2	추정 외옹성
서벽	수해로 유실				
내성벽	.	85	기단부: 11~12 상 부: 5~6	외 벽: 5~7 내 벽: 5~6	.

49) 이런 형태와 규모의 수혈유구는 96·97년 조사에서도 14기가 확인된다. 수혈유구는 토기편이 출토된 곳은 저장용, 소토가 집중적으로 매몰된 구덩은 폐기용으로 용도를 구분할 수 있다(京畿道博物館, 1999, 앞의 책).

50) 이와 유사한 입지와 형태의 토성으로 한강남안의 풍납토성과 청주의 정북동토성이 있다(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999, 『청주 정북동토성 I』;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風納土城 I』).

의 가운데가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이다. 성의 둘레는 외성벽 1,858m이고, 내성벽은 85m 가량 잔존해 있으며, 면적은 213,985㎡이다.

지표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성벽은 경지정리와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해 그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성벽의 폭은 기단부 29.5m, 상부 5~6m이며, 높이는 외벽 6~8m, 내벽은 1.5~6m 가량 된다. 성벽의 축조기법을 살펴보면 2~4단 정도의 치석된 장방형의 돌을 이용하여 기단부를 조성하고 그 위에 성토하여 축성하였다. 기단부의 성돌은 화강암과 현무암이 혼용되었다. 정확한 축조수법은 성벽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성 토법과 판축법을 구간에 따라 혼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내부의 시설물은 추정 문지 2개소, 고대지 2개소, 추정 수구지 1개소, 추정 외옹성 1개소가 있다. 특히 남문지 2에서 확인된 추정 외옹성은 남벽에서 반원형의 형태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육계토성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시설물 현황은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육계토성 시설물 현황

(단위 : m)

시설물	위치	규모	특징	비고
문지	추정 동문지	동벽 I 구간과 II 구간 사이 폭 : 14	수구시설	.
	추정 남문지	남벽 I 구간과 II 구간 사이 폭 : 33 높이 : 3	.	경지정리 과정에서 훼손
고대지	북동 망대지	북동회절부 폭 : 5~8 높이 : 6~7	표주박형태 성내외부 조망	군용병커가 지하에 시설
	남동 망대지	남동회절부 높이 : 6~7	인삼밭으로 개간 성내외부 조망	철중성 관측됨
추정 수구지	수구지동벽 I 구간 · II 구간사이	폭 : 14	성 외부에서 내부로 물이 흐름	.
추정 외옹성	남벽 II 구간	높이 : 5~6	주출입로를 감싸며 반원상으로 돌아감	성벽 상면은 훼손

2. 遺物에 대한 檢討

이번 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은 모두 토기편으로 총 180점이다. 즐문토기와 경질무문토기 비롯한 백제토기편이 수습되었다. 백제토기가 135점으로 전체 출토량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각 트렌치별로 수습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표 12】와 같다.

【표 12】 토기출토현황

번호	출토지		수량	비율
1	N0W1	교란층	22	12.2
2	N1W1	교란층	2	1.1
3	N2W1	흑회색사질층	11	6.1
		암갈색사질층	3	1.7
4	N3W1	교란층	1	0.6
		원형	1	0.6
		장방형	6	3.3
5	N4W1	원형수혈유구	3	1.7
6	N1E1	교란층	17	9.4
		유구내부	16	8.9
7	N2E1	교란층	7	3.9
		유구내부퇴적층	17	9.4
8	N3E1	유구내부퇴적층	4	2.2
9	N4E1	교란층	2	1.1
10	N5E1	교란층	2	1.1
11	기타토기		21	11.7
			7	3.9
			17	9.4
			21	11.7
합계			180 (100)	

즐문토기는 21점으로 구연부 1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체부편이다. 대부분 IV층인 암갈색사질층과 유구 내부퇴적토 그리고 지표에서도 일부 채집되었다. 매우 작은 파편이라 전체적인 문양을 알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다만, 잔존하는 편으로 보아 다치구로 시문한 삼각

집선문이 주류를 이루며 구연부아래 방형의 점열문이 압날되기도 하였다. 밝은 황갈색을 띠며 태토에는 주로 석영과 운모, 가는 석립 등이 혼입되었다. 이는 대체로 한강유역의 암사동⁵¹⁾ 출토 즐문토기류와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근의 연천 삼거리유적⁵²⁾에서도 이와 유사한 즐문토기가 유구와 함께 발견되었으며 시기는 신석기시대 전기인 궁산1기에서 중부1기의 사이의 어느 한 시점으로 보았다⁵³⁾. 【표 12】를 보면, 각 트렌치에서 출토된 유물의 수는 20점 내외이며 교란된 층위에서 확인되었다. 수습된 토기는 완형은 없고 각 부위의 일부만 남아있어 기종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구연과 저부 등을 보고 기종을 추정해보면, 호·옹류가 대부분이고 심발형토기와 장란형토기 등이 소량 확인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저장용기이나 자비용기 같은 실생활용기만이 있으며 고배나 삼족기 같은 기종은 찾아볼 수 없다.

‘凸’자형 주거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된 N1E1과 N2E1에서 총 33점의 토기가 수습되었다. 승문·격자문·선문 등이 시문된 연질의 동체부편이 대부분이며 직구호편도 소량 확인된다. N4W1에서는 원형의 수혈유구가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서 호의 구연부와 대형 회청색 경질 옹의 동체부로 추정되는 편이 출토되어 저장유구로 판단된다. 또한, N4E1에서 출토된 연질의 토기편에는 점토띠를 붙여 돌대와 같이 만들었는데, 이는 기대라기보다는 연통이나 다른 용도의 토기로 추정된다. N5E1에서 수습된 구연에는 둥근 구멍이 뚫려있는데,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이는 다른 백제유적에서는 확인된 적이 없어 특징적이다.

문양은 동체부에 남아있으며 종류와 각 문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3】타널문 종류와 비율

문양	승문	선문	선문+횡선	격자문	격자문+횡선	사격자	기타	합계
개체수	4	10	4	67	1	1	3	90
비율	4.5	11.1	4.5	74.4	1.1	1.1	3.3	100

51) 國立中央博物館, 1994·1995, 『岩寺洞』Ⅰ.

_____, 1999, 『岩寺洞』Ⅱ.

52) 연천 삼거리유적에서는 경기북부지방 처음으로 신석기시대 주거지 6기가 발견되었으며 350여점에 이르는 즐문토기가 출토되었다(경기도박물관, 2002, 『연천삼거리유적』).

53) 경기도박물관, 2002, 앞의 책, 158쪽.

【표 13】을 보면, 격자문이 7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10점 이하로 적은 양에 해당된다. 격자문은 소형과 대형 기종에 구분없이 타날된 것으로 보아 이같은 문양이 선호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타에서는 선문과 격자문이 같이 나타는 편이 있어 각 부위에 다른 문양을 시문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외면에 명문이 새겨진 편이 NOW1 교란층에서 출토되었다. 파편으로 남아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으나 ‘卍’과 같이 보인다. 형태로 보아 한자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데, ‘部’자를 약자로 음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토기는 회백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며 기벽이 얇고 외면에는 격자문을 시문한 후 물손질을 가하였다.

시굴조사라는 한계와 수습된 유물이 적어 자세한 관찰은 힘들다. 다만, 격자문이 타날된 심발형토기, 직구호 등으로 볼 때 유적의 상한은 대략 3세기를 전후한 시기부터로 볼 수 있으며 경질무문토기가 함께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더욱 소급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경질화된 대형 옹편이 있는 것을 볼 때 4세기 이후에도 계속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토기외에도 고구려토기가 확인되었는데, 본고에서는 기존조사에서 출토된 것을 포함한 것으로 17점을 선별하였다. 견부가 발달된 호와 장동호, 그리고 동이편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이는 손에 묻어날 정도로 연질소성되었으며, 호는 내외면을 윤기나게 마연하였다. 마연은 건조된 상태에서 비교적 단단하고 매끄러운 도구로 토기를 문질러서 정면하는 것으로 고구려 토기의 특징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고구려토기 중 실제 마연한 토기의 수는 많지 않은데⁵⁴⁾, 육계토성에서는 마연으로 정면된 고구려토기편이 다수 확인되어 주목된다. 또한, 동이의 안바닥에 격자문이 타날된 흔적이 관찰되며 동체부에는 횡선을 돌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고구려토기가 발견됨에 따라 백제 이후 고구려에 의해 일정기간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다른 시기의 유물이 층위 구분없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유적이 임진강의 만곡부에 위치해 잦은 수해를 입기 때문인 것을 추정된다. 추후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유적의 성격이 보다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54) 梁時恩, 2003, 『漢江流域 高句麗土器의 製作技法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1쪽.

여 백

VIII. 調査成果와 意義



여 백

VIII. 調查成果와 意義

이번 지표 및 시굴조사의 목적은 그동안 개략적인 보고에 그쳤던 육계토성에 대한 범위와 규모, 성벽, 시설물 등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통하여 토성의 현황과 구조를 파악하고, 군부대 이전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유구의 분포범위를 확인하여 앞으로 체계적인 학술조사 방안을 세우고 유적의 장기적인 보존정비대책을 수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지표조사 지역이 대부분 경작지화 되어 있고, 성벽 상면은 인삼밭으로 사용되고 있어 좀더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시굴조사지역 역시 토지소유주와의 마찰로 인해 정상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지금까지 실시된 지표조사와 시굴조사 결과 새롭게 드러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육계토성 내부 시굴조사에서 총 11개의 트렌치 조사를 실시한 결과 N2W1, N3W1, N5W1 트렌치를 제외한 모든 트렌치에서 '凸' 자형 주거지를 비롯한 주거지 15기, 수혈유구 11기 등이 조사되었다. 유구는 후에 군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상층의 대부분이 교란되었지만 조사지역 서쪽의 하층 유구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추정문지 2개소, 고대지 2개소, 수구지 1개소, 추정외옹성 1개소 등의 성내 시설물이 조사되었으며, 남벽부가 잔존해 있는 것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기존조사에서는 북벽 일부와 동벽 및 남벽 일부구간만 잔존해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번조사를 통해 현재 성내부의 주출입로 서쪽에 성벽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수해로 유실되어 지금까지 불확실했던 서벽의 위치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되어 향후 복원·정비계획 수립에 단초를 제공하였다.

셋째, 유물은 경질무문토기를 비롯하여 백제 한성기에 사용된 저장용 생활용기인 호와 용이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 기대편과 동이류 및 완·발류 등이 출토되었다. 기존의 조사와 비교해 볼 때 기존의 구성은 거의 유사하나 장란형토기와 심발형토기 등의 기종이 비교적 적

계 출토된 차이점이 있다. 또한 지난 96, 97년 조사에서는 즐문토기편이 다수 출토되어 신석기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시굴조사에서도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신석기 유물이 소량 출토되어 유적의 존재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또한 기존 조사 유물에 대한 재정리 과정에서 한양대 2호 주거지 출토 고구려 유물과 같은 장동호·대상파수호·철기류·기와 등의 고구려 유물이 다수 확인되었는데 이 성곽이 백제 이후 고구려에 의해 일정기간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Ⅸ. 整備・復原을 위한 調査團 提言



여 백

IX. 整備・復元을 위한 調査團 提言

지금까지 육계토성은 3차례의 발굴조사와 이번 지표 및 시굴조사 결과 많은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어 경기북부지역 고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규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임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특히 성내에서 발견된 수많은 백제 유물과 고구려 유물은 이곳이 삼국 항쟁의 중심지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유적의 정밀조사와 보호대책은 매우 미약한 편이고 현재도 경지정리와 각종 농작물의 재배 및 민묘 조성으로 인한 인위적인 훼손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추후 지속되어야 할 유적의 보존과 정비방향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파주 육계토성을 보호하고 이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적을 시급히 문화재로 지정하여야 한다. 현재 파주시는 남북교류의 중간기지와 수도권 인구 분산에 따른 신도시 건설로 개발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은 불가피하겠지만 이미 알려진 문화재를 개발의 위협에 노출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문화재지정에 따른 유적의 현상보존과 정비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성벽 상면의 각종 작물 재배를 위한 경작지화와 성벽 내외면의 민묘 조성, 군용 시설물의 설치로 인해 성벽과 매장유구의 인위적인 파괴가 가속화 되고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구체적인 유적의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셋째, 육계토성은 임진강의 남안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되어왔다. 군사시설로 인한 파괴는 파주·연천일대의 고대 성곽들이 겪는 공통적인 수난임에는 분명하나, 군사적인 훼손을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유적과 인접한 칠층성은 참호와 대피호 구축으로 인해 대부분 파괴되었고 육계토성 또한 지하통로, 병커 등에 의해 무수히 교란된 상태이다. 이와 같은 군사시설에 의한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軍 당국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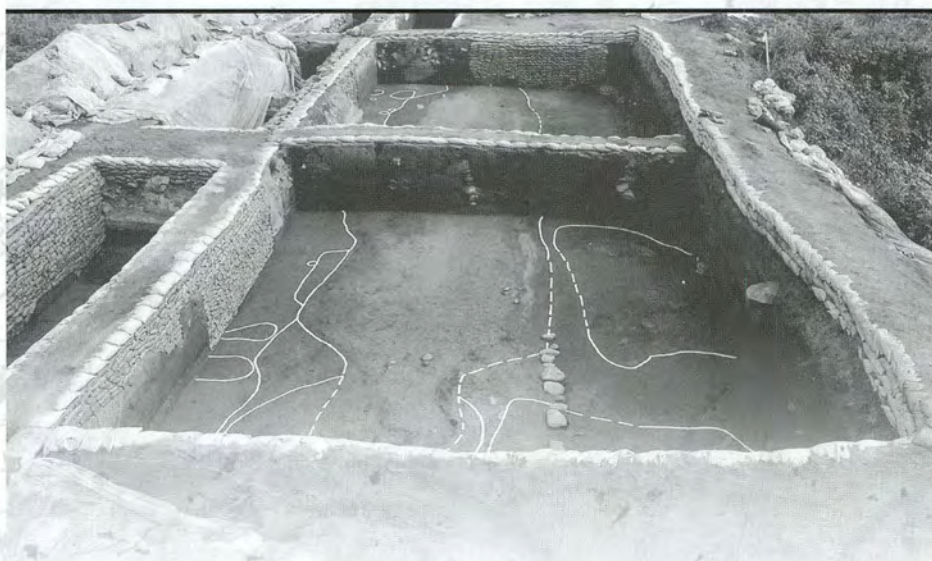
협의를 통한 광역적 유적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유적에 자리 잡은 군시설을 이전하는 문제라든가 발굴된 유적에 또다시 군사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통일 이후를 대비한 “문화친화적”인 방어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당국과 군은 유적 보존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벽과 성내부를 포함한 유적 주변의 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성벽은 일부 국유지로 되어 있으나, 성내부 경작지는 대부분 개인 소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적의 피해나 보수소요 발생시 임의적인 조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당국은 장기적인 예산대책을 세워 매입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육계토성과 칠중성에 대한 정비를 가시화시키고 파주·적성지역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테마답사, 체험답사 등의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파주시가 가지고 있는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문화유적과 연계한 지역 마케팅에 응용한다면 성공적인 지역개발사례가 될 것이다. 이 유적을 포함하여 주변에 발굴조사된 보루유적과 연계하여 탐방로를 조성하고 파주지역 관광상품과 연계한다면 삼국통일의 중심 무대였던 파주지역의 역사를 홍보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파주시민들에게 유적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주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킬 전향적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유도할 방안으로 유적정비에 따른 지속적인 지역개발의 마스터플랜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寫 眞



여 백



사진 1) 육계토성 전경(항공사진)



사진 2) NOW1 트렌치 유구 노출 상태



사진 3) N1W1 트렌치 전경



사진 4) N2W1 트렌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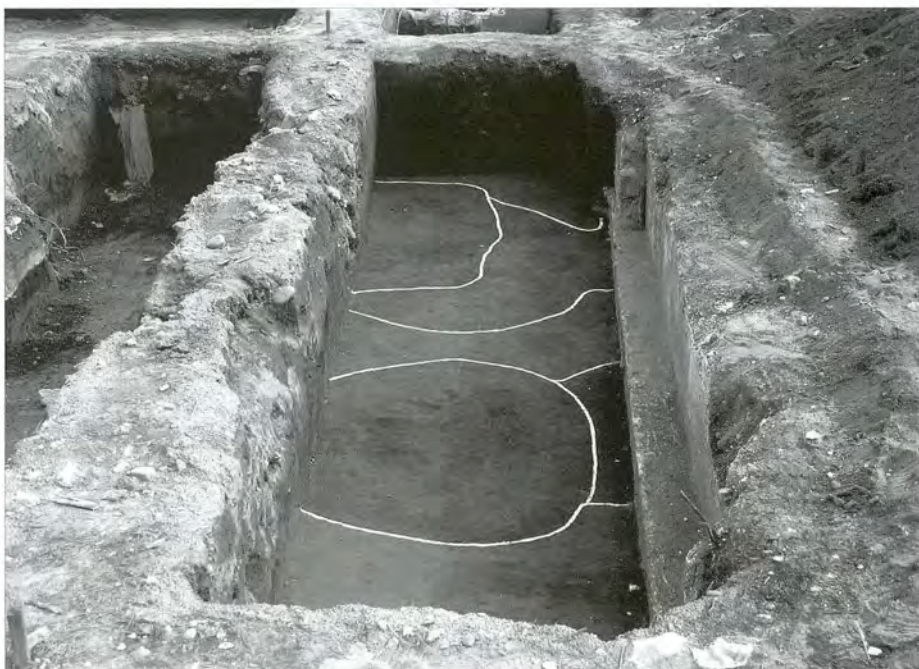


사진 5) N3W1 트렌치 유구 노출 상태



사진 6) N3W1 트렌치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



사진 7) N4W1 트렌치 유구 윤곽선 노출 상태



사진 8) N4W1 트렌치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



사진 9) N5W1 트렌치 전경



사진 10) N1E1 트렌치 유구 윤곽선 노출 상태



사진 11) N2E1 트렌치 유구 윤곽선 노출 상태



사진 12) N3E1 트렌치 유구 윤곽선 노출 상태



사진 13) N4E1 트렌치 유구 윤곽선 노출 상태



사진 14) 조사지역 수해 모습



사진 15) 북벽 전경



사진 16) 동벽 I 구간 전경



사진 17) 동벽 II 구간 전경



사진 18) 동벽 III 구간 전경



사진 19) 남벽 I 구간 외벽 전경



사진 20) 남벽 II 구간 전경



사진 21) 남벽 III구간 전경



사진 22) 서벽 전경



사진 23) 내성벽 전경



사진 24) 성내부 "가"지점 전경



사진 25) 성내부 "나"지점 전경



사진 26) 성내부 "다"지점 전경



사진 27) 성내부 "라"지점 전경



사진 28) 성내부 "마"지점 전경



사진 29) 추정 동문지 전경(항공사진)



사진 30) 추정 남문지 전경(항공사진)



사진 31) 북동 고대지 전경



사진 32) 동남 고대지 전경



사진 33) 추정 수구지 전경(항공사진)



사진 34) 추정 외웅성 전경



사진 35) 현장설명회 광경 1



사진 36) 현장설명회 광경 2



사진 37) NOW1 트렌치 출토 토기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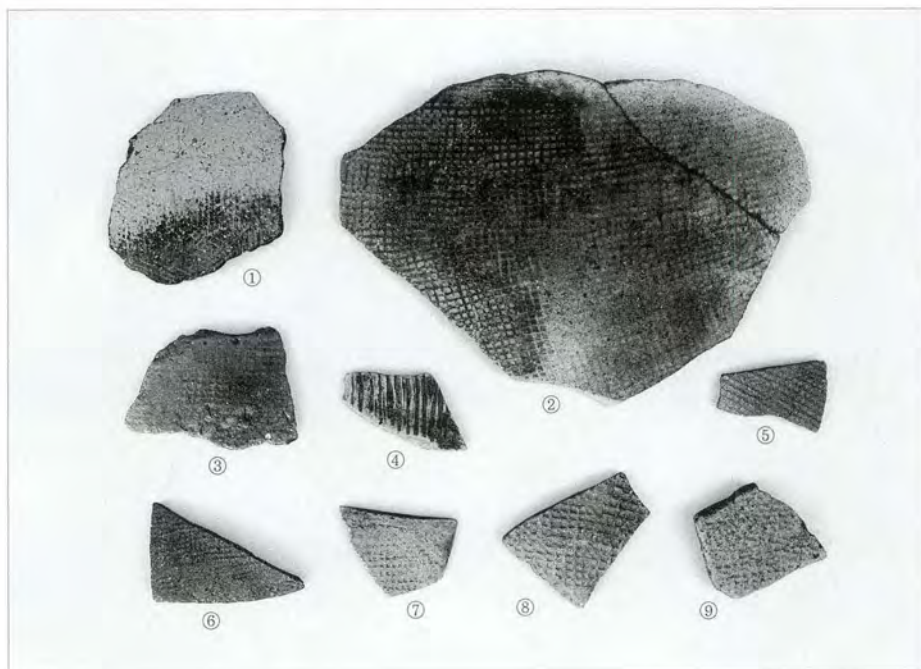


사진 38) NOW1 트렌치 출토 토기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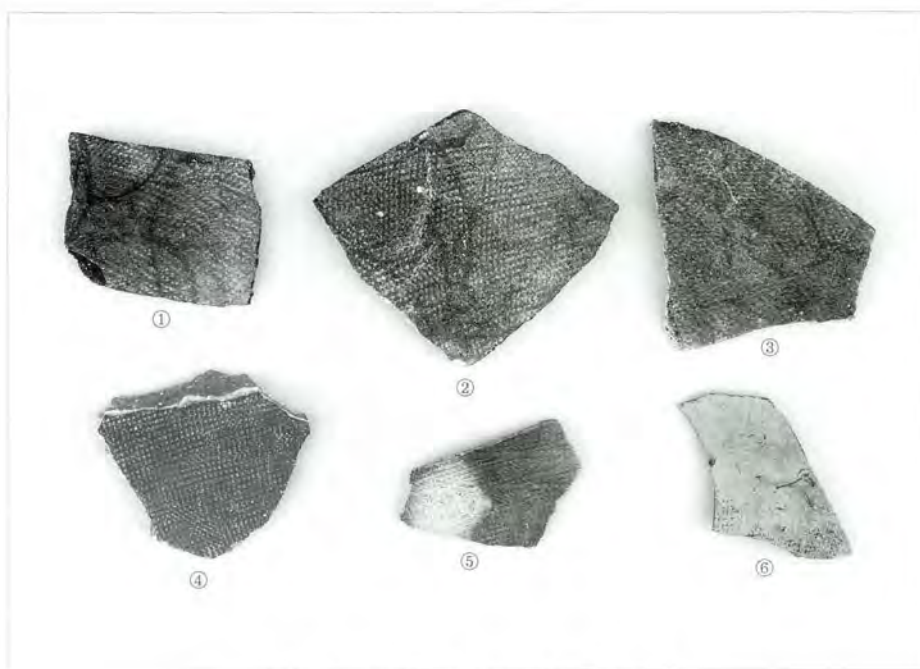


사진 39) NOW1 트렌치 출토 토기류 3



사진 40) N1W1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사진 41) N2W1 트렌치 흑회색 사질층 출토 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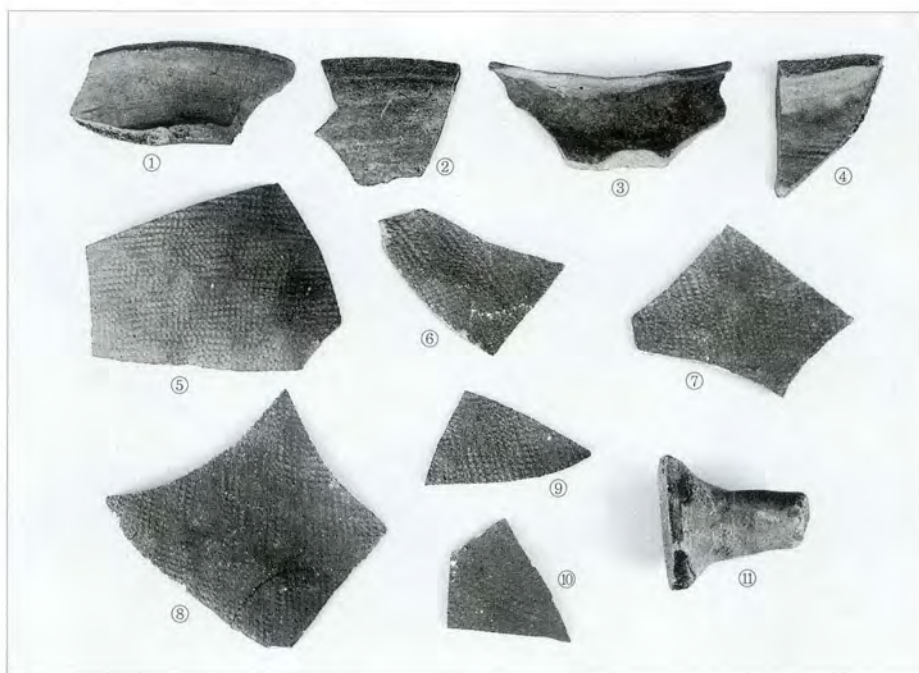


사진 42) N2W1 트렌치 암갈색 사질층 출토 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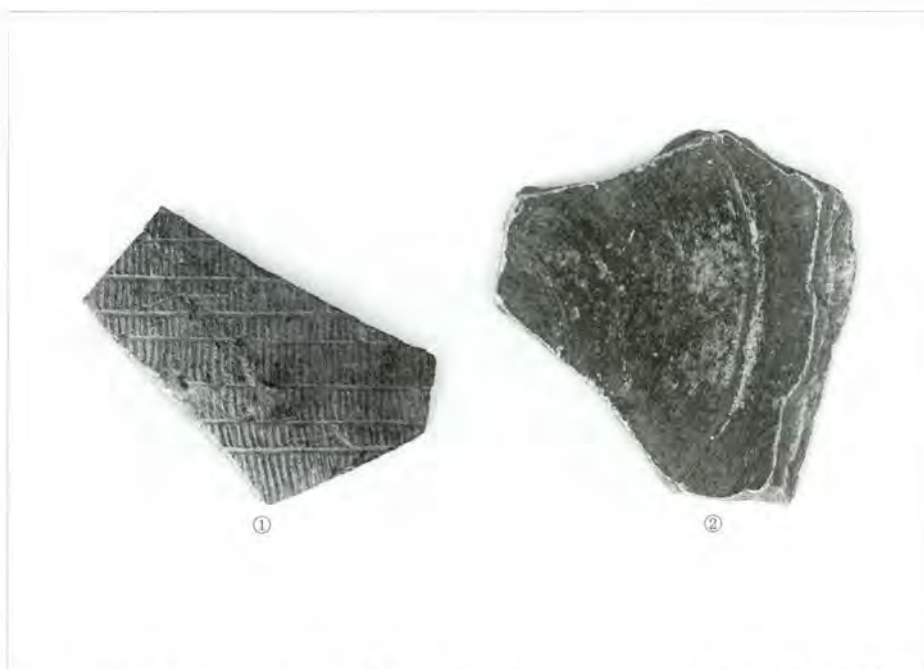


사진 43) N3W1 트렌치 교란층 원형유구 출토 토기류 (교란층①, 원형유구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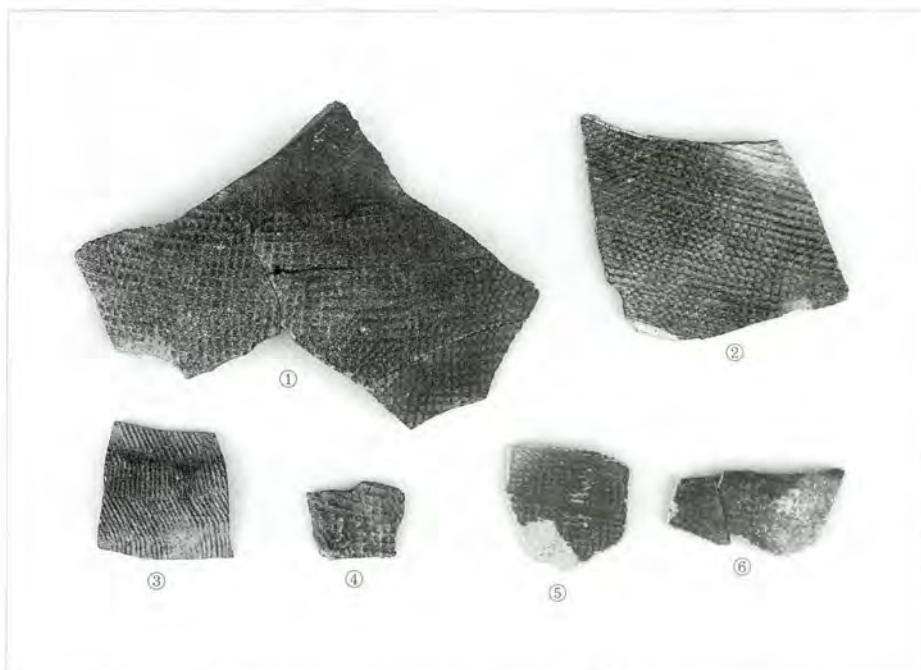


사진 44) N3W1 트렌치 장방형유구 출토 토기류



사진 45) N4W1 트렌치 원형수혈유구 출토 토기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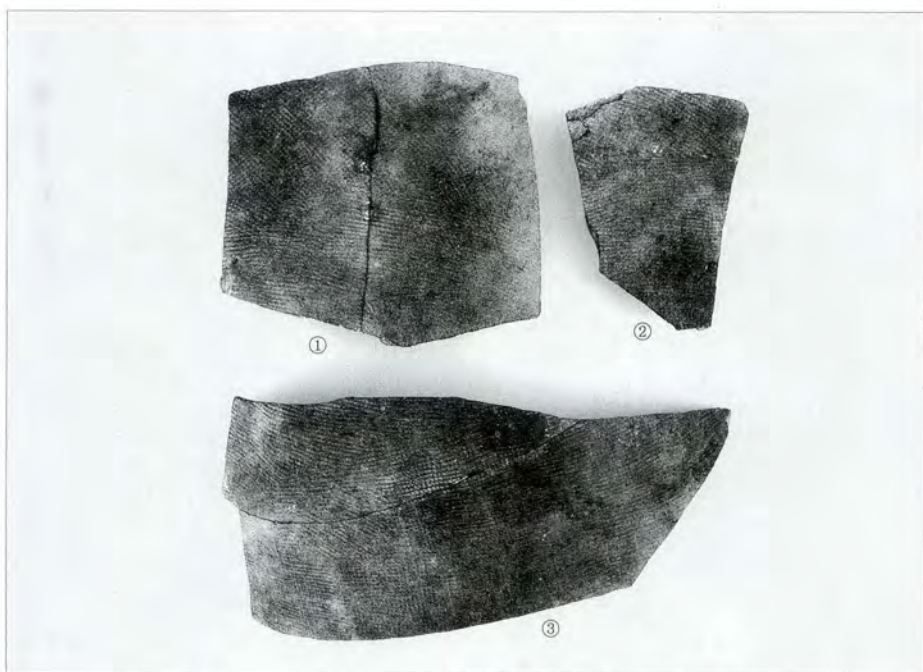


사진 46) N4W1 트렌치 원형수혈유구 출토 토기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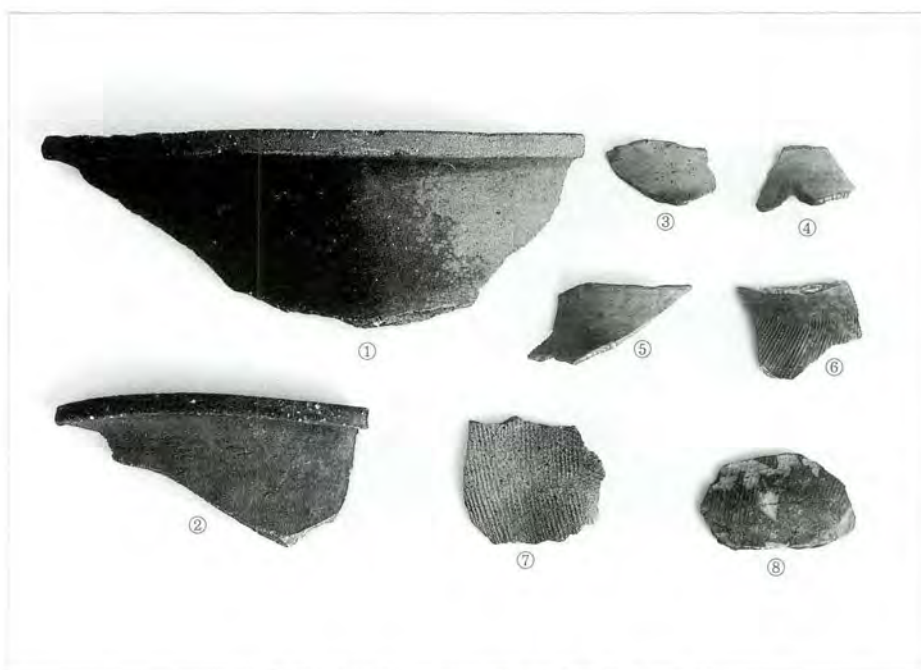


사진 47) N1E1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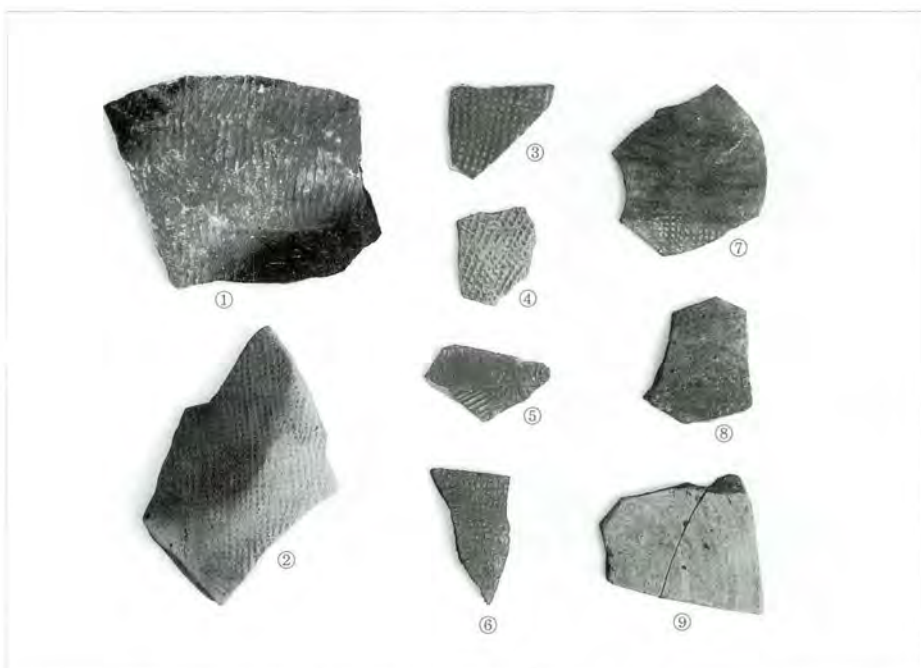


사진 48) N1E1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2



사진 49) N1E1 트렌치 유구내부퇴적층 출토 토기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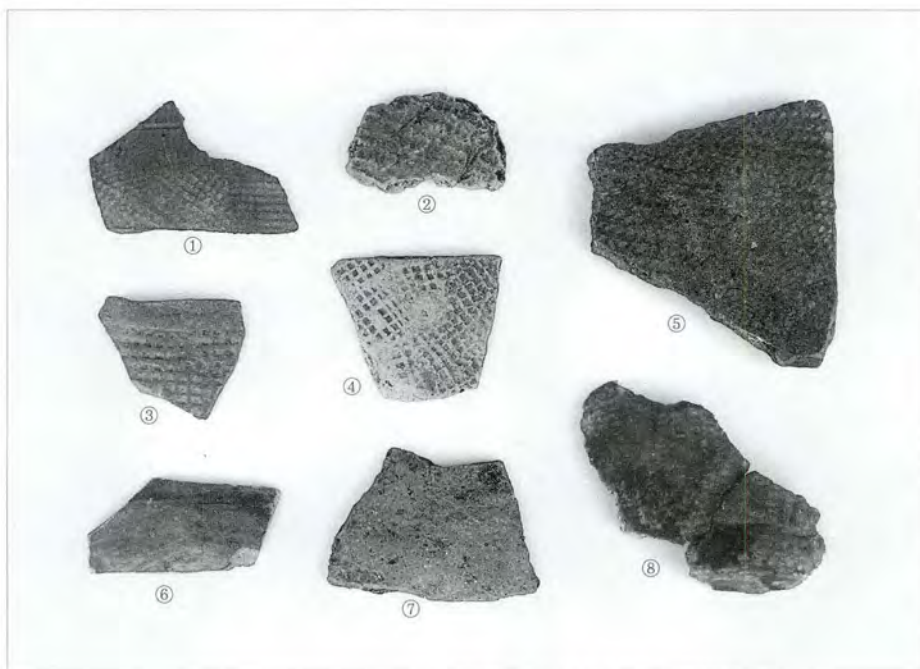


사진 50) N1E1 트렌치 유구내부퇴적층 출토 토기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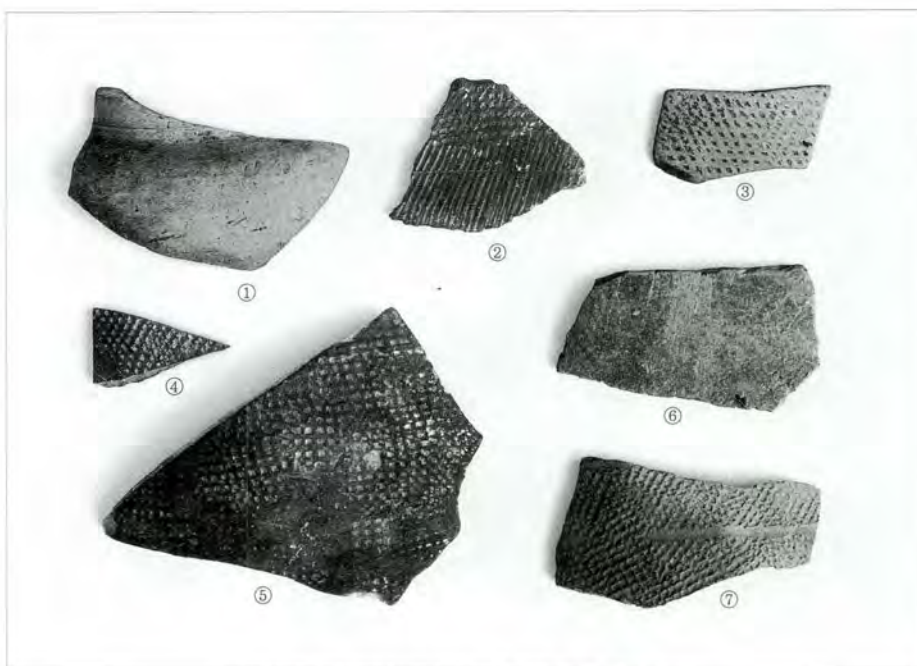


사진 51) N2E1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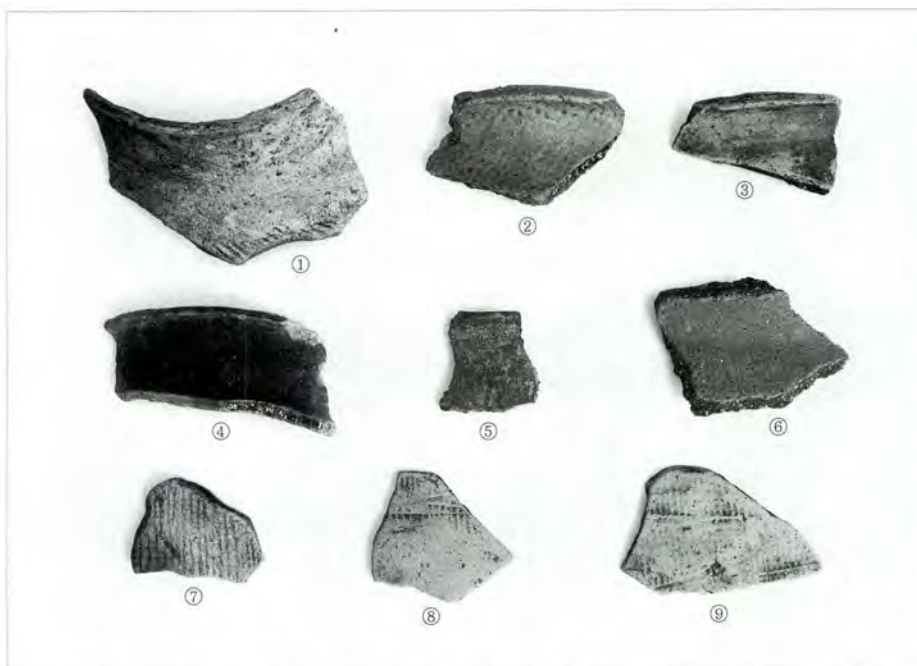


사진 52) N2E1 트렌치 유구내부퇴적층 출토 토기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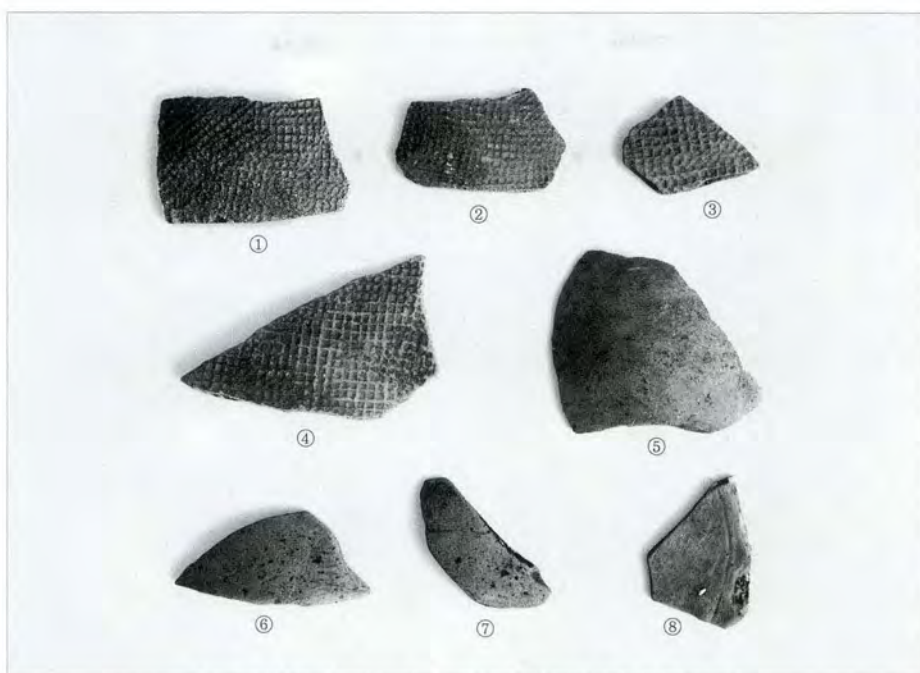


사진 53) N2E1 트렌치 유구내부퇴적층 출토 토기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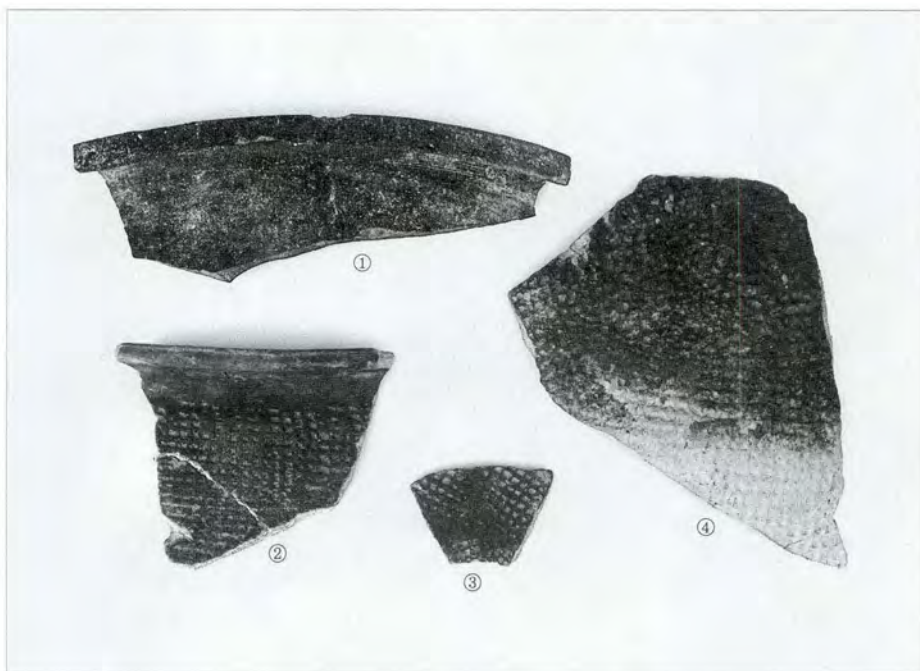


사진 54) N3E1 트렌치 유구내부퇴적층 출토 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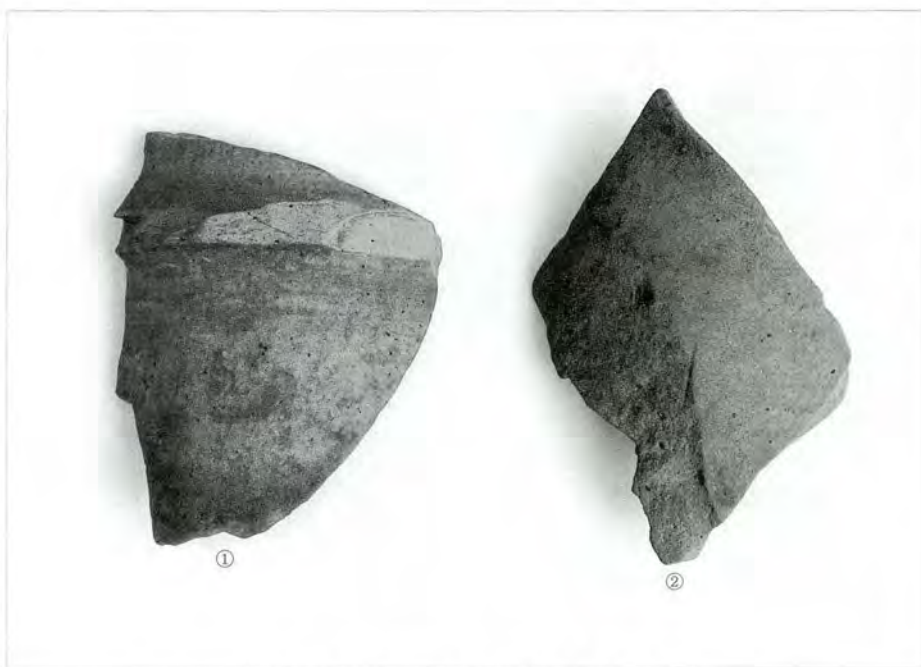


사진 55) N4E1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사진 56) N5E1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사진 57) N5E1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구연부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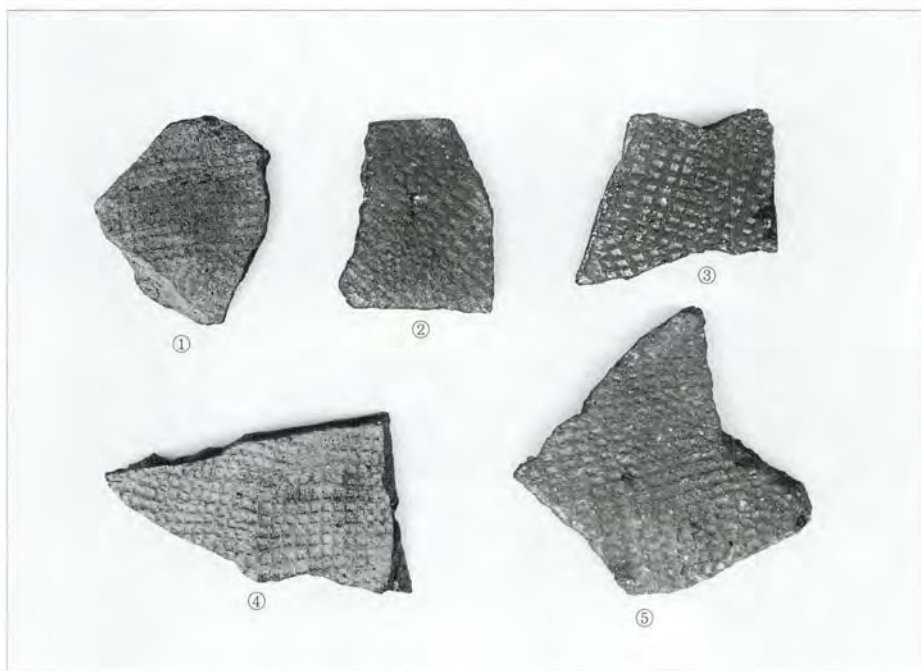


사진 58) 지표수습 토기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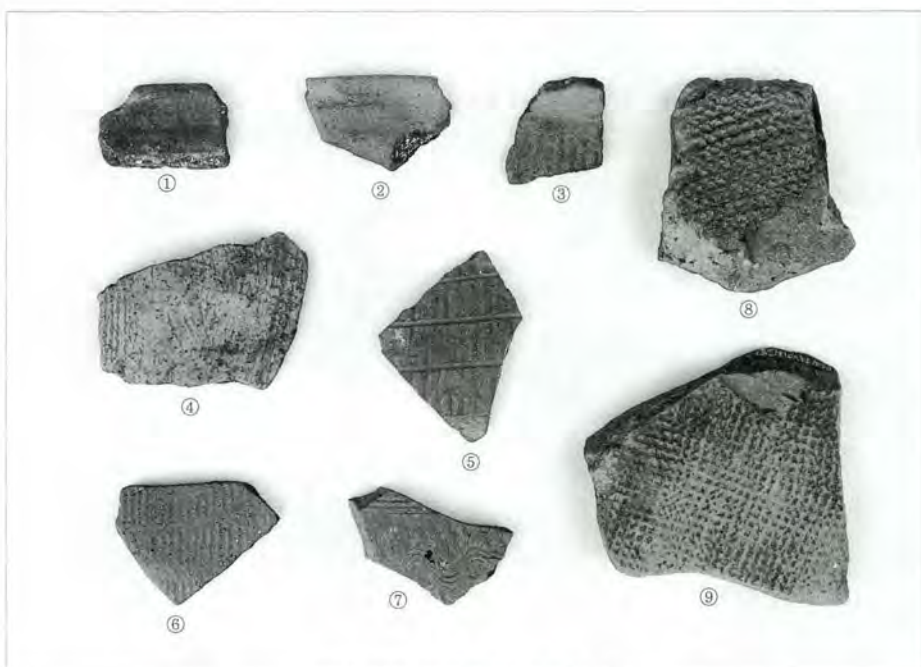


사진 59) 지표수습 토기류 2



사진 60) 지표수습 토기류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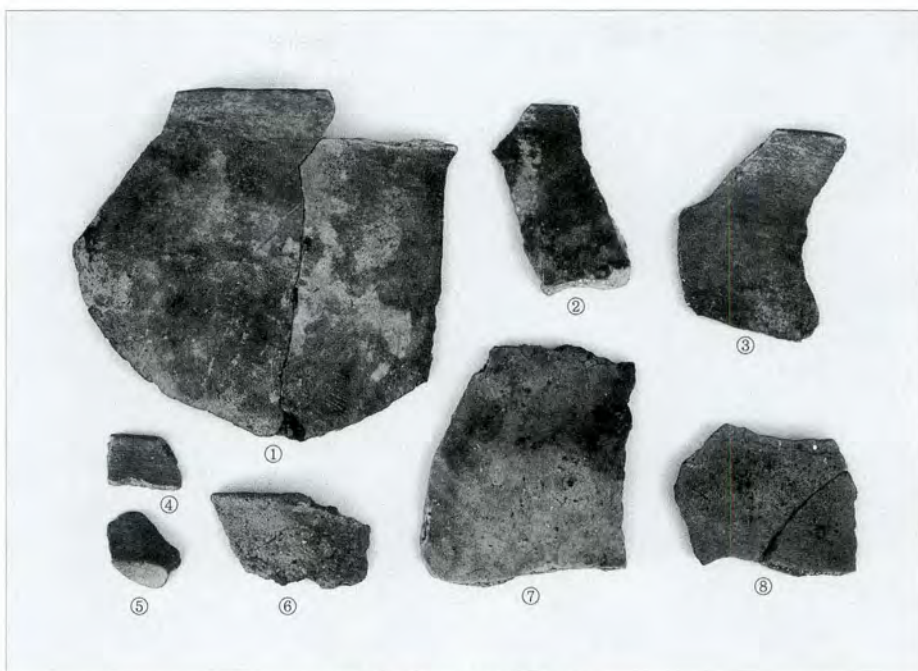


사진 61) 경질무문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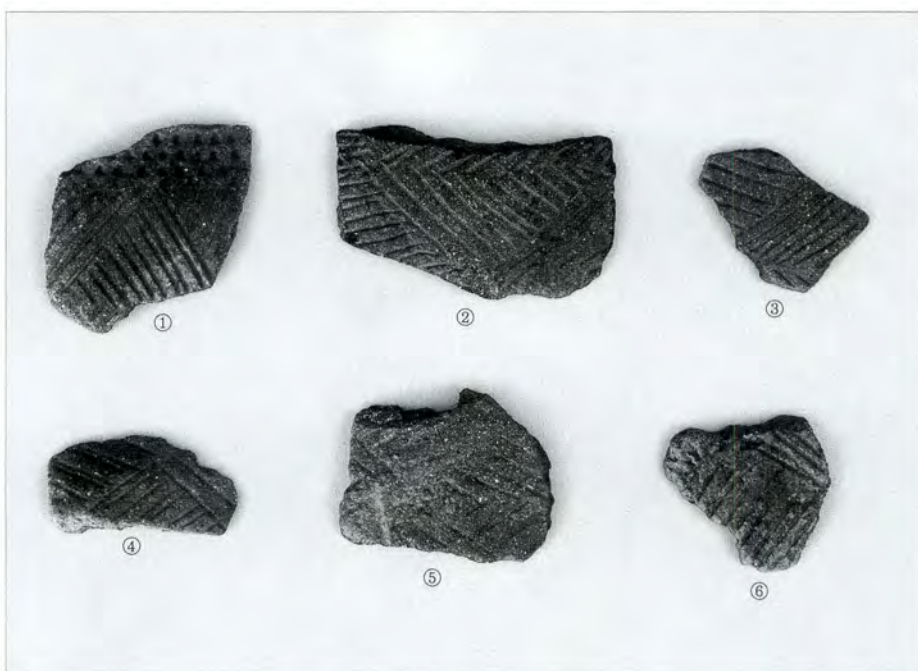


사진 62) 즐문토기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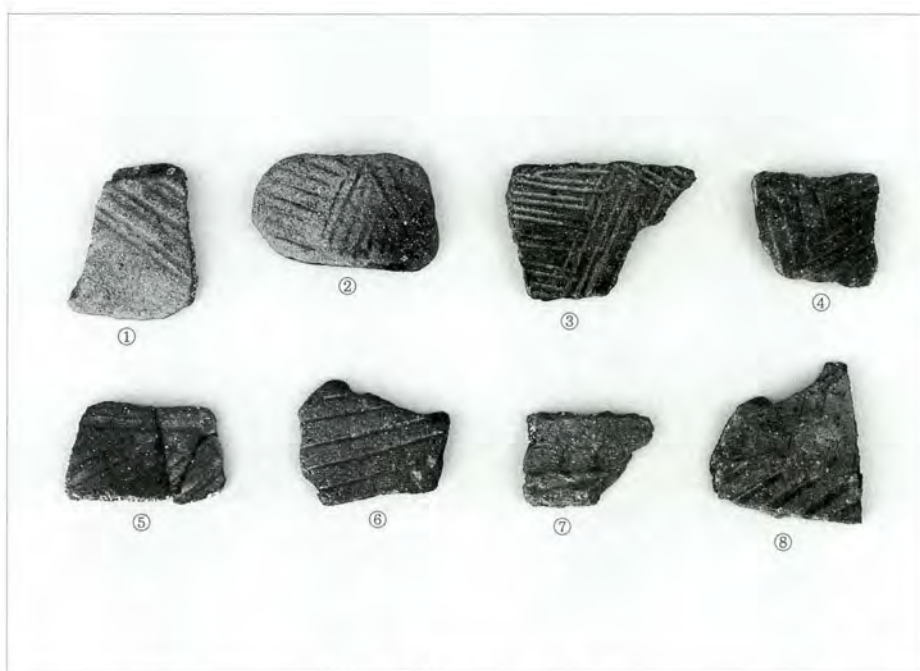


사진 63) 즐문토기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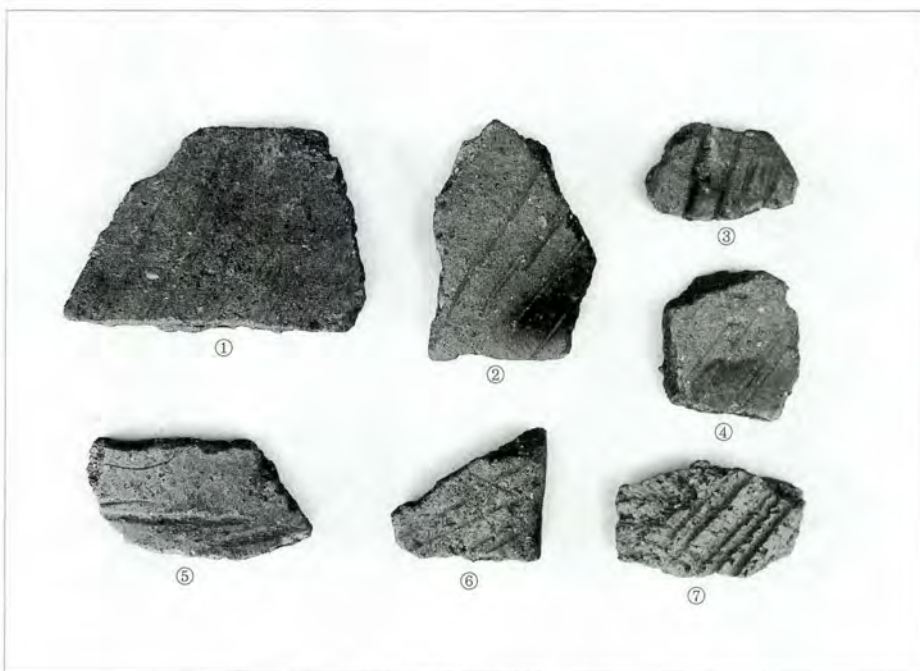


사진 64) 즐문토기류 3



사진 65) 기존조사출토 고구려 토기류 1



사진 66) 기존조사출토 고구려 토기류 2



사진 67) 기존조사출토 고구려 토기류 3



사진 68) 기존조사출토 고구려 토기류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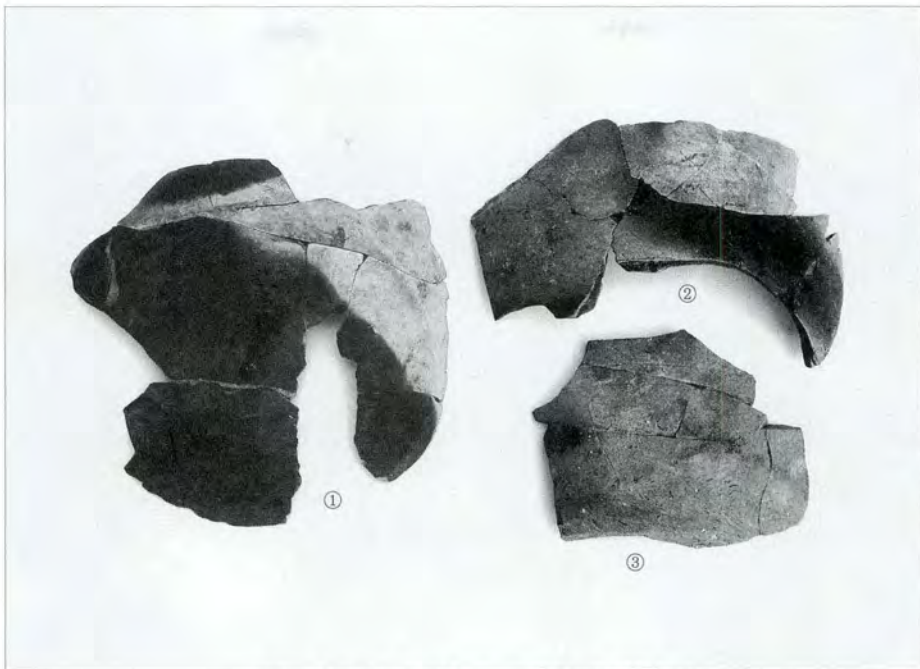


사진 69) 기존조사출토 고구려 토기류 5



사진 70) 기존조사출토 고구려 토기류 6

여 백

참 고 문 헌

1) 史料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地理志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國輿地志』

2) 報告書

강남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5, 『포천 반월산성 지표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 1999, 『도서해안 학술조사 I』.

_____, 1999, 『坡州 舟月里遺蹟』.

_____, 1999, 『平澤 關防遺蹟 精密地表調査報告書(I)』.

_____, 1999, 『抱川 城洞里 마을遺蹟』.

_____, 2001, 『임진강』 경기 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_____, 2001, 『한강』 경기 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I.

_____, 2002, 『연천 삼거리유적』.

_____, 2004, 『抱川 自作里遺蹟 I - 긴급발굴조사보고서』.

_____, 2004, 『抱川 自作里遺蹟 II - 시굴조사보고서』.

경희대학교 고고미술사연구소, 1992, 『오두산성』 I.

國立文化財研究所, 2000,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경기도편)』.

- _____, 2001, 『風納土城』Ⅰ.
- 國立文化財研究所, 2002, 『風納土城』Ⅱ.
- 國立中央博物館, 1994·1995, 『岩寺洞』Ⅰ.
- _____, 1999, 『岩寺洞』Ⅱ.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1, 『포천 반월산성 5차 발굴조사보고서』.
- _____, 2001, 『파주 칠중성 지표조사보고서』.
- _____, 2002, 『포천 반월산성 6차 발굴조사보고서』.
- _____, 2004, 『연천 은대리성 지표 및 시·발굴조사보고서』.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4, 『포천 반월산성』Ⅰ·Ⅱ.
-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1996, 『포천 반월산성 1차 발굴조사보고서』.
- _____, 『포천 반월산성 2차 발굴조사보고서』.
- _____, 1998, 『포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8, 『포천 반월산성 3차 발굴조사보고서』.
- _____, 1999, 『포천 반월산성 4차 발굴조사보고서』.
- 夢村土城發掘調査團, 1984, 『整備・復元을 爲한 夢村土城發掘調査報告書』.
- _____, 1985, 『몽촌토성발굴조사보고』.
- 文化財研究所·翰林大學校博物館, 1990, 『楊州 大母山城 發掘調査報告書』.
- 서울大學校博物館, 1975, 『石村洞積石塚發掘調査報告書』.
- _____, 1987, 『夢村土城-東北地區發掘報告』.
- _____, 1988, 『夢村土城-東南地區發掘報告』.
- _____, 1989, 『夢村土城-西南地區發掘報告』.
- 서울특별시, 2003, 『서울소재 성곽조사 보고서』.
- 세종대학교 박물관, 2001, 『의정부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 陸軍士官學校陸軍博物館, 1994, 『京畿道 坡州郡 軍事遺蹟地表調査報告書』.
- _____, 1995, 『京畿道 漣川郡 軍事遺蹟地表調査報告書』.
- _____, 1996, 『江原道 鐵原郡 軍事遺蹟地表調査報告書』.
- _____, 1997, 『京畿道 抱川郡 軍事遺蹟地表調査報告書』.
- 육군사관학교 국방유적연구실, 2003, 「연천 당포성 지표 및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집」.
- _____, 2004, 「파주 덕진산성 현장설명회자료」.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8,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_____, 1998,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_____, 1999,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_____, 1999, 『남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_____, 1999, 『漣川 瓠蘆古壘 精密地表調査報告書』.
 _____, 2001, 『漣川 瓠蘆古壘(一次發掘調査略報告書)』.
 _____, 2003, 『연천 신답리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한신대학교박물관, 2005, 『風納土城Ⅳ』.
 한양대학교박물관·문화인류학과, 1999, 『파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_____, 1999, 『동두천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3) 學位論文

- 金虎俊, 2002, 「抱川 半月山城의 時代別 活用 研究」, 檀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白種伍, 2001, 「京畿北部地域 城郭出土 高句麗 평기와 研究」, 檀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徐奉秀, 1998, 「抱川 半月山城 기와의 屬性分析과 製作時期」, 檀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梁時恩, 2003, 「漢江流域 高句麗 土器의 製作技法에 대하여」, 서울大學校 碩士學位論文.
 李元根, 1980, 「三國時代 城郭 研究」, 檀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崔孟植, 1998, 「百濟 평기와 製作技法의 新研究」, 檀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_____, 2003, 「三國時代 평기와에 관한 研究」, 檀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최장열, 2001, 「한강북안 고구려보루의 축조시기와 그 성격」, 서울大學校 碩士學位論文.
 최종택, 1995, 「漢江流域 高句麗土器研究」, 서울大學校 碩士學位論文.

4) 單行本

-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2005, 『고구려와당』.
 고려대학교박물관, 2005, 『한국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 國防軍史研究所, 1997, 『韓國의 烽燧制度』.
- 국사편찬위원회, 1996·1996·1995·1997, 『한국사』4·5·6·7.
- 朴性鳳, 1995, 『高句麗 南進 經營史의 研究』, 백산자료원.
- 朴淳發, 2001, 『漢城百濟의 誕生』, 서경.
- 백종오·신영문, 2005, 『高句麗 遺蹟의 寶庫 京畿道』, 경기도박물관.
- 여호규, 1998, 『高句麗 城』I, 국방군사연구소.
- _____, 1999, 『高句麗 城』II, 국방군사연구소.
- 魏存成, 1996, 『高句麗考古』, 湖巖美術館.
- 李亨求·趙由典·尹世英·車勇杰, 1996, 『高句麗의 考古文物』,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서영일, 1999, 『신라육상교통로연구』, 학연문화사.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77, 『서울육백년사』.
- 崔夢龍·崔盛洛, 1997, 『韓國古代國家形成論』, 서울대학교출판부.

5) 論文

- 龜田修一, 1997, 「百濟 漢城時代の 기와와 城」, 『百濟論叢』6, 百濟文化開發研究院.
- 권오영, 1999, 「한국 고대의 새 관념과 제의」, 『역사와 현실』32, 한국역사연구회.
- _____, 2003, 「漢城期 百濟 기와의 制作傳統과 發展의 劃期」, 『百濟研究』38,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 _____, 2001, 「백제 전기 기와에 대한 신지견」, 『百濟研究』33,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 金錫玉, 1981, 「韓半島 青銅器時代 紋樣의 研究」, 『韓國考古學報』10 11, 韓國考古學研究會.
- 藤元隆夫, 2004, 「[百濟 漢城時代 平瓦의 紹介」, 『百濟研究』39,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 朴淳發, 1989, 「漢江流域 原三國時代의 土器의 樣相과 變遷」, 『韓國考古學報』23, 韓國考古學會.
- 白種伍, 2000, 「京畿北部地域 高句麗城郭의 分布와 性格」, 『京畿道博物館 年報』3, 京畿道博物館.
- _____, 2002, 「臨津江流域의 高句麗 關防體系」, 『臨津江流域의 古代社會』, 仁荷大學校 博物館.
- _____, 2004, 「경기지역 고구려유적 일괄」, 『경기지역 고구려유적 정비 활용을 위한 학술토론 회의자료집』, 서울경기고고학회·기전문화재연구원.
- _____, 2004, 「抱川 城洞里山城의 變遷過程 檢討」, 『先史와 古代』20, 한국고대학회.

- _____, 2005, 「남한지역의 고구려 성곽」, 『한국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고려대학교 박물관.
- 백종오·김주홍·현남주, 1999, 「關防遺蹟」, 『도서해안 학술조사 I』, 경기도박물관.
- 백종오·김병희·현남주, 2001, 「임진강 남안의 관방유적」, 『임진강』, 경기도박물관.
- 白種伍·玄南周, 1999, 「抱川 城洞里山城 精密地表調査 報告」, 『抱川 城洞里마을 遺蹟』, 京畿道博物館.
- 徐榮一, 2001, 「6~7世紀 高句麗 南境 考察」, 『高句麗研究』11, 高句麗研究會.
- _____, 2002, 「경기북부지역 고구려 보루 고찰」, 『文化史學』17, 韓國文化史學會.
- 심광주, 2002, 「남한지역 고구려유적」, 『高句麗研究』12, 高句麗研究會.
- 심광주·김주홍·정나리, 1999, 「임진강유역 출토 고구려와에 대한 검토」, 『漣川 瓠蘆古壘 精密地表調査報告書』,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_____, 1999, 「한강 이북지역 고구려성의 분포와 특징」, 『漣川 瓠蘆古壘 精密地表調査報告書』,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李鎔賢, 2002, 「高句麗 南進과 임진강유역」, 『臨津江流域의 古代社會』, 仁荷大學校 博物館.
- 이호영, 1984, 「高句麗·新羅의 漢江流域 進出問題」, 『史學志』18, 檀國史學會.
- 장경호, 1985, 「우리나라 난방시설인 온돌(구들)형성에 대한 연구」, 『고고미술』165, 한국미술사학회.
- _____, 1987, 「해자의 기원과 기능에 관한 고찰」, 『삼불김원룡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Ⅱ』, 일지사.
- 정호섭, 2005, 「남한지역 고구려 유적·유물의 현황과 과제」, 『북방사논총』3, 고구려연구재단.
- 車勇杰, 1996, 「百濟城郭의 比較研究試論」, 『百濟論叢』5, 百濟文化開發研究院.
- _____, 2000, 「남한지역 高句麗 城堡와 관련된 문제와 성격의 검토」, 『九里高句麗國際學術會議』, 구리문화원.
- _____, 2003, 「忠淸地域 高句麗系 遺物 出土遺蹟에 대한 小考」-남성골 유적을 중심으로-, 『湖雲崔槿默教授定年記念論叢』.
- 최맹식, 2001, 「高句麗 기와의 特性」, 『高句麗의 遺蹟과 遺物』, 高句麗研究會.
- _____, 2005, 「고구려 기와의 특징」, 『한국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고려대학교 박물관.
- 崔夢龍, 1989, 「漢城時代 百濟의 領域과 文化」, 『韓國考古學報』22, 한국고고학회.
- _____, 2000, 「21세기의 한국고고학」, 『한국사론』30,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2002, 「21세기 한국고고학의 새로운 조류와 전망」, 『한국상고사학회 27회 학술발표 대회』, 한국상고사학회.
- _____, 2002, 「고고학으로 본 문화계통」, 『한국사』1,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2004, 「역사적 맥락에서 본 경기도 소재 고구려 유적의 중요성」, 『경기지역 고구려 유적 정비활동을 위한 학술 토론회』, 서울경기고고학회 기전문화재연구원.
- 崔鍾澤, 1995, 「漢江流域 高句麗土器研究」, 『韓國考古學報』33, 한국고고학회.
- _____, 2003, 「고구려성곽」, 『京畿道の 城郭』, 경기문화재단.
- 韓志仙, 2005, 「百濟土器 成立期 樣相에 대한 再檢討」, 『百濟研究』41, 충남대학교 백제문화연구원.

1) 도록

- 『경기도박물관』, 1996.
- 『京畿國寶-포용과 슬기의 자취』, 1997.
- 『우리나라의 金屬工藝의 正化-入絲工藝』, 1997.
- 『근대를 향한 꿈-수원, 용인, 오산, 화성』, 1998.
- 『박물관이야기』, 1998.
- 『몽골유목문화-초원의 대서사시』, 1999.
- 『중국역대도자전-광동성 박물관 소장』, 2000.
- 『고구려-한강유역의 요새』, 2000.
- 『유럽유리 500년전-빛의 보석 모래의 화신』, 2000.
- 『同과 異-한 · 중 · 일 대표유물이 한자리에』, 2002.
- 『조선의 옷매무새-광주 고읍 의원군 일가 복식』, 2002.
- 『먼 나라 꼬레(corée)-이폴리트 프랑댕의 기억속으로』, 2003.
- 『묻혀 있던 조선 최대의 왕실사찰 회암사』, 2003.
- 『천국의 열쇠』, 2003.
- 『사찰 꽃살문』, 2004.
- 『익살과 재치-꿈꾸는 우리민화』, 2004.
- 『경기도박물관 명품선』, 2004.
- 『먹의 바람』, 2005.
- 『중국 운남 민족문화전』, 2005.
- 『우리결의 고구려』, 2005.

2) 연보

- 『年報 창간호』, 1997.
- 『年報 제2호』, 1998.
- 『年報 제3호』, 1999.
- 『年報 제4호』, 2000.
- 『年報 제5호』, 2001.
- 『年報 제6호』, 2002.
- 『年報 제7호』, 2003.
- 『年報 제8호』, 2004.
- 『年報 제9호』, 2005.

3) 학술총서 및 자료집

- 『경기민속지 I -개관편』, 1998.
- 『경기민속지 II -신앙편』, 1999.
- 『경기민속지 III -세시풍속 · 놀이 · 예술편』, 2000.
- 『경기민속지 IV -의 · 식 · 주 편』, 2001.
- 『경기민속지 V -일생의례편』, 2002.
- 『경기민속지 VI -생업기술 · 공예』, 2003.
- 『경기민속지 VII -구비전승』, 2004.
- 『경기문화유적지도 I -경기남부지역』, 1999.
- 『경기문화유적지도 II -경기중부지역』, 2000.
- 『경기문화유적지도 III -경기북부지역』, 2001.
- 『趙榮福의 燕行日錄』, 1998.
- 『京畿道佛蹟資料集』, 1998.
- 『趙重誨의 入朝日記』, 2000.
- 『青海李氏 寄贈古文書』, 2001.

- 『礪山宋氏 寄贈古文書』, 2001.
 『全州李氏(白軒相公派) 寄贈古文書』, 2003.
 『화영일록』, 2004

4) 학술조사보고서

- 『97 경기도박물관 발굴조사 개보』, 1998.
 『平澤의 歷史와 文化遺蹟』, 1998.
 『龍仁 坪倉里 舊石器 遺蹟 試掘調査報告書』, 1998.
 『京畿道廣州中央官窯-窯址地表調査報告書地圖篇』, 1999.
 『임진강-경기 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Ⅰ』, 2000.
 『한강-경기 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Ⅱ』, 2002.
 『안성천-경기 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Ⅲ』, 2003.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Ⅰ-화성군 해안지역』, 2000.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Ⅱ-안산시 해안지역』, 2001.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Ⅲ-김포시 도서해안지역』, 2002.
 『龍仁 坪倉里 舊石器 遺蹟』, 2000.
 『京畿道廣州中央官窯-窯址地表調査報告書解説篇』, 2000.
 『고양 벽제관 건축유적지 발굴조사보고서』, 2000.
 『전주이씨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광주고읍인평대군파의원군일가』, 2001.
 『전주이씨묘 출토복식 문양집-광주고읍인평대군파의원군일가』, 2001.
 『동래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서울 사당동 홍곡공파일가』, 2003.
 『高句麗遺蹟의 寶庫 京畿道』, 2005.
 『연안김씨 묘 출토복식』, 2005.
 『진주류씨 합장묘 출토복식』, 2006.

5) 유적조사보고

- 『坡州 舟月里 遺蹟』, 1999.(유적조사보고 제1책)
- 『抱川 城洞里 마을遺蹟』, 1999.(유적조사보고 제2책)
- 『平澤 關防遺蹟(Ⅰ)』, 1999.(유적조사보고 제3책)
- 『龍仁 壬辰山城』, 2000.(유적조사보고 제4책)
- 『龍仁 麻北里 高麗古墳』, 2001.(유적조사보고 제5책)
- 『檜岩寺Ⅰ』, 2001.(유적조사보고 제6책)
- 『南北連結道路(統一大橋~長湍間)文化遺蹟 試掘調査報告書』, 2002.(유적조사보고 제7책)
- 『奉業寺』, 2002.(유적조사보고 제8책)
- 『漣川 三巨里遺蹟』, 2002.(유적조사보고 제9책)
- 『비무장지대 도라산유적』, 2004.(유적조사보고 제10책)
- 『京義線 連結道路 非武裝地帶區間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 2003.(유적조사보고 제11책)
- 『春宮洞 遺蹟』, 2003.(유적조사보고 제12책)
- 『抱川 自作里遺蹟Ⅰ』, 2004.(유적조사보고 제13책)
- 『檜巖寺Ⅱ -7·8단지 발굴조사 보고서』, 2004.(유적조사보고 제14책)
- 『月籠山城』, 2004.(유적조사보고 제15책)
- 『驪州地域의 陶磁遺蹟』, 2004.(유적조사보고 제16책)
- 『平澤 關防遺蹟(Ⅱ)』, 2004.(유적조사보고 제17책)
- 『抱川 自作里遺蹟Ⅱ』, 2004.(유적조사보고 제18책)
- 『驪州 中岩里 高麗白磁窯址』, 2004.(유적조사보고 제19책)
- 『고양 먹절산유적-긴급발굴조사 보고서』, 2005.(유적조사보고 제20책)
- 『高麗 王室寺刹 奉業寺』, 2005.(유적조사보고 제21책)
- 『龍仁 할미산성』, 2005.(유적조사보고 제22책)
- 『安城 梅山里 高麗 古墳群』, 2006.(유적조사보고 제23책)

내용누락

p.213-214

The Excavation Research Report on the Youk-gae
Earthen Fortress in Paju City

- I . Introduction
- II . Environment of around the ruins and Circumference ruins
- III . Historical geography
- IV . Investigation result of existing
- V . Investigation methods and process
- VI . Investigation substances
- VII . Synthesis studies
- VIII . Conclusion
- IX . Ideas of the investigation corps for preservation and consolidation
- Photographs
- Bibliographies
- Published Books
- Contents
- Summary of Excavation transactions

여 백

調查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坡州 六溪土城 試掘調查報告書		出版日	2006年 4月
發刊機關	名稱	京畿道博物館		
	住所	京畿道 龍仁市 器興區 上葛洞 85番地		
	TEL	(031)288-5360		
	E-mail	Kgmuse@musenet.or.kr		
	홈페이지	http://www.musenet.or.kr		
執筆・編輯者	白種伍・申泳文・吳康錫・吳大洋・姜眞周			
調查緣由	坡州 六溪土城 學術調查			
發掘調查者	白種伍・韓濬伶・權順眞・申泳文・吳康錫・吳虎錫・吳大洋・金正基・姜眞周			
遺蹟所在地番	京畿道 坡州市 積城面 舟月里 382番地 一帶			
遺蹟種類	時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關防遺蹟 (土城)	百濟・高句麗	住居址, 豎穴遺構, 用度未詳遺構 等	百濟土器 高句麗土器	土城地表調查 및 試掘調查

【執筆】

白種伍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申泳文 (경기도박물관 연구원)

吳康錫 (현 강원문화재연구소 연구원)

【編輯】

吳大洋 (경기도박물관 연구원)

姜眞周 (경기도박물관 연구원)

蘇珉靜 (경기도박물관 연구원)

【行政支援】

鄭美葉 (경기도박물관 교육홍보팀)

坡州 六溪土城

試掘調査報告書

2006년 4월 인쇄

2006년 4월 발행

펴낸이 : 이종선

펴낸곳 : 경기도박물관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산85번지

전 화 : 031) 288-5366, 5455

팩 스 : 031) 288-5379

이메일 : Kgmuse@musenet.or.kr

편집·인쇄 : 도서출판 주 류 성

전 화 : 02) 3481-1024 / 팩 스 : 02) 3482-0656

*The Excavation Research Report on the Youk-gae
Earthen Fortress in Paju City*



Gyeonggi Provincial Museum
Paju City